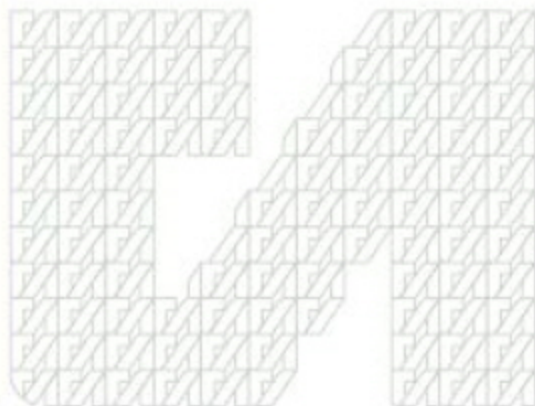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과 인구 유입 대책 제안 - 20~30대 인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Recent Population Dynamics in Daejeon
- The Inflow and Outflow of Younger Generation

주혜진



정책연구 2018-17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과
인구 유입 대책 제안
- 20~30대 인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Recent Population Dynamics in Daejeon
- The Inflow and Outflow of Younger Generation

주 혜 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서현경 / 도시경영연구실 조사원
- 이혜지 / 도시경영연구실 조사원

정책연구 2018-17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과 인구 유입 대책
제안-20~30대 인구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증부인쇄기획 TEL 042-253-7537 FAX 042-253-753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최근 대전시는 주민등록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출생 증가를 통한 인구 자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도 전망이 어두움
-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 있는 대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인구의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 크기에 비해 많은 (16개) 대학 수로 인해 청년의 비율이 높아 이들의 특성 파악에 근거한 정주 유인책 모색이 필요함

■ 연구 방법

- 통계청과 대전시 사회지표 및 2016~2017년 사회조사 원시자료 분석
-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및 관련자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 전문가 콜로키움

■ 연구결과

기존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의 한계

- 투입된 예산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은 도시로 분류되는 대전시는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한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출산에만 집중한 인구정책이 아닌, 세대의 삶에 질에 집중하는 통합적 인구정책 방향이 요구됨

□ 대전시 청년인구 현황과 이동 특성

- 대도시의 특성을 지닌 대전시 20대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15.18%),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성구(16.89%)임
- 대덕구의 경우 20대 비율이 14.13%로 동구나 중구에 비해 높으나, 30대는 12.53%로 5개 구 중 가장 낮음
- 20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유성구 온천1,2동이며, 30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유성구 원신흥동과 서구 가수원동임
- 2017년 기준 20대 인구는 온천동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동하고, 대전을 떠나 서울과 경기, 인천 순으로 이주하며, 인근 지역 중 세종시로의 전출이 천안시나 청주시를 앞서고 있음
- 2017년 기준 30대 인구는 원신흥동과 노은3동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동하고,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이주하며, 세종시로의 이주가 압도적으로 많음
- 2015~2016년 세종시로 이주한 30대의 이주사유 중 '주택'은 타시도 전출사유 중 주택이 차지한 비율 13.8%(2016년)를 넘는 24.9~22.3%를 차지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청년 삶의 특성과 정책 수요

- 20대 초반 청년은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외모에 관심이 많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득과 가족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생애주기에 따른 관심사의 변화를 드러냄
- 소득이 청년에게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및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선정됨
-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모바일 조사를 통해 많이 피력했으며, 대전이 흥미로운 도시는 아니지만 저렴한 생활비(물가 및 주택가격), 교통편의성 등은 정주 매력요인으로 지적됐음

- 20,30대 인구의 정주지속의사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은 소득과 직업 등 개인적 요인들보다 주거환경이나 교통 등 도시인프라 관련 변인들이었음
- 20대 후반의 정주지속의사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주거환경 및 교통 외 고용안정성이 나타났으며, 30대 후반에 있어서는 고용안정성이 빠지고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건의

- 청년인구의 정주지속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활용도를 높인 도시 인프라의 변화'로 설정되어야 함
- 도시 시설과 공간, 교통 및 문화 활용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와 정보 취득이 중요한 정주 유인 요소라 할 수 있음

정책 방향	청년인구의 정주 유인책 발굴과 여건 강화	
정책 이슈	<p>사회적 교류의 활성화 개성있는 문화생활 가족과 보내는 시간 확보</p>	<p>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교육여건의 전문화·다양화 쾌적한 주거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 제공 양육 여건의 양질화</p>
정책 목표	청년인구의 도시 활용도 제고	청년인구의 삶의 질 향상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도시 교통망 정비 • 지역청년 ROOFTOP PARTY “즐모있는 만남” • 대전시 정보 활용과 홍보 앱 • 대전시 외곽 지역을 활용하는 문화 시설 설치 • 시청사 잔디밭 야외 결혼식장 운영 • 주거지 내 녹지와 공원 면적의 확보 • 청년협동조합-“스스로 프로젝트”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발굴과 포상 • 가족 단위 이용 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수요 대응 • 대학가 주변 원룸 안전성 강화 • 직업도서관 설치 • 전문 기술 정보 중심 학원가 조성 • 지역인재 Career Fair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뉴딜 • 건강한 미래부모 검진 프로그램 운영 •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증가 추세 대응 • 육아휴직 지원금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아기 이름 지어주기 • 간편 유아차(유모차) 대여

차 례

1장 연구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와 용어의 정의	4
4. 연구 방법	5
2장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분석의 틀	15
3장 청년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21
1. 정부 인구 정책의 흐름	21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의 성과와 한계	21
2)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의 흐름	23
2. 대전시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	29
1) 인구정책 조례	29
2)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사업과 예산	33
3)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	36
4장 대전지역 청년인구 현황과 특성	41
1. 대전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	41
1) 총인구와 성별 인구구조	41
2) 연령별 인구구조	42
3) 20~30대 인구의 지리적 분포	45

2. 대전지역 청년인구 이동 특성	54
1) 20대 인구의 이동 특성	54
2) 30대 인구의 이동 특성	61
3) 청년 인구의 이동 사유	67
5장. 대전지역 청년인구의 삶의 질과 정책 수요 분석	73
1. 자료 활용과 분석 개요	73
1) 2016·2017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개요	73
2)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개요	74
2. 관심과 가치관	75
1) 모바일 조사에 나타난 20대 청년의 관심사	75
2) 모바일 조사에 나타난 30대 청년의 관심사	78
3) 소결	80
3. 정주지속의사 영향 요인과 전망	83
1) 대전 거주 이유	83
2) 대전 정주 지속 전망	86
3) 거주 환경과 정주 의사	91
6장. 청년인구정책 방향 설정과 영역별 과제	103
1. 청년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103
1) 청년정책 지원 조례 현황	103
2) 대전시 청년정책 지원 사업 현황	105
2. 청년인구의 정주 지속을 위한 정책 제안	107
1) 청년인구 정주 관련 정책 이슈	107
2) 청년인구 정주지속 지원정책 추진 방향	109
3) 청년인구 정주지속 지원정책 제안	110
4) 청년인구 정주 지속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114

참고문헌 122

부 록

부록 1 대전 청년인구 현황과 이동표 125
부록 2 대전 거주 청년인구의 정주 여건과 전망 조사지 132
부록 3 대전 거주 청년인구의 정주 여건과 전망 결과표 142
부록 4 2016-2017 대전시 사회조사 결과표 174

표 차례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방향과 제언	27
[표 3-2] 전국 인구관련 조례 현황	29
[표 3-3] 대전시 출산관련 조례 현황	30
[표 3-4]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이 명시된 조례	30
[표 3-5] 인구정책 기본조례 내용 비교	32
[표 3-6] 대전시 출산 지원정책	35
[표 4-1] 대전시 총인구의 변화	41
[표 4-2] 대전시 성별 인구의 변화	42
[표 4-3] 대전시 연령별 인구의 변화	44
[표 4-4] 6대 광역시 20대 인구 현황(2013~2017)	45
[표 4-5] 대전시 자치구별 20대 인구 분포	46
[표 4-6] 대전시 20대 행정동별 현황	49
[표 4-7] 대전시 30대 행정동별 현황	52
[표 4-8] 최근 5년간 대전시 20대 인구 이동	55
[표 4-9] 최근 5년간 대전시 20대 성별 인구 이동	55
[표 4-10] 대전시 20대의 타시도 전출자 현황	56
[표 4-11] 지역별 20대의 대전시 전입자 현황	57
[표 4-12] 공간범위별 대전 2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7)	59
[표 4-13] 최근 5년간 대전시 30대 인구 이동	61
[표 4-14] 최근 5년간 대전시 30대 성별 인구 이동	61
[표 4-15] 대전시 30대의 타시도 전출자 현황	62
[표 4-16] 지역별 30대의 대전시 전입자 현황	63
[표 4-17] 공간범위별 대전 3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7)	64
[표 4-18] 신혼부부의 국내 거주 지역 이동 현황	66

[표 4-19] 대전 청년인구의 타시도 전출시 이주사유(2016년)	68
[표 4-20] 청년인구의 대전 전입시 이주사유(2016년)	68
[표 4-21] 대전시 30대의 세종으로의 전출사유(2015~2016년)	69
[표 5-1] 대전시 사회조사 청년인구 표본 현황(2016~2017년)	73
[표 5-2] 모바일/온라인 설문조사 추진 개요	74
[표 5-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의 거주 지속 전망	86
[표 5-4] 청년인구의 대전 정주 지속 전망 이유	90
[표 5-5] 청년인구의 대전 정주 중단 전망 이유	91
[표 5-6] 2017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정주 지속 의사	92
[표 5-7] 2017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거주환경 만족도	92
[표 5-8] 2017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대중교통 만족도	93
[표 5-9] 2016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필요한 공공시설-1순위	94
[표 5-10] 2016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거주환경 안전 인식	95
[표 5-11] 2016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사회적 관계 정도	96
[표 5-12] 2017 대전시 사회조사-정주지속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97
[표 5-13] 향후 정주지속의사 예측 요인 다중회귀분석결과	99
[표 6-1] 청년조례 내용별 분류	103
[표 6-2] 전국 청년 조례 현황	104
[표 6-3] 대전시 청년조례 현황	104
[표 6-4] 대전시 청년 지원정책	105
[표 6-5] 대전 청년인구 정주지속 지원정책의 방향	109
[표 6-6] 청년인구 정주지속 정책이슈와 정책과제	110
[부표 1-1] 공간범위별 대전 2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5)	125
[부표 1-2] 공간범위별 대전 3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5)	126
[부표 1-3] 공간범위별 대전 2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6)	127
[부표 1-4] 공간범위별 대전 3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6)	128
[부표 1-5] 최근 3년간 대전 20-30대 인구의 수도권 이동	129

[부표 1-6] 최근 3년간 대전 20대 인구의 충청권 이동	130
[부표 1-7] 최근 3년간 대전 30대 인구의 충청권 이동	131
[부표 3-1]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142
[부표 3-2]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142
[부표 3-3] 일반적인 20대 초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143
[부표 3-4] 일반적인 20대 초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143
[부표 3-5]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1순위)	144
[부표 3-6]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2순위)	144
[부표 3-7]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145
[부표 3-8]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살게 될 이유(1순위) ·	145
[부표 3-9]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살게 될 이유(2순위) ·	146
[부표 3-1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	147
[부표 3-1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	147
[부표 3-12]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148
[부표 3-13]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148
[부표 3-14] 일반적인 20대 후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149
[부표 3-15] 일반적인 20대 후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149
[부표 3-16]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1순위)	150
[부표 3-17]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2순위)	150
[부표 3-18]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151
[부표 3-19]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거주할 이유(1순위)	151
[부표 3-2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거주할 이유(2순위)	152
[부표 3-2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153
[부표 3-2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153
[부표 3-23]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154
[부표 3-24]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154
[부표 3-25] 일반적인 30대 초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155

[부표 3-26]	일반적인 30대 초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155
[부표 3-27]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1순위)	156
[부표 3-28]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2순위)	156
[부표 3-29]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157
[부표 3-3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대전에 거주 할 이유(1순위)	157
[부표 3-3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대전에 거주 할 이유(2순위)	158
[부표 3-3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159
[부표 3-3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159
[부표 3-34]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160
[부표 3-35]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160
[부표 3-36]	일반적인 30대 후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161
[부표 3-37]	일반적인 30대 후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161
[부표 3-38]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1순위)	162
[부표 3-39]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2순위)	162
[부표 3-4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163
[부표 3-4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대전에 계속 거주하게 될 이유(1순위)	163
[부표 3-4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대전에 계속 거주하게 될 이유(2순위)	164
[부표 3-4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164
[부표 3-44]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도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165
[부표 3-45]	청년인구의 대전지역 정주 지속 및 유입을 위한 의견 중 '주거를 언급한 주관식 응답'	166
[부표 3-46]	청년인구의 대전지역 정주 지속 및 유입을 위한 의견 중 '문화를 언급한 주관식 응답'	168
[부표 4-1]	2016 사회조사 향후 필요한 공공시설(2순위)-연령별 비교	174
[부표 4-2]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2030세대 전체)	175
[부표 4-3]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24세미만)	176
[부표 4-4]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25-29세)	177
[부표 4-5]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30-34세)	178
[부표 4-6]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35-39세)	17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上	6
[그림 1-2] 연구의 흐름 下	7
[그림 2-1] 분석의 틀	16
[그림 3-1]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방향	22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예산 비율(2014~2016년 평균)	24
[그림 3-3]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2014~2016년 평균)	25
[그림 4-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인구구조의 변화(1980년-2030년)	43
[그림 4-2] 대전시 행정동별 청년인구 분포도	47
[그림 4-3] 대전 20대의 타시도 간 전출입 인구 현황(2013-2017)	60
[그림 4-4] 대전 30대의 타시도 간 전출입 인구 현황(2013-2017)	65
[그림 5-1]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75
[그림 5-2] 성별에 따른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76
[그림 5-3]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77
[그림 5-4] 성별에 따른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77
[그림 5-5]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78
[그림 5-6] 성별에 따른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79
[그림 5-7]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80
[그림 5-8] 성별에 따른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80
[그림 5-9] 연령대별 관심사 변화	81
[그림 5-10] 언론에 등장한 ‘청년의 삶 담론’ 지형	82
[그림 5-11] 20대 초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83
[그림 5-12]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84
[그림 5-13] 30대 초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84
[그림 5-14] 30대 후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85

[그림 5-15] 20대 초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86
[그림 5-16]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87
[그림 5-17] 30대 초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87
[그림 5-18] 30대 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88
[그림 5-19] 20대 초반 청년의 대전 정주 중단 이유 1,2순위	89
[그림 5-20]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중단 이유 1,2순위	89
[그림 5-21] 30대 초·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중단 이유 1순위	90
[그림 6-1] 대전 청년인구 특성에 따른 정책 이슈	108
[그림 6-2] 청년인구 정주지속 주요 과제의 지리적 위치	113
[그림 6-3] 직업도서관 사례	116
[그림 6-4] 청년교류정책과 ROOFTOP 카페 예시	117
[그림 6-5] 종합정보포털 사례	119
[그림 6-6] 공공기관 청사 활용 야외결혼식 사례	120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용어의 정리
4. 연구 방법

1장

1장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대전광역시 인구는 149만5천234명으로, 2013년 153만2천811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인구 성장은 크게 인구의 총증가, 자연증가, 사회적 증가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출생과 사망(자연증가), 그리고 이주/이동(사회적 증가)이 있음(박경숙, 2017: 29-30)
- 대전시의 합계출산율은 1.206명(2010년), 1.277명(2015년), 1.192명(2016년)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인구 분포의 특성과 이동 경향 그리고 정주 지속 영향 요인 추정을 통한 인구 유입 대책을 모색해야 함
- 현재 대전시는, 자연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90%(2015년), 11.33%(2016년), 12.03%(2017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뚜렷한 고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20대 인구 비율이 2020년까지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 또한 있음
- 대전지역에는 대학이 16개에 달하며(4년제 11개교, 전문대 5개교)¹⁾, 대학생 인구가 2017년 하반기 기준 104,419명(4년제 84,159명, 전문대 20,260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학 졸업 후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떠나는 경향 또한 있어, 이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대학교와 전문대학, 학생의 수는 대전시 『2017 하반기 시정 주요통계』 자료에 근거함

- 저출생과 고령화 경향이 뚜렷하면서도 20대 인구 비율이 높은 특징을 지닌 대전시는 ‘핵심생산가능인구(20~30대)’ 이동(유·출입)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타깃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 발굴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연구 목적

- 대전시 인구 현황 및 변화 추세 분석을 통한 인구 문제 진단
- 청년(만 19세~39세²⁾) 인구의 유·출입, 인구의 지리적 분포 및 사회적 특성 분석을 통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간 협력 추진 방안 모색
- 청년 집단의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정주 여건 방안 모색

3. 연구 범위와 용어의 정의

-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 5개 기초자치구와 79개 행정동(2016년 12월 말 기준)
- 시간적 범위: 2013~2017년 간 (5년)
 - ※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청년인구: 만 19세~39세 대전시 상주인구³⁾
 - 이동: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것⁴⁾
 - 순이동: 전입-전출(시도 간 이동)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함 (제3조 제1항)
 3) 상주인구란 “어떤 공간 안에서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박경숙, 2017: 22)
 4) 통계청(2018), 「2018년 1월 국내인구이동 보도자료」.

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통계청, 행정기관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
 - 광역, 기초자치구, 행정동별 인구 현황과 추세 변화 분석
- 대전시 사회조사 microdata(raw data) 재분석
 - 2016, 2017년 시행된 대전시 사회조사 원시자료 재분석
 - 청년의 사회적 특성과 정책 수요 분석

○ 온라인 설문조사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단체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모바일 조사
- 대전지역 청년의 관심과 이슈, 정주여건 및 전망 분석

○ 전문가 콜로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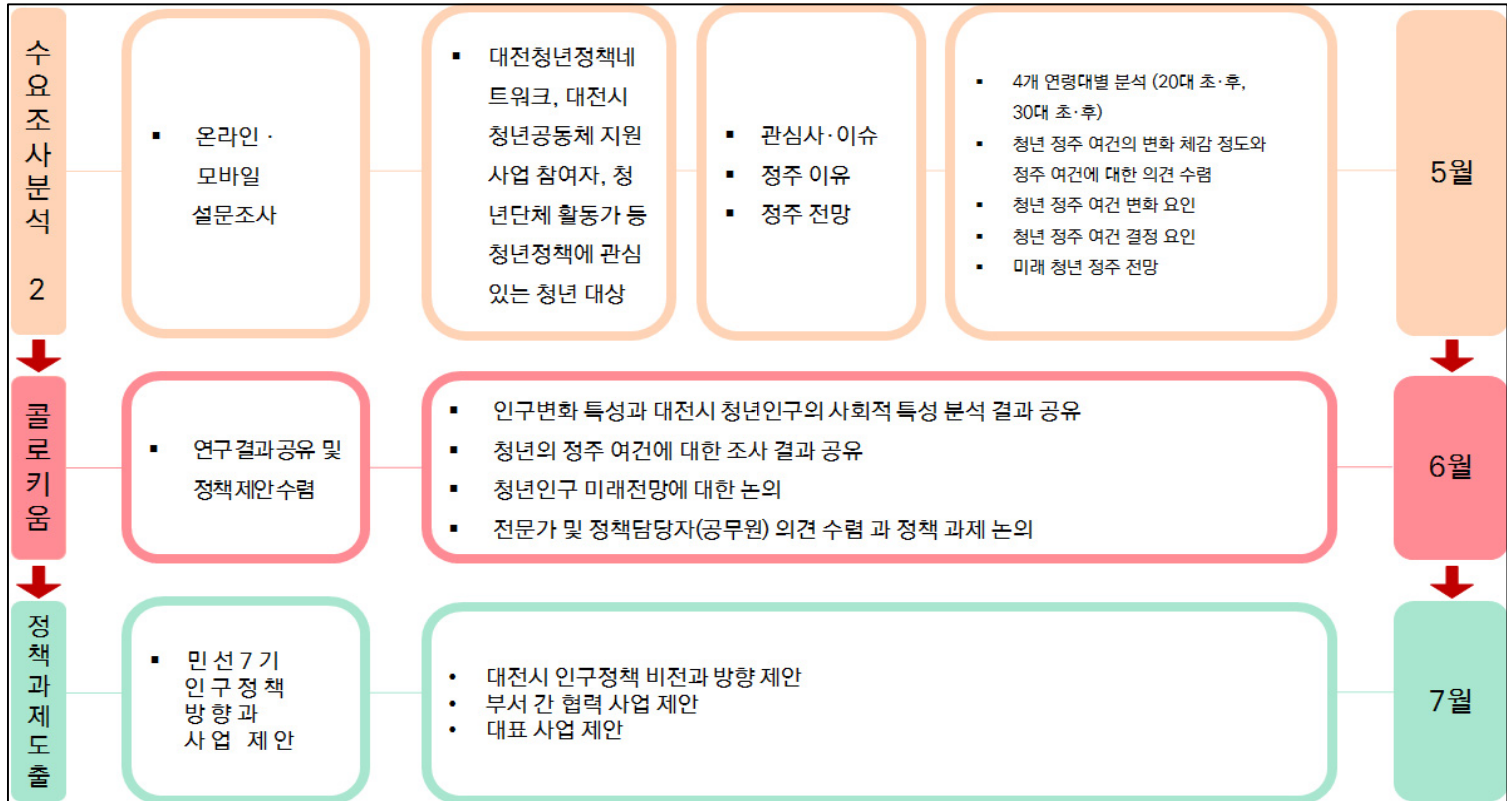
- 연구결과 공유, 청년인구정책 방향과 과제 발굴

○ 연구의 흐름

- 연구절차와 주요내용을 담은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흐름 상



[그림 1-2] 연구의 흐름 下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2장

2장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 저출생과 고령화 경향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 현상을 이끌어 왔고, 이는 특정 지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연구원들은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와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화된 경향 속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모색해 왔음
- 김상일 외(2016)는 서울시의 인구현황 및 기존의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구정책의 관점 자체를 다시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함
- 서울시 인구 변화의 특성은 빠른 고령화 경향 외에도 가임기 여성은 많지만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하위인 점과, 특히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 심화로 '脫서울'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을 꼽을 수 있음(김상일 외, 2016)
-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30,40대 인구가 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통근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고령화가 심해져 도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김상일 외, 2016)
- 김상일 외(2016)는 서울의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 경기·인천으로의 이주 현상으로 인한 서울권의 확장 등을 논의하면서, 인구정책을 출생 이후 양육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시간적 빈곤을 해결하고, 넓어지고 있는 서울 즉, 생활권으로서의 서울을 위한 도시계획을 제안하고 있음
- 민보경·변미리(2018)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인구이동 특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인구이동패턴이 '1인가구 밀집지역' '교육중심 아파트밀집지역' 등 이동사유에 따라 구분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이동 특성에 기반을 둔 권역별 도시관리를 제안하고 있음

- 민보경·변미리(2018)는 서울 시내이동과 수도권이동 모두 근거리이동 비중이 높다는 점과 주택가격과 교육여건에 따라 주거이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기도 신도와의 광역교통체계 협치와 이동특성에 따라 드러난 행정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최석현 외(2016)도 2010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현상이 2배로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에 근무지를 두고 주거지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함
- 최석현 외(2016)는 특히 경기도 성남과 광명, 군포와 오산시를 ‘청년인구 증가형’으로 명명하고, 이들 도시는 20대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20대 인구만의 증가가 오히려 사회기반시설 약화와 연동되면서 지역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조상필(2016)은 인구변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도시계획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 인구감소현황을 반영하여 ‘압축형 도시공간구조’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김동영 외(2016)는 전라북도의 자연인구 감소와 인구유출 증가 현황을 분석하면서, 특히 2015년 기준, 20대 청년층의 유출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실태임을 지적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김동영 외(2016)는 전북의 청년인구, 특히 21세에서 27세까지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북출신 타지 거주 청년이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꼽고 있는 만큼 청년이 도내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정책 사업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함
- 김동영 외(2016)는 이미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 외에 청년창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했으며, ‘U턴 청년 유치 전

략'-수도권대학과의 U턴 취업 협정, 문화귀촌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함

- 임준홍 외(2017a)는 지난 20년 간 충남의 인구는 증가추세지만, 천안과 아산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성장하고, 청양이나 서천은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함
- 임준홍 외(2017a)는 인구의 감소가 생활편리성 저하와 지역 매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도 크지만, 감소 경향을 받아들이고, 이를 도시 공간의 질적 개선의 기회, 도시문제와 환경문제를 개선할 기회, 그리고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고용의 창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인구감소를 인구 총량의 감소로만 보고 경제적 손실, 자산의 감소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GRDP' 증가 정책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임준홍 외(2017a)는 인구정책의 비전을 설정할 때 과다하게 인구총량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생율 증가 책임'을 정책 추진의 바탕에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인접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구축하여 개인과 가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함
- 홍성효·유수영(2012)은 이주의 세대별 특성을 논의하면서, 20대 중반의 이주민들은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81세 이상의 고령 이주민들은 인구밀도가 낮고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음을 밝힘
- 20대 중반의 청년들의 삶과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이들의 이주는 취업기회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문화적 기회 및 타인들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음(홍성효·유수영,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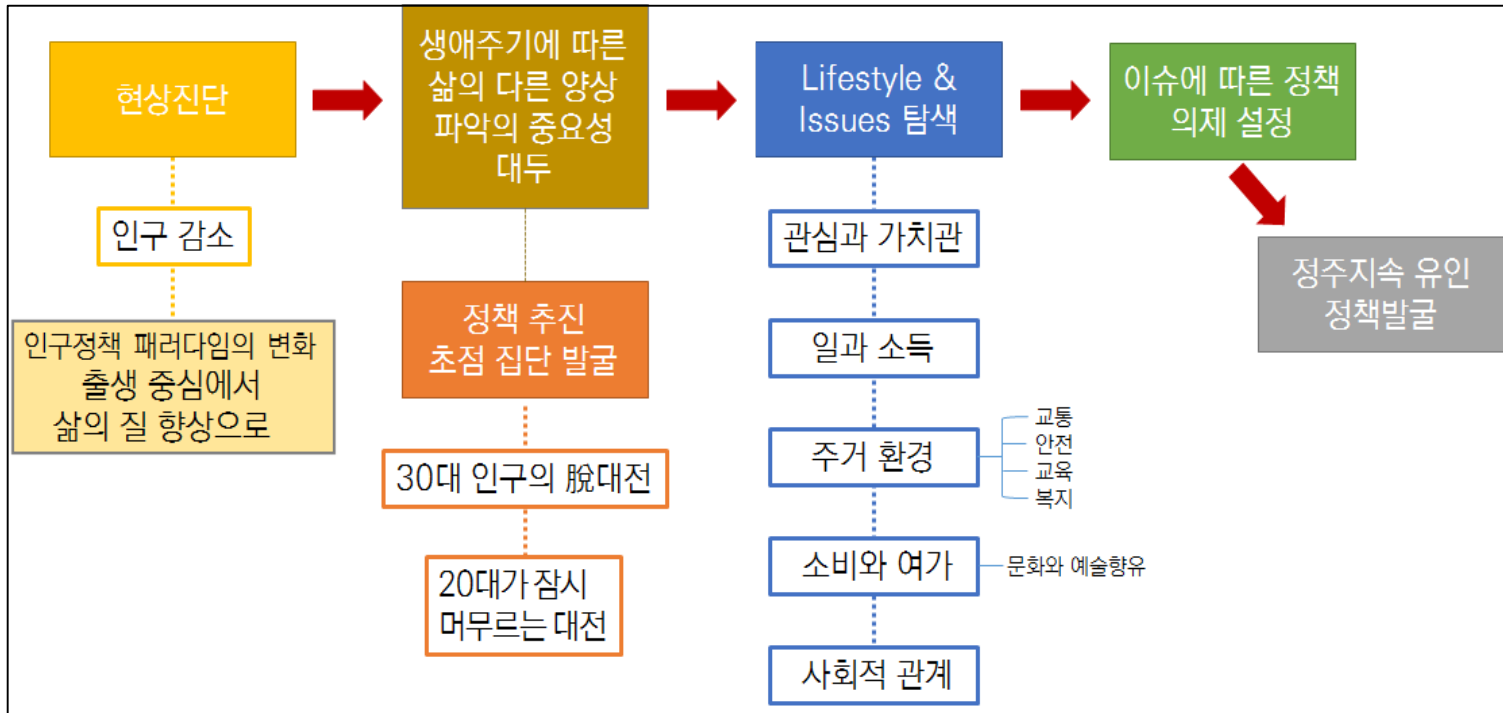
- 이찬영(2018)은 연령대별 인구 유출입 결정요인을 분석했는데, 2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지만,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찬영(2018)은 20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주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며, 30대 이상의 연령대는 주택가격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함
- 기존의 인구유출입 연구들이 소득과 임금, 취업기회, 주택가격과 교육여건, 교통편리성과 복지예산 등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이찬영(2018)은 특히 광역지자체 20대와 30대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으로 '문화기반시설 수'의 예측가능성에 주목함
- 이찬영(2018)은 지역 간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연령대별로 다를 것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특히 20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결정적 요인이나, 30대 이후에는 삶의 질과 연관된 제반 요인이 점차 중요시 된다는 점과, 특히 문화기반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인구유입에 결정적일 수 있음을 제안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음
- 이찬영·이흥후(2016)는 25~29세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이 높고 취업기회가 많으며, 거주비용이 낮으면서 결혼 기회가 많은 곳으로 청년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밝힘
- 이찬영·이흥후(2016)는 임금과 취업 외에도 혼인건수와 문화서비스혜택 및 인구밀도 변인을 활용하여 청년이 해당 시기에 관심 있는 것, 즉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거주환경 요인과 결합해 이동 결정의 요인으로 설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김리영·양광식(2013)은 인구의 자연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개발 혹은 기반 시설 확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인구 유출입이 활발한 지역의 특성을 검토하여 어떠한 도시개발 혹은 기반시설 확보가 인구 유입에 결정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김리영·양광식(2013)은 인구이동(순유입, 인구유출입)을 설명할 독립변인들로 지방정부재정, 사업체, 의료·교육·보육·문화·대중교통서비스, 주택가격, 인구규모, 수도권여부 및 대도시권인접성을 설정했음
- 인구 유출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김리영·양광식(2013)은 사업체의 증가(일자리 증가)가 모든 규모의 도시에서 유의미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인구 유출입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힘

2. 분석의 틀

- 인구 이동과 지역 유출입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을 경제적 측면뿐 아닌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제기됐음
-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여 인구 유입의 동인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강조되었는데, 주택가격과 복지서비스 강화 보다는 문화기반시설과 서비스, 교육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특히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특성이 두드러지면서 대중교통 편리성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다수 제기됐음
- 청년의 유입 혹은 정주지속 방안으로 취업과 소득의 질적 향상은 기본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청년층은 장년이나 노년층과 달리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건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도 중요한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대전지역 청년 인구의 삶의 특성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할 분석의 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분석의 틀

- 최근 인구 연구들은 ‘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 인구 총량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대전지역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인구 감소는 출생과 사망 그 자체보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삶의 양상과 만족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의 문제’로 정책적 관심을 이동해야 함
- 삶의 질은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얼마나 잘 충족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한 ‘인구정책 초점 집단의 발굴’과 정책 지원이 요구됨
- 인구의 사회적 증가(이동) 결정 요인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도 정책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의 삶이 가지는 특성(Lifestyle)과 현안(Issues)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 [그림 2-1]과 같이,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진단함에 있어 출생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인구 정책 추진 대상 집단을 발굴하며, 이 집단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 즉, 삶의 특성과 현안을 발굴하여 인구정책 의제를 발굴하고자 함

청년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1. 정부 인구정책의 흐름
2. 대전시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

3장

3장 청년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1. 정부 인구 정책의 흐름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배경과 내용

- 한국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06~2015년동안 5년 단위로 1차와 2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출생의 감소가 또다시 다음 세대 출생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응인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생의 출발 지점을 결혼에 두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생애주기를 거치며 경험하는 사건’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남녀의 만남과 결혼, 출산과 양육에만 초점을 두었던 정책 패러다임에서, 저출생 현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을 새로이 추가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박선권, 2017a)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꾸준히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법과 제도 정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에 있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월 5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방향을 요약

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음

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① 목표	출산율·출생아 수	2040 세대 삶의 질
② 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③ 타킷 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청년, 아이, 여성 행복 서민, 중산층
④ 정책 주안점	보육	주거, 일·생활 균형 강화 모든 출생 존중
⑤ 실천 전략	새로운 제도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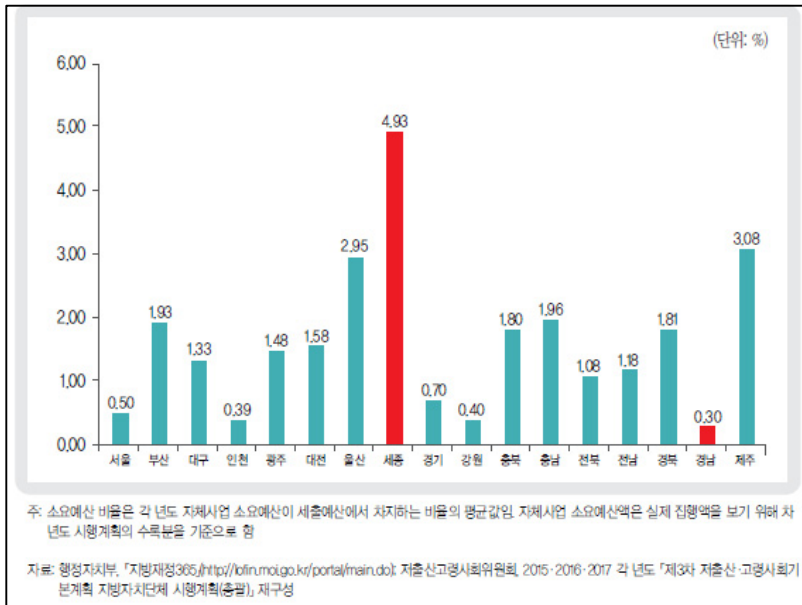
[그림 3-1]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방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을 ‘출생과 양육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출생으로 인한 높은 기회비용(주거, 교육, 장시간 근로,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이 출산을 덜 선택하게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위 그림에 제시된 정책방향의 변화가 나타내듯이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은 ‘아이를 낳는 문제’에서 ‘삶의 질 향상의 문제’로 크게 전환되었으며,
- 특히, 20~40대라는 특정 세대의 삶의 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저출생이란 현상 뒤에 있는 ‘세대 간 삶의 질 간극(gap)의 문제’를 공론화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음
- 또한, “여성의 행복”을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점은 이번 추진 정책 내용이 획기적 사업을 담고 있지 않

더라도, 앞으로 (지방)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이 ‘세대 갈등과 성평등’이란 키워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의 흐름

-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은 다양하며, 최근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2016년 기준, 1.821명)임
- 박선권(2017b)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예산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비교했는데, 2014~2016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 예산 비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아래 그림은 박선권(2017b)이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을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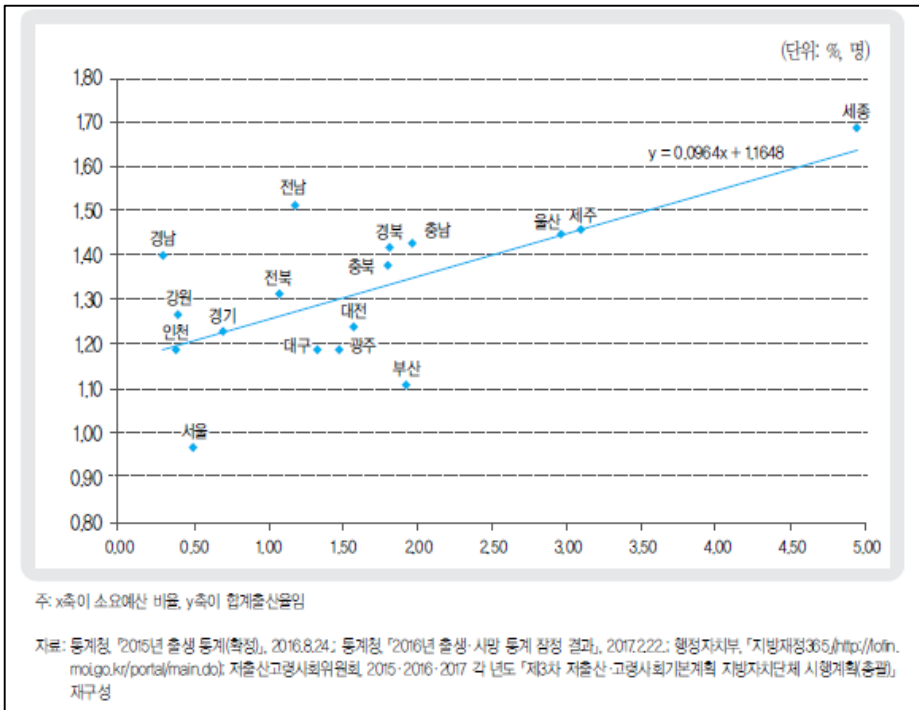


자료 : 박선권(2017b),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예산 비율(2014~2016년 평균)

-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최근 저출산 대응 자체 사업 예산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예산 비율이 낮은 경남의 약 16배에 이릅니다
- 자체 저출산 대응 사업 소요예산 비율이 상위에 속하는 지자체는 세종(4.93%), 제주(3.08%), 울산(2.95%) 등인데, 이 지자체의 최근 합계출산율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있음
- 박선권(2017b)은 2014~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r^2=0.6637$)가 있음을 다음 [그림 3-3]과 같이 밝힘

5) $r = X$ 와 Y 가 함께 변하는 정도 / X 와 Y 가 각각 변하는 정도



자료 : 박선권(2017b),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그림 3-3]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2014~2016년 평균)

- 대전시의 경우, 소요된 예산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기준선 아래 위치), 전남이나 경남은 소요된 예산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눈에 띄게 높다고 할 수 있음
- 투입된 예산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평가는 대전시가 앞으로 대전시만의 독특한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이 지자체별로 최근 수행한 인구정책 관련 연구들⁶⁾을 다음의 [표 3-1]로 정리할 수 있음

6) 김상일·변미리·민보경·성수연(2016), 서울시 인구변화와 정책의제, 서울연구원.

- 인구의 정의(definition)를 주민등록상 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양식과 활동에 근거한 ‘생활인구’ 혹은 ‘주간활동인구’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와,
- 인구정책의 대상을 ‘대도시권’으로 확장하고, 실질적 도시 운영 체계는 기능집약형인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제안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함
-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부서 간 협업과 통합관리의 형태로 추진하는 ‘인구정책관’을 제안한 전북연구원의 연구도 시사하는 바 큼

서옥순·김난주·장정재(2014), 부산시 일자리와 인구 간의 관계분석 및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김세나(2014), 대구시 인구문제 진단과 정책과제, 대구경북연구원.

정현욱·권창기·황진호·이주영·김승길·김재익(2015), 울산광역시 도시성장의 방향과 전략-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울산발전연구원.

김도균·박충훈·김수정·유보배(2017),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경기연구원.

황규선(2011), 강원도 인구이동 실태 및 특성 분석, 강원발전연구원.

최용환(2017), 지역소멸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과제, 충북연구원.

김동영·조경욱·이중섭·황영모·송용호·김윤주(2016),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 전략, 전북연구원.

조상필(2016),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방안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방향과 제언

구분	문제점 및 기존 정책의 한계	정책 방향	제언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이 저출산-고령화, 특히 출산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음 · 예산 부족 · 시장,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재원, 체계 부족 ·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의 원인이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 인식 · 삶의 질 제고로 정책 방향 전환 · 출산-양육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시간적 빈곤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 설정 · '서울 인구' 정의를 대도시권으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인구구조 유도: 전체인구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기 보다는 연령대별 균형인구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가동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시급 · '서울시민'의 개념을 행정구역상 서울시의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주간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 국가의제와 서울시 의제를 구분하여 책임영역 구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이등, 광역화 관련 의제에 집중 · 종합대책이 아닌 이슈중심전략: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전략적 아젠다 발굴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주변도시로의 지역 인구 유출 현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 ·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인구유입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 생활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업의 고용확대 정책 적극적 추진: 중소 중견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확대 정책 적극적 추진 · 부산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과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보육지원 사업들의 예산비중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인구유출 최소화 · 출산율 제고 ·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인구유출 최소화: 지역대학, 초중등교육 강화로 교육경쟁력 강화 · 우수일자리 확대: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고용안정성 증진 ·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 문화 확산: "미혼남녀 결혼만남" 공공서비스 제공 ·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활성화: 광역전철망,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 구도심 활성화, 고령친화도시 조성, 외국인 유입 확대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사회적 증대방안은 도시공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울산시의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공간정책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대외적으로 울산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권을 대상으로 한 도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변화의 주요지표를 이용해 도시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이 중 인구유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방향 및 성장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육성방향 및 정책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 핵심과제 분야별 제시 · 산업구조 개편 · 인재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 교통체계구축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체계 부재 · 특정 영역과 정책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정책 간 불균형 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모든 정책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낮은 사업을 저출산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있음 ·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체계를 따르면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장려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청년투자과 성평등 패러다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이행의 복합성을 고려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청년투자는 출산시점에 근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대책보다는 장기적 불평등

구분	문제점 및 기존 정책의 한계	정책 방향	제언
		의 특성 반영, 중앙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자체 사업 발굴 필요	을 줄여가는 사회적 계획에 기초해야 함. ※ 정책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영역별로 구체적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목표도달 수지도 명확히 제시
강원		인구유입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대책 제시	· 일자리·경제 여건과 교육·생활환경 여건 등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지원 필요 · 젊은 연령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환경과 일자리 대책 마련 · 유입세가 증가하고 있는 장·노년층과 관련하여 구매력을 갖춘 연령층을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군별로 차별화된 대책 필요 · 지역의 부동산과 주택가격의 안정적 유지
충북		·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지역적 특성을 살린 행정체제 개편 · 공공시설의 집중화, 다기능화와 함께 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공공시설을 상호 분담하고 공동 이용하는 노력 필요 · 콤팩트도시(압축도시) 조성 · 목표인구 추정을 위해 사회적 유입률에 대한 도차원의 명확한 산정근거와 적정성 평가 필요
전북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에 머물러 있었음	· 지역활성화의 최소단위로써 지역공동체 유지 · 미래인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 생산 및 소비활력 주체인 근로인구확보, 생산가능 인구 유지관리 · 중핵도시육성을 위한 인구불균형관리 설정(이를 통한 목표인구 설정)	· 인구정책관 신설을 통해 인구관련업무를 통합적이고 전부처 관할 방식으로 전환 · 전북 인구센서스 통합관리와 인구영향평가를 통한 인구종합계획수립 · 권역별 중핵도시 육성, 면단위 생활경제권 구축, 청년창업특구 조성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에 대한 적극적 정책전환을 목표로 다문화친화도시 추진 · 분야별 정책은 저출산, 청년, 농촌을 구분하여 제시
전남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인구 및 산업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확대·공급하는 목적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해 옴.	· 기능집약형 도시정책인 압축도시 지향 · 목표인구 추정의 정합성 계고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체 검토 필요 · 도시의 과잉 개발 방지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 압축도시 조성 실현을 위한 원칙, 전략, 실천과제 점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시범 주거단지 조성 후 주거유도구역에서 어느 정도 거주자가 유도되는지 확인·분석하는 작업 수행 · 압축도시 조성의 사례 대상지를 우선으로 거점지구별 생활권 계획 수립 · 현실적 목표인구 추정을 위한 사회적 유입률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 상주인구 추정 시 도시계획상입기확단에서 적정성 평가 · 압축도시 실현을 위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수정

2. 대전시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

1) 인구정책 조례

- 349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출산”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⁷⁾
- 349개의 지방자치단체 출산 관련 조례들은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한 장려금 지급과 임신 시기 필요한 지원 서비스, 양육비(돌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구”란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30곳이며, “저출산”을 조례명에 사용한 경우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비교적 최근 3~4년 이내 제정된 경우가 많음
- “인구”와 “저출산”을 구체적으로 조례명과 내용에 명시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와 같음

[표 3-2] 전국 인구관련 조례 현황

구분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광역(11)	1	2	1	1	1			1	1		1	1	1
기초(97)	14	10	7	11	9	16	11	12	1	1	3	1	1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 인구관련 조례는 ‘인구’와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례를 의미함

- 대전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구는 다음 [표 3-3]와 같이 출산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부작용-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사업과 필요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7) 2018년 7월 17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표 3-3] 대전시 출산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1.12.30.)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2012.6.15.)
구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2010.5.11.)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2015.6.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6.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17.2.1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의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금”과 셋째 자녀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관련 조례 중 인구정책의 추진과 여러 다른 정책 영역과의 관계 및 조정 등을 다루는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내용이 명시된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4]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이 명시된 조례

구분	조례
광역 (6)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2017.11.3.)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4.1.10.)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2017.6.13.)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17.4.1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2015.11.4.)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2017.4.17.)
기초 (3)	강원도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2018.2.23.)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2018.2.9.)
	전라북도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2017.11.6.)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내용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인구정책”을 제목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전시 서구와의 비교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음

[표 3-5] 인구정책 기본조례 내용 비교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일	2017.11.3.	2018.2.9.
목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
정의 (개념의 정의)	인구정책을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	인구정책을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 ·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 · 인구교육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 ·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종합·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 수립 · 정책의 비전과 전략 ·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발굴 ·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회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인구교육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이사항	인구교육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인구영향평가 실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강원도 조례는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인구정책” 외에도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을 각각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것”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로 정의하고 있음
- 강원도와 대전시 서구의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인구정책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 인구교육과 인식개선 사업, 기본(종합)계획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대전 서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조례에 담았는데, 인구영향평가는 지자체 모든 사업 시행 초기단계부터 인구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가 사용해 온 ‘인구영향평가’ 개념은 “대규모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과도한 인구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것⁸⁾”으로, 개발에 의한 인구집중현상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역사회 내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음

2)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사업과 예산

- 대전광역시의 인구정책 사업은 정책기획관실, 노인보육과와 보건정책과 등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명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표 3-6]로 정리할 수 있음
-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공공요금 할인과 감면 혜택 사업과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 중인 둘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과 양육 및 보육지원금 등의 사업이 있음

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용어사전」 참조

- 정책기획관실 인구정책담당이 추진하는 사업은 ‘인구정책기획’사업으로 ‘인구정책시책 운영’과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음
- 인구정책시책 운영은 인구정책 홍보과 교육을, 네트워크 사업은 민간경 사업보조의 형태로 지역 내 전문가와 관련 단체와 함께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3-6] 대전시 출산 지원정책

세부사업	내용	예산 (단위: 천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모에게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1회 지급	2,050,000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세대 중 셋째 자녀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60만원/매월 5만원씩 12개월(생후24개월이내) 지급	375,000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출생 후부터 취학 전) 부모차액보육료를 지원(월 38,000원~54,000원)	255,0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대상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234,000
인구정책 시책 운영	저출산고령사회계획 책자 제작, 인구정책 홍보물, 인구정책 홍보, 인구교육 강사수당 등	46,650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지역 경제·종교·언론·시민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	34,032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18년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1대)	비예산, 사후 감면, 혜택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 자녀 이상 가구 월 전기요금 30% 할인(최대 16,000원 한도 내)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전용면적 85㎡ 이하)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대전광역시 거주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전 도시철도요금 면제(카드발급자 본인),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학원, 서비스업종, 유아용품 등 1,500 협력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자료 : 2018년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서, 「2017년 대전시 출산·양육·보육 지원 안내」 참고

3)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

-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 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례가 출산을 장려(축하)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조례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출산 축하금 지원과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최근 인구정책연구들이 제안하듯이 출산 자체에만 초점을 둔 정책은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대전시가 투자 대비 인구정책효과가 좋지 않다는 박선권(2017b)의 평가를 염두에 둔다면, 정책 대상 및 추진 전략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산, 보건, 보육만을 인구정책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여러 연구들의 주장에 근거해,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계속 이 도시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비교적 최근 제정된 인구정책 관련한 조례들이 단순한 출산 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지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구교육이나 인구영향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거나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인구교육사업의 경우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 2 (인구교육)이 신설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여, 인구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구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인구교육 전문강사가 양성되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하고 있음⁹⁾
-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포털이 제공하는 인구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일방적인 정책 홍보는 지양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를 심각한 사회 문

9) 보건복지부 인구교육포털(<https://pep.mohw.go.kr/index.php>) 참조

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 가족친화적 가치관의 확산과 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견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구교육이 결혼과 출산 관련한 편견 및 고정관념(생명 경시, 다양한 형태의 가정 배제, 성불평등 등)을 약화시키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인구교육이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또는 ‘인권교육’과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함

- 최근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정책이 출산과 보육 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다른 정책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근거해 주목 받고 있음
- 그러나 대전시 서구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계획을 밝힌 인구영향평가 추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가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실행계획에 있으며(이병호 외, 2018), 지역계획사업과 통합재정사업을 대상으로는 인구 대응효과를 평가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음
- 대전시도 인구정책의 효과와 환류 정도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다른 영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가지는 인구변화 영향력을 측정하고 예측한다는 면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대전지역 청년인구 현황과 특성

1. 대전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
2. 대전지역 청년인구 이동 특성

4장

4장 대전지역 청년인구 현황과 특성

1. 대전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

1) 총인구와 성별 인구구조

- 2017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대전시 총인구는 150만2천227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음
- 아래 [표 4-1]는 최근 5년간 대전시와 5개 기초자치구 총인구의 변화를 나타냄

[표 4-1] 대전시 총인구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전광역시	1,532,811	1,531,809	1,518,775	1,514,370	1,502,227
동구	250,653	245,493	239,579	234,959	230,516
중구	264,913	261,165	256,186	252,490	248,933
서구	498,917	496,132	490,859	491,011	487,448
유성구	313,968	327,461	335,312	343,222	348,428
대덕구	204,360	201,558	196,839	192,688	186,90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3년에 비해 동구와 중구는 약 2만여 명이 줄었으며, 대덕구는 1만 5천여 명, 서구는 1만여 명이 줄었음
- 5개 기초자치구 중 유일하게 유성구는 인구가 3만여 명 넘게 증가함
- 2013년 대비 성별에 따른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 감소 비율은 유사하나, 2013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여성인구가 다소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음([표 4-2]참조)

[표 4-2] 대전시 성별 인구의 변화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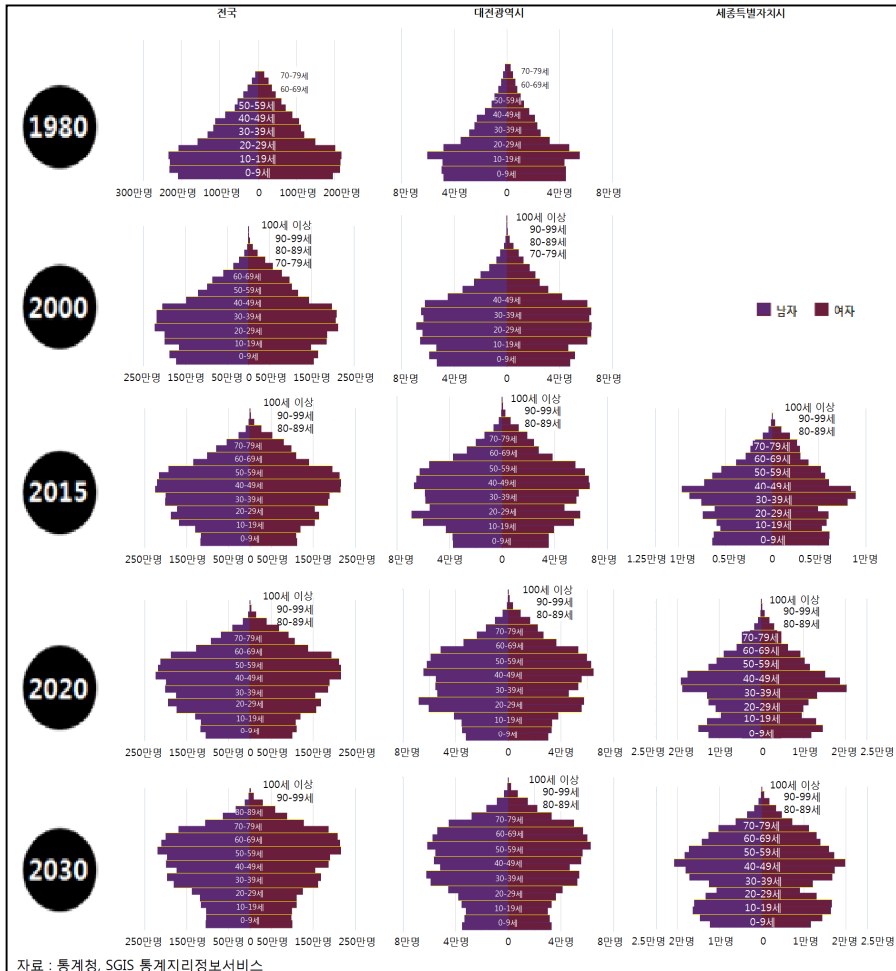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인구	1,532,811	1,531,809	1,518,775	1,514,370	1,502,227
남	767,309	766,497	759,778	757,289	750,969
여	765,502	765,312	758,997	757,081	751,25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7년 12월 기준, 특·광역시 성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고, 인천과 울산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게 나타남

2) 연령별 인구구조

- 2030년까지의 인구구조(인구피라미드)를 연령과 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1]과 같음
- 전국 연령과 성별 인구구조와 대전시를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대전시 20대 인구는 전국과 달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20대 인구 분포 때문에 (전국 평균과 달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 (41~60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2020년 인구추계에서도 대전의 20대 인구 분포가 가지는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20대 (후반) 인구가 다른 연령대 인구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에 10대 미만 인구가, 전국 및 대전시와 다르게, 타 연령대 대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030년에는 40대와 10대가 세종시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음
- 통계청은 2030년 인구추계 모형에서 대전의 30대(2020년에는 20대)가 연령대 대비 인구구조 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그림 4-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인구구조의 변화(1980년-2030년)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10세 단위) 연령대별 인구통계¹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와 같음

10)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는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것으로 실제 연령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4-3] 대전시 연령별 인구의 변화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0-9세	151,389	148,662	145,049	142,076	135,218
10-19세	204,521	196,196	184,964	175,916	168,005
20-29세	208,751	210,031	210,749	212,796	213,973
30-39세	245,953	237,696	228,720	222,879	215,284
40-49세	271,990	271,600	267,008	264,265	258,705
50-59세	232,754	237,648	238,664	239,111	239,297
60-69세	116,550	124,378	134,281	143,650	152,044
70-79세	72,656	74,926	76,136	77,775	81,244
80-89세	24,554	26,713	29,005	31,484	33,602
90-99세	3,458	3,699	3,918	4,110	4,541
100세 이상	235	260	281	308	31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30대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
- 특히, 2014년과 2015년 사이 30대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큼
- 반면, 20대 인구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6대 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부산과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시 20대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대구와 인천광역시 20대 인구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4-4] 참조)

[표 4-4] 6대 광역시 20대 인구 현황(2013~2017)

(단위 : 명)

광역시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산	458,642	456,897	456,514	455,199	451,791
대구	322,547	323,936	326,755	329,927	332,212
인천	393,569	398,391	402,113	406,622	409,811
광주	196,390	197,540	198,686	201,402	203,610
대전	208,751	210,031	210,749	212,796	213,973
울산	153,164	156,137	158,615	158,704	156,966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대전시 20대 인구의 증가추세는 50~60대 인구의 증가추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임
- 10대 이하와 40대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20대와 50대 인구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부모(베이비부머)와 자녀세대 인구의 동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3) 20~30대 인구의 지리적 분포

- 20대 인구의 대전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별 분포를 살펴보고 지역 내 청년인구 분포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 있음([표 4-5] 참조)
- 2017년 12월말 기준, 대전시 총인구 중 20대 인구는 전체의 14.24%이며 30대 인구는 14.33%임

[표 4-5] 대전시 자치구별 20대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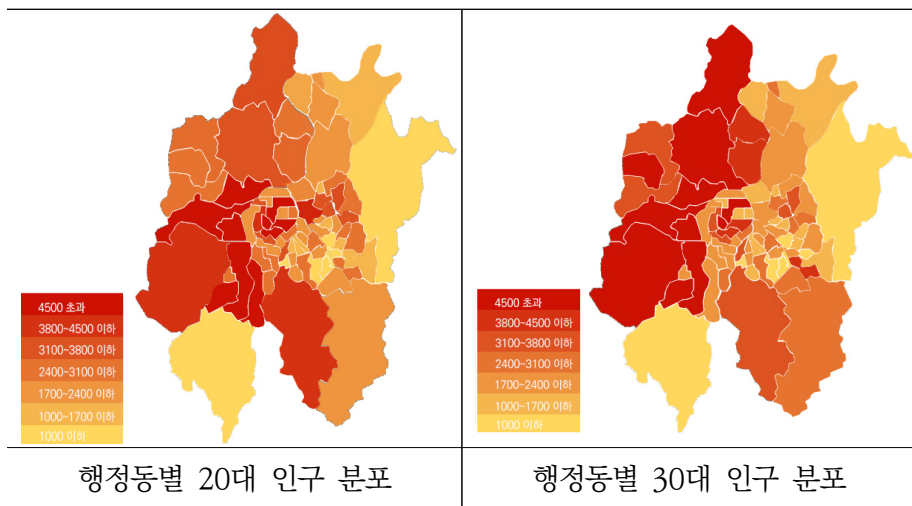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총 인구	20대 인구	비율	30대 인구	비율
대전광역시	1,502,227	213,973	14.24%	215,284	14.33%
동구	230,516	30,724	13.33%	30,258	13.13%
중구	248,933	32,331	12.99%	31,806	12.78%
서구	487,448	73,987	15.18%	70,956	14.56%
유성구	348,428	50,527	14.50%	58,847	16.89%
대덕구	186,902	26,404	14.13%	23,417	12.53%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 기초자치구별 총인구 대비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15.18%)이며,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성구(16.89%)임
- 대덕구의 경우 20대 비율이 14.13%로 동구나 중구에 비해 높지만, 30대 인구 비율은 12.53%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음
- 대덕구에는 한남대학교와 공단이 위치해 있어 전체 인구 대비 20대 인구 비율이 대전시 평균과 비슷하나, 30대 인구 비율은 대전시 평균에 비해 2%가까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대덕구 청년인구의 불균형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와 직장 때문에 머무르던 대덕구를 30대에 이르러 혼인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떠나는 패턴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함
- 20~30대 청년인구의 비율이 모두 저조한 곳은 중구인데, 중구에 위치한 대학이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뿐이라는 점은 대학을 중심으로 주거를 결정하는 20대 삶의 양식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함
- 중구 대흥동 일대가 특색 있는 원도심 거리와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있어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인구 현황을 파악하는 현 인구정책연구의 한계 상 중구의 청년인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을 수 밖에 없음

- 평균연령¹¹⁾도 청년인구 비율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낮은 평균연령을 보인 유성구(평균 36.9세)와 가장 높은 평균연령을 보인 중구(평균 42.7세) 간 차이가 두드러짐
- 2017년 기준, 행정동별 20대와 30대 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2]와 같음
- 색깔이 진할수록 청년인구 수가 높은 것이며, 20대는 서구와 유성구 도심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30대는 유성구 전반에 걸쳐, 그리고 서구 신항주거단지인 가수원동과 관저2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단위: 명)

[그림 4-2] 대전시 행정동별 청년인구 분포도

11) 대전시 및 기초자치구 평균연령

(단위: 세)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
전체	42.6	41.3	42.7	39.2	36.9
남자	41.4	40.2	41.5	38.3	36
여자	43.9	42.5	43.8	40.2	37.8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7년 12월 기준)

- 2017년 기준 대전시 행정동 중 2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유성구 온천2동으로 8,12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행정동은 온천1동 7,125명임
- 20대가 5,000명 이상 살고 있는 행정동은 유성구 원신흥동(5,769명), 서구 둔산2동(5,650명), 관저2동(5,599명), 갈마2동(5,471명)으로 나타남
- 동구에선 용전동(3,652명)이, 대덕구에선 송촌동(4,321명)이 20대 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남

[표 4-6] 대전시 20대 행정동별 현황

(단위 : 명)

	2017					
	전체		남자		여자	
	총인구	20-29세	총인구	20-29세	총인구	20-29세
대전광역시	1,502,227	213,973	750,969	113,198	751,258	100,775
동구	230,516	30,724	116,523	16,536	113,993	14,188
중앙동	5,809	479	3,258	266	2,551	213
효동	28,052	2,849	13,781	1,485	14,271	1,364
신인동	12,643	1,453	6,306	762	6,337	691
판암1동	9,667	1,114	4,727	601	4,940	513
판암2동	9,804	1,131	4,786	622	5,018	509
용운동	17,899	2,840	9,073	1,528	8,826	1,312
대동	12,718	1,616	6,323	846	6,395	770
자양동	11,079	2,629	5,816	1,488	5,263	1,141
가양1동	14,843	2,017	7,714	1,137	7,129	880
가양2동	20,722	3,237	10,332	1,726	10,390	1,511
용진동	20,868	3,652	10,712	1,910	10,156	1,742
성남동	13,332	1,588	6,672	844	6,660	744
홍도동	12,018	1,917	6,152	1,047	5,866	870
삼성동	15,990	1,773	8,237	1,000	7,753	773
대청동	2,748	240	1,433	132	1,315	108
산내동	22,324	2,189	11,201	1,142	11,123	1,047
중구	248,933	32,331	123,492	16,997	125,441	15,334
은행선화동	17,949	2,979	9,256	1,464	8,693	1,515
목동	15,650	1,631	7,559	855	8,091	776
중촌동	14,574	1,920	7,045	1,024	7,529	896
대흥동	14,106	2,090	6,986	1,027	7,120	1,063
문창동	4,961	523	2,580	290	2,381	233
석교동	16,897	2,093	8,619	1,176	8,278	917
대사동	5,775	844	2,874	415	2,901	429
부사동	7,361	930	3,703	487	3,658	443
용두동	10,210	1,608	4,969	793	5,241	815
오류동	9,954	1,404	4,713	707	5,241	697
태평1동	14,596	1,602	7,175	825	7,421	777
태평2동	28,147	3,258	13,636	1,715	14,511	1,543
유천1동	6,923	896	3,636	509	3,287	387
유천2동	14,520	1,907	7,196	997	7,324	910
문화1동	24,176	2,966	11,767	1,501	12,409	1,465
문화2동	13,976	1,840	6,844	1,028	7,132	812
산성동	29,158	3,840	14,934	2,184	14,224	1,656
서구	487,448	73,987	240,298	38,058	247,150	35,929
복수동	21,173	2,547	10,425	1,295	10,748	1,252
도마1동	16,952	2,663	8,666	1,472	8,286	1,191
도마2동	19,839	2,940	10,057	1,652	9,782	1,288
정립동	17,820	2,512	8,755	1,363	9,065	1,149
변동	17,229	2,308	8,801	1,260	8,428	1,048
용문동	15,306	2,827	7,390	1,322	7,916	1,505

	2017					
	전체		남자		여자	
	총인구	20-29세	총인구	20-29세	총인구	20-29세
탄방동	27,004	4,968	13,087	2,422	13,917	2,546
괴정동	20,215	4,085	9,856	1,936	10,359	2,149
가장동	13,112	1,715	6,452	886	6,660	829
내동	25,210	3,301	12,218	1,772	12,992	1,529
갈마1동	22,153	4,204	11,211	2,182	10,942	2,022
갈마2동	25,953	5,471	12,741	2,689	13,212	2,782
월평1동	11,188	2,367	5,888	1,262	5,300	1,105
월평2동	16,351	2,377	7,793	1,263	8,558	1,114
월평3동	23,381	3,384	11,599	1,867	11,782	1,517
가수원동	40,646	4,974	19,987	2,571	20,659	2,403
관저1동	16,213	2,855	7,798	1,334	8,415	1,521
관저2동	43,027	5,599	20,989	2,746	22,038	2,853
기성동	4,034	348	2,088	202	1,946	146
둔산1동	17,345	1,843	8,553	976	8,792	867
둔산2동	38,319	5,650	18,673	2,828	19,646	2,822
만년동	13,864	2,252	6,985	1,208	6,879	1,044
둔산3동	21,114	2,797	10,286	1,550	10,828	1,247
유성구	348,428	50,527	175,744	27,127	172,684	23,400
진잠동	34,595	4,404	17,502	2,415	17,093	1,989
온천1동	31,523	7,125	16,322	3,687	15,201	3,438
온천2동	40,818	8,129	21,143	4,767	19,675	3,362
노은1동	22,884	2,878	11,324	1,463	11,560	1,415
노은2동	25,730	3,161	12,706	1,629	13,024	1,532
노은3동	36,187	3,883	17,805	1,994	18,382	1,889
신성동	24,677	3,574	12,919	2,012	11,758	1,562
진민동	27,280	4,177	13,872	2,257	13,408	1,920
구즉동	29,017	4,057	14,807	2,227	14,210	1,830
관평동	29,130	3,370	14,850	1,777	14,280	1,593
원신흥동	46,587	5,769	22,494	2,899	24,093	2,870
대덕구	186,902	26,404	94,912	14,480	91,990	11,924
오정동	16,097	2,545	8,448	1,389	7,649	1,156
대화동	8,178	965	4,342	551	3,836	414
회덕동	15,637	1,954	7,906	1,057	7,731	897
비래동	18,018	2,590	9,032	1,403	8,986	1,187
송촌동	30,174	4,321	14,894	2,272	15,280	2,049
중리동	21,568	3,298	11,205	1,887	10,363	1,411
신탄진동	12,086	1,664	6,228	933	5,858	731
석봉동	13,865	1,749	7,069	957	6,796	792
덕암동	15,281	2,186	7,993	1,209	7,288	977
목상동	7,211	1,117	3,885	627	3,326	490
법1동	10,665	1,419	5,051	786	5,614	633
법2동	18,122	2,596	8,859	1,409	9,263	1,187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20대는 만 20세-만 29세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7월 12월 말 기준)

- 2017년 기준 대전시 행정동 중 3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유성구 원신흥동으로 9,00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행정동은 서구 가수원동 7,525명임
- 30대가 5,000명 이상 살고 있는 행정동은 유성구 노은3동(6,941명), 온천2동(6,878명), 온천1동(5,907명), 서구 둔산2동(5,538명)임
- 동구에선 효동(4,259명)이 30대 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남

[표 4-7] 대전시 30대 행정동별 현황

(단위 : 명)

	2017					
	전체		남자		여자	
	총인구	30-39세	총인구	30-39세	총인구	30-39세
대전광역시	1,502,227	215,284	750,969	109,794	751,258	105,490
동구	230,516	30,258	116,523	15,939	113,993	14,319
중앙동	5,809	530	3,258	332	2,551	198
효동	28,052	4,259	13,781	2,030	14,271	2,229
신인동	12,643	1,816	6,306	942	6,337	874
판암1동	9,667	1,132	4,727	579	4,940	553
판암2동	9,804	953	4,786	553	5,018	400
용운동	17,899	2,153	9,073	1,151	8,826	1,002
대동	12,718	1,635	6,323	850	6,395	785
자양동	11,079	1,251	5,816	728	5,263	523
가양1동	14,843	1,857	7,714	991	7,129	866
가양2동	20,722	2,565	10,332	1,352	10,390	1,213
용전동	20,868	3,329	10,712	1,874	10,156	1,455
성남동	13,332	1,944	6,672	1,012	6,660	932
홍도동	12,018	1,648	6,152	892	5,866	756
삼성동	15,990	1,882	8,237	995	7,753	887
대청동	2,748	218	1,433	133	1,315	85
산내동	22,324	3,086	11,201	1,525	11,123	1,561
중구	248,933	31,806	123,492	16,102	125,441	15,704
은행선화동	17,949	2,920	9,256	1,588	8,693	1,332
목동	15,650	2,006	7,559	875	8,091	1,131
중촌동	14,574	1,829	7,045	906	7,529	923
대흥동	14,106	2,265	6,986	1,119	7,120	1,146
문창동	4,961	522	2,580	309	2,381	213
석교동	16,897	1,949	8,619	1,117	8,278	832
대사동	5,775	705	2,874	388	2,901	317
부사동	7,361	819	3,703	463	3,658	356
용두동	10,210	1,377	4,969	701	5,241	676
오류동	9,954	1,260	4,713	593	5,241	667
태평1동	14,596	2,065	7,175	983	7,421	1,082
태평2동	28,147	3,257	13,636	1,523	14,511	1,734
유천1동	6,923	988	3,636	519	3,287	469
유천2동	14,520	1,813	7,196	942	7,324	871
문화1동	24,176	3,044	11,767	1,420	12,409	1,624
문화2동	13,976	1,601	6,844	858	7,132	743
산성동	29,158	3,386	14,934	1,798	14,224	1,588
서구	487,448	70,956	240,298	35,584	247,150	35,372
복수동	21,173	2,732	10,425	1,284	10,748	1,448
도마1동	16,952	1,905	8,666	1,075	8,286	830
도마2동	19,839	2,318	10,057	1,253	9,782	1,065
정립동	17,820	2,122	8,755	1,061	9,065	1,061
변동	17,229	2,367	8,801	1,312	8,428	1,055
용문동	15,306	2,798	7,390	1,475	7,916	1,323

	2017					
	전체		남자		여자	
	총인구	30-39세	총인구	30-39세	총인구	30-39세
탄방동	27,004	4,489	13,087	2,168	13,917	2,321
괴정동	20,215	3,935	9,856	2,046	10,359	1,889
가장동	13,112	1,916	6,452	980	6,660	936
내동	25,210	3,380	12,218	1,643	12,992	1,737
갈마1동	22,153	3,526	11,211	1,914	10,942	1,612
갈마2동	25,953	4,540	12,741	2,381	13,212	2,159
월평1동	11,188	1,829	5,888	1,046	5,300	783
월평2동	16,351	1,801	7,793	913	8,558	888
월평3동	23,381	2,973	11,599	1,427	11,782	1,546
가수원동	40,646	7,525	19,987	3,549	20,659	3,976
관저1동	16,213	2,202	7,798	1,060	8,415	1,142
관저2동	43,027	7,171	20,989	3,531	22,038	3,640
기성동	4,034	334	2,088	209	1,946	125
둔산1동	17,345	1,480	8,553	621	8,792	859
둔산2동	38,319	5,538	18,673	2,590	19,646	2,948
만년동	13,864	2,140	6,985	1,110	6,879	1,030
둔산3동	21,114	1,935	10,286	936	10,828	999
유성구	348,428	58,847	175,744	29,866	172,684	28,981
진잠동	34,595	4,812	17,502	2,440	17,093	2,372
온천1동	31,523	5,907	16,322	3,404	15,201	2,503
온천2동	40,818	6,878	21,143	3,628	19,675	3,250
노은1동	22,884	3,639	11,324	1,722	11,560	1,917
노은2동	25,730	3,751	12,706	1,793	13,024	1,958
노은3동	36,187	6,941	17,805	3,318	18,382	3,623
신성동	24,677	4,694	12,919	2,559	11,758	2,135
전민동	27,280	4,180	13,872	2,157	13,408	2,023
구즉동	29,017	4,816	14,807	2,518	14,210	2,298
관평동	29,130	4,222	14,850	2,068	14,280	2,154
원신흥동	46,587	9,007	22,494	4,259	24,093	4,748
대덕구	186,902	23,417	94,912	12,303	91,990	11,114
오정동	16,097	1,895	8,448	1,032	7,649	863
대화동	8,178	1,072	4,342	572	3,836	500
회덕동	15,637	1,835	7,906	981	7,731	854
비래동	18,018	2,151	9,032	1,108	8,986	1,043
송촌동	30,174	3,415	14,894	1,624	15,280	1,791
중리동	21,568	2,815	11,205	1,539	10,363	1,276
신탄진동	12,086	1,423	6,228	791	5,858	632
석봉동	13,865	2,491	7,069	1,284	6,796	1,207
덕암동	15,281	2,016	7,993	1,078	7,288	938
목상동	7,211	1,251	3,885	730	3,326	521
벌1동	10,665	1,113	5,051	578	5,614	535
벌2동	18,122	1,940	8,859	986	9,263	954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7월 12월 말 기준)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30대는 만 30세-만 39세를 의미함.

2. 대전지역 청년인구 이동 특성

- 인구구조와 그 변화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임
- 통계청이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것”과 같이 연구자들은 인구이동을 “지역 사이의 움직임(권태환·김두섭, 2002)”으로 보고 있음
-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동 기간을 정의하고 이동 공간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2013~2017년)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이동공간은 광역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로 정함
- 대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전출(out migration), 그 반대의 경우는 전입(in migration)이라 지칭하며, 순이동(net migration)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차감한 인구를 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대전지역에서 이동에 의한 인구의 성장 혹은 감소를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함
-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최석현 외, 2016)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 20,30대 청년인구의 이동의 총량을 살펴보고 청년인구 이동의 사유(전출입 사유)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 대전지역 인구증감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 20대 인구의 이동 특성

- 최근 5년간 대전시 20대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출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임(표 4-8)참조)

[표 4-8] 최근 5년간 대전시 20대 인구 이동

(단위 : 명)

구분	전입	전출	시도 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순 이동
				전입	전출	
2013	45,976	46,575	25,107	20,869	21,468	-599
2014	47,769	49,437	26,065	21,704	23,372	-1,668
2015	47,619	50,087	24,696	22,923	25,391	-2,468
2016	49,838	50,788	25,694	24,144	25,094	-950
2017	50,000	51,684	25,500	24,500	26,184	-1,684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20대는 만 20세-만 29세를 의미함.

- 전입보다 전출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이며, 2016년에 전출입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다시 2017년에는 증가함
- 최근 5년간 대전시 20대 인구의 성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을 제외하고 여성의 전출 규모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해는 2015년임

[표 4-9] 최근 5년간 대전시 20대 성별 인구 이동

	남성			여성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23,013	23,335	-322	22,963	23,240	-277
2014	24,280	25,027	-747	23,489	24,410	-921
2015	24,529	25,494	-965	23,090	24,593	-1,503
2016	25,703	26,155	-452	24,135	24,633	-498
2017	25,736	26,510	-774	24,264	25,174	-910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20대는 만 20세-만 29세를 의미함.

- 대전지역 20대 인구가 최근 5년 간 어느 지역으로 전출했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4-10]과 같음

[표 4-10] 대전시 20대의 타시도 전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종	846	1,970	3,274	2,720	3,634
서울	5,557	5,801	5,609	6,164	6,225
부산	460	525	594	474	495
대구	364	418	406	447	435
인천	757	749	788	791	896
광주	270	241	316	299	292
울산	236	274	240	197	222
경기	3,883	3,912	4,164	4,262	4,396
강원	591	570	670	604	619
충북	1,886	2,110	2,133	2,098	2,161
충남	3,918	3,944	4,183	4,191	3,913
전북	777	891	956	853	984
전남	422	413	391	459	407
경북	763	780	838	788	787
경남	616	641	646	560	540
제주	122	133	183	187	178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20대는 만 20세-만 29세를 의미함.

- 전출입 간 차이가 가장 큰 2015년에 대전시 20대는 서울(5,609명)로 가장 많이 이주했으며, 충남(4,183명)과 경기도(4,164명)가 그 뒤를 이음
- 인근 지역인 충북, 경북, 전북으로의 전출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전출 규모를 보이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2015년에 전출 인구가 증가했으나 2013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세종시로의 전출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전출 인구가 크게 늘었고, 2017년에는 서울, 경기, 충남 다음으로 많은 전출 규모(3,634명)를 보이고 있음
- 출신지별 대전시로의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1]와 같음

[표 4-11] 지역별 20대의 대전시 전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종	440	546	765	910	1,209
서울	3,656	3,789	4,003	4,092	3,894
부산	608	578	650	686	681
대구	570	591	598	607	665
인천	679	716	757	756	798
광주	412	444	466	479	436
울산	216	234	283	320	306
경기	3,278	3,452	3,649	3,778	3,760
강원	603	623	737	749	745
충북	2,147	2,306	2,266	2,581	2,503
충남	4,403	4,471	4,534	4,636	4,805
전북	1,234	1,240	1,392	1,457	1,573
전남	536	608	600	726	702
경북	1,156	1,204	1,251	1,307	1,298
경남	812	785	825	901	921
제주	119	117	147	159	204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20대는 만 20세-만 29세를 의미함.

- 전반적으로 20대 전입 인구의 상당수는 충남,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충북과 전북, 경북으로부터의 전입인구도 주목할 만함
- 전출입 간 격차가 가장 적은 해는 2013년인데, 이 해에는 충남(4,403명)에서 가장 많이 전입했고, 서울(3,656명)과 경기(3,278명)가 그 뒤를 이음
- 충남으로부터 전입한 20대 인구는 꾸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충북으로부터의 전입은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북, 울산과 강원, 전남 등도 전입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북으로부터의 전입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로부터의 전입 역시 꾸준한 수준을 보임

- 공간범위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봤을 때, 2017년 기준 시내 이동이 가장 빈번한 곳은 온천2동과 온천1동이며,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대전과의 전출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표 4-12] 참조)

- 2015년과 2016년 기준 공간범위별 20대 인구이동 현황은 [부록]을 참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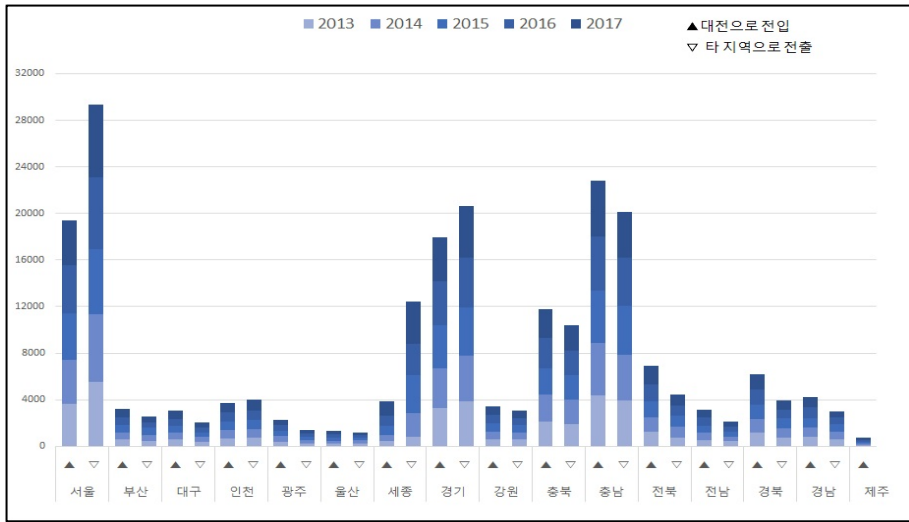
[표 4-12] 공간범위별 대전 2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7)

시내이동 (구간이동)	수도권 이동		충청권 이동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온천2동→온천2동 (702명)	경기 (4,255명)	서울 (6,665명)	세종(1,267명)		세종(3,968명)	
온천1동→온천1동 (593명)	서울 (4,151명)	경기 (4,755명)	충북	청주시 (1,211명)	충북	청주시 (1,225명)
갈마2동→갈마2동 (464명)	인천 (863명)	인천 (925명)		옥천군 (348명)		옥천군 (260명)
탄방동→탄방동 (460명)				영동군 (294명)		영동군 (180명)
전민동→전민동 (345명)				기타 (826명)		기타 (602명)
괴정동→괴정동 구즉동→구즉동 (302명)				천안시 (937명)		천안시 (1,019명)
관저2동→관저2동 (294명)			충남	논산시 (697명)	충남	공주시 (463명)
신성동→신성동 (292명)				공주시 (588명)		논산시 (438명)
원신흥동→원신흥동 (280명)				기타 (2,922명)		기타 (2,251명)
갈마1동→갈마1동 (279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7)

주 : 20대는 만 19세-2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 최근 5년 동안 대전으로 전출입한 20대 인구 현황을 누적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3]과 같음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단위: 명)

[그림 4-3] 대전 20대의 타시도 간 전출입 인구 현황(2013-2017)

- 누적 그래프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서울로의 전출 누적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입 인구 누적은 충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과 충북, 전북의 20대는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보다 더 많이 대전에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세종의 20대는 최근 5년 간 대전으로 들어온 20대 인구보다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음(특히 서울과 세종의 전출입 +/-는 경기보다 더 큼)
- 대전의 20대 인구는 서울, 경기, 충남, 충북지역과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으며, 세종시와의 이동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 경기지역 외에는 가까울수록 이동이 많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동인구가 적은 특성이 드러나는 점도 파악 가능함

2) 30대 인구의 이동 특성

- 최근 5년간 대전시 30대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출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임([표 4-13]참조)

[표 4-13] 최근 5년간 대전시 30대 인구 이동

구분	전입	전출	시도 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순 이동
				전입	전출	
2013	54,784	54,018	34,552	20,232	19,466	766
2014	56,045	57,970	36,479	19,566	21,491	-1,925
2015	49,690	54,450	31,226	18,464	23,224	-4,760
2016	48,891	50,765	30,893	17,998	19,872	-1,874
2017	46,046	49,404	28,580	17,466	20,824	-3,358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30대는 만 30세-만 39세를 의미함.

- 전입보다 전출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이며, 2016년에 전출입 간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다시 2017년에 증가한 패턴은 20대와 같으나, 이동의 규모가, 특히 2017년 전출 규모는 20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대전시 30대 인구의 성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여성의 전출 규모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해는 2015년으로 20대와 같음

[표 4-14] 최근 5년간 대전시 30대 성별 인구 이동

	남성			여성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29,131	28,744	387	25,653	25,274	379
2014	29,703	30,691	-988	26,342	27,279	-937
2015	26,723	28,900	-2,177	22,967	25,550	-2,583
2016	26,507	27,369	-862	22,384	23,396	-1,012
2017	25,038	26,619	-1,581	21,008	22,785	-1,777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30대는 만 30세-만 39세를 의미함.

- 대전지역 30대 인구가 최근 5년 간 어느 지역으로 진출했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4-15]와 같음

[표 4-15] 대전시 30대의 타시도 진출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종	872	3,658	6,237	4,161	5,479
서울	2,926	2,852	2,728	2,582	2,752
부산	529	568	457	415	411
대구	526	478	443	425	356
인천	657	669	601	555	523
광주	323	340	321	255	248
울산	218	234	256	156	129
경기	4,264	3,893	3,853	3,605	3,509
강원	766	632	586	558	606
충북	1,908	1,813	1,781	1,553	1,525
충남	3,826	3,538	3,290	3,149	3,040
전북	849	918	770	724	681
전남	414	400	446	365	350
경북	648	668	649	630	555
경남	579	663	587	548	500
제주	161	167	219	191	160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30대는 만 30세-만 39세를 의미함.

- 경기도로의 진출이 가장 규모가 크지만, 최근 5년간 그 수는 계속 줄고 있으며, 충남으로의 진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대전의 30대는 20대보다 서울로 진출하는 규모가 크지 않으며,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는 경기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세종시로의 진출은 매우 뚜렷하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2015년 6,23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세종시로 진출했고, 세종시는 30대 가장 많이 진출해 간 도시임
- 인근 지역인 충북과 전북, 경북으로의 진출은, 20대에 비하면, 30대의 주요 진출지는 아니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충북으로의 진출은 감소추세가 뚜렷함

○ 출신지별 대전시로의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6]와 같음

[표 4-16] 지역별 30대의 대전시 전입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종	537	632	867	1,135	1,483
서울	3,649	3,573	3,459	3,194	2,852
부산	560	570	549	551	543
대구	612	587	497	462	457
인천	644	682	669	609	559
광주	430	430	354	370	329
울산	181	212	185	207	213
경기	4,250	3,790	3,713	3,462	3,214
강원	832	795	740	682	727
충북	1,989	1,907	1,644	1,639	1,627
충남	3,581	3,559	3,174	3,001	2,877
전북	992	989	867	842	878
전남	426	391	373	355	346
경북	779	730	704	714	683
경남	670	606	557	649	559
제주	100	113	112	126	119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참고한 자료의 연령구분이 5세 단위로 되어 있어, 30대는 만 30세-만 39세를 의미함.

- 전반적으로 30대 전입 인구의 상당수는 충남,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충북과 전북, 경북으로부터의 전입인구도 주목할 만함
- 2013년에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았는데, 경기도로부터의 전입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충남으로부터의 전입은 꾸준히 줄고 있으며, 충북으로부터의 전입도 줄어드는 추세임
- 세종시로부터의 전입은 2013년 이후 계속 늘고 있어, 전출인구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계속 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공간범위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봤을 때, 2017년 기준 시내 이동이 가장 빈번한 곳은 온천2동과 온천1동이며,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대전과의 전출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표 4-17] 참조)
- 20대와 달리 30대 시내이동은 원신흥동과 노은3동에서 가장 빈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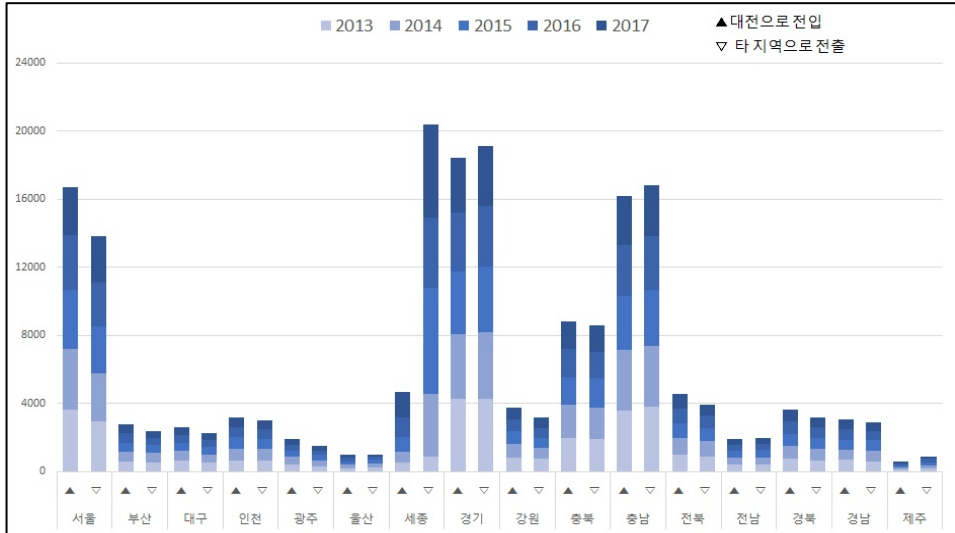
[표 4-17] 공간범위별 대전 3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7)

시내이동 (구간이동)	수도권 이동		충청권 이동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원신흥동→원신흥동 (649명)	경기 (3,214명)	경기 (3,509명)	세종(1,473명)		세종(5,473명)	
노은3동→노은3동 (554명)	서울 (2,850명)	서울 (2,748명)	충북	청주시 (810명)	충북	청주시 (780명)
온천2동→온천2동 (547명)	인천 (559명)	인천 (523명)		옥천군 (280명)		옥천군 (168명)
관저2동→관저2동 (524명)				영동군 (165명)		영동군 (162명)
가수원동→가수원동 (464명)				기타 (372명)		기타 (415명)
온천1동→온천1동 (435명)				천안시 (480명)		천안시 (622명)
신성동→신성동 전민동→전민동 (418명)			충남	금산군 (415명)	충남	계룡시 (428명)
탄방동→탄방동 (404명)				논산시 (354명)		아산시 (362명)
구죽동→구죽동 (388명)				기타 (1,628명)		기타 (1,628명)
관평동→관평동 (372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7)
 주 :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 2015년과 2016년 기준 공간범위별 20대 인구이동 현황은 [부록]을 참고할 수 있음

- 최근 5년 동안 대전으로 전출입한 30대 인구 현황을 누적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4]과 같음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4-4] 대전 30대의 타시도 간 전출입 인구 현황(2013-2017)

- 누적 그래프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세종시로의 전출 누적 인구가 가장 많으며, 이는 2014년 이후 크게 늘어난 30대의 전출 경향에 기인하고 있음
- 대전의 30대는 세종시 다음으로 경기도와 충남도로, 그리고 서울시로 가장 많이 전출해 왔으며, 전입 누적인구는 경기도가 가장 많지만, 전입과 전출 격차는 서울이 가장 큼
- 대전의 30대 인구는 세종, 경기, 서울, 충남북과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과 2017년 세종으로의 전출 누적 인구는 압도적으로 많음
- 20대와 유사하게 서울, 경기지역 외에는 가까울수록 이동이 많고, 거리

가 떨어질수록 이동인구가 적은 특성이 드러남

- 2016년 발표된 ‘신혼부부통계’를 살펴보면,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신혼부부의 수가 동일 시도 내에서 이동한 부부의 수를 넘어서고 있음 ([표 4-18] 참조)

[표 4-18] 신혼부부의 국내 거주 지역 이동 현황

(단위 : 쌍)

거주 지역 (‘16년 기준)	대상 신혼 부부	이동 부부 수	동일 시도 내	다른 시도에서 전입	상위 3순위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전국	1,151,035	250,109
서울	219,264	45,167	34,608	10,559	경기	인천	강원
부산	70,736	15,366	11,839	3,527	경남	서울	경기
대구	48,999	10,505	7,959	2,546	경북	경기	서울
인천	70,778	16,458	10,750	5,709	경기	서울	충남
광주	31,557	6,540	4,690	1,850	전남	서울	경기
대전	33,932	7,396	4,966	2,430	경기	서울	충남
울산	30,143	5,600	4,154	1,446	부산	경남	서울
세종	7,958	3,647	1,459	2,188	대전	서울	경기
경기	309,770	72,848	48,740	24,109	서울	인천	충남
강원	29,989	6,611	4,118	2,493	경기	서울	인천
충북	34,449	6,764	4,373	2,392	경기	서울	대전
충남	47,955	10,236	6,553	3,683	경기	서울	대전
전북	34,777	7,038	5,293	1,745	경기	서울	충남
전남	35,548	6,865	4,140	2,726	광주	경기	서울
경북	54,693	10,724	7,114	3,610	대구	경기	서울
경남	75,796	14,753	10,426	4,327	부산	경기	서울
제주	14,695	3,594	2,470	1,125	서울	경기	인천

자료 : 통계청 신혼부부통계(2016) 원자료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 결과’ 보도 자료를 참고함.

-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신혼부부의 다수는 대전에서 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경기도 순으로 나타남

3) 청년 인구의 이동 사유

- 전입신고서를 바탕으로 대전으로의 전입사유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사유를 파악해 볼 수 있음
- 2016년 기준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중 20대와 30대 인구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전출입 사유를 파악하고자 했음
- 전입신고서 양식(개정 2012년 6월 1일)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를 기입하게 하고 있으나, 전입사유는 가구당 1가지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가구 전체의 주된 전입사유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여러 연령대의 구성원이 한 가구에 있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전입사유를 연령별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대와 30대 세대주이자 유일한 세대원(즉 1인가구)이 기재한 전출입 사유를 추출하여 이동 사유를 파악하고자 함
- 전입신고서에 기재하는 전입사유는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기타’로 구분돼 있음
-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청년인구가 전입신고서에 기재한 이주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9]와 같음

[표 4-19] 대전 청년인구의 타시도 전출시 이주사유(2016년)

구분	20대		30대	
	건	비율(%)	건	비율(%)
직업	9,715	44.8	5,324	46.3
가족	6,436	29.7	3,659	31.9
주택	1,724	7.9	1,583	13.8
교육	2,584	11.9	114	1.0
주거환경(교통 등)	220	1.0	117	1.0
자연환경(건강 등)	88	0.4	105	0.9
기타	929	4.3	585	5.1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6)

주 : 20대는 만 19세-29세,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2,30대 인구 중 1인이 이동하는 경우만 선택함.

-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밝힌 이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직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사유로 기재됨
- 20대는 30대와 달리 ‘교육’ 때문에 대전을 떠난 것이라고 11.9%가 밝힌 반면, 30대는 ‘주택’사유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30대 인구의 대전 전입 사유를 전입신고서에 기준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0]와 같음

[표 4-20] 청년인구의 대전 전입시 이주사유(2016년)

구분	20대		30대	
	건	비율(%)	건	비율(%)
직업	9,345	42.0	4,979	44.5
가족	5,907	26.5	3,758	33.6
주택	2,523	11.3	1,655	14.8
교육	3,353	15.1	143	1.3
주거환경(교통 등)	276	1.2	122	1.1
자연환경(건강 등)	31	0.1	36	0.3
기타	817	3.7	494	4.4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6)

주 : 20대는 만 19세-29세,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2,30대 인구 중 1인이 이동하는 경우만 선택함.

- 전출사유와 유사하게 직업, 가족이 주요한 전입사유이나, 20대의 경우 교육의 비중이 30대와 달리 높고, 또한 20대가 대전으로 전입한 사유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출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대 혼자 대전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양질의 주거에 대한 욕구와 주택 구입 등 주택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앞서 최근 5년 간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현황을 살펴봤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30대의 세종시로의 전출이었음
- 세종시로 전출한 30대의 전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4-21]와 같음

[표 4-21] 대전시 30대의 세종으로의 전출사유(2015~2016년)

구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직업	564	33.0	493	32.8
가족	498	29.1	495	32.9
주택	425	24.9	335	22.3
교육	12	0.7	19	1.3
주거환경(교통 등)	37	2.2	37	2.5
자연환경(건강 등)	12	0.7	7	0.5
기타	161	9.4	118	7.8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주 :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30대 인구 중 1인이 이동하는 경우만 선택함.

- 앞서 전출 사유를 분석한 결과표에서 30대가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 주택을 선택한 비율은 13.8%였음
- 대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로 가족을 선택한 비율은 세종으로의 이주 사유 중 가족을 선택한 비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직업을 선택한 비율은 약 10%정도 줄었으며, 대신 주택을 선택한 비율이 약 10%가량 증가함

대전지역 청년인구의 삶의 질과 정책 수요 분석

1. 자료 활용과 분석 개요
2. 관심과 가치관
3. 정주지속의사 영향 요인과 전망

5장. 대전지역 청년인구의 삶의 질과 정책 수요 분석

1. 자료 활용과 분석 개요

1) 2016·2017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개요

- 대전광역시가 2016년과 2017년에 발표한 <대전의 사회지표> 중 각 년도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시자료를 재분석함
-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는 행정자료와는 달리 삶과 정책 관련 항목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의식이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내 5,000 표본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이 대상임
- 본 연구는 2016년과 2017년 대전시 사회조사 응답자 중 만 19~39세에 해당하는 표본만 별도 추출하여 이들의 삶의 질과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함
- 본 연구에 활용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표 5-1] 대전시 사회조사 청년인구 표본 현황(2016~2017년)

구분		2017년		2016년	
		N(명)	%	N(명)	%
전체		3787	100.0	3428	100.0
성별	남	1784	47.1	1653	48.2
	여	2003	52.9	1775	51.8
연령대	만19~24세	1111	29.3	1092	31.9
	만25~29세	949	25.1	864	25.2
	만30~34세	824	21.8	745	21.7
	만35~39세	903	23.8	727	21.2

- 여성이 조금 더 많이 표집됐고, 19~24세 응답자가 가장 많음

2)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개요

- 2017년 대전시 사회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대전에 살고 싶은지 청년층의 정주지속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정주 결정 요인에 대한 직접 질문이 없고, 2018년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초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전시 청년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청년단체 활동가 등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223명이 참여함
- 모바일/온라인 설문조사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5-2] 모바일/온라인 설문조사 추진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8. 5. 17.~ 5. 27.
조사대상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전시 청년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청년단체 활동가 등
응답자 특성	총 223명 남성 99명 여성 124명 20대 159명, 30대 55명, 40대 이상 9명
조사방법	Google Forms를 활용한 모바일과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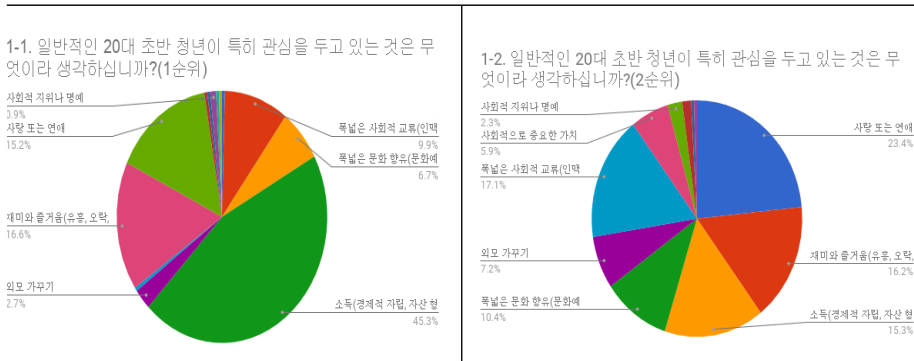
- 여성이 본 조사에 더 많이 참여했고, 모바일 조사의 특성 상 20대 회신율이 가장 높았음
- 본 조사는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20,30대 청년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물음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가 대상 현황 평가 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관심과 가치관

1) 모바일 조사에 나타난 20대 청년의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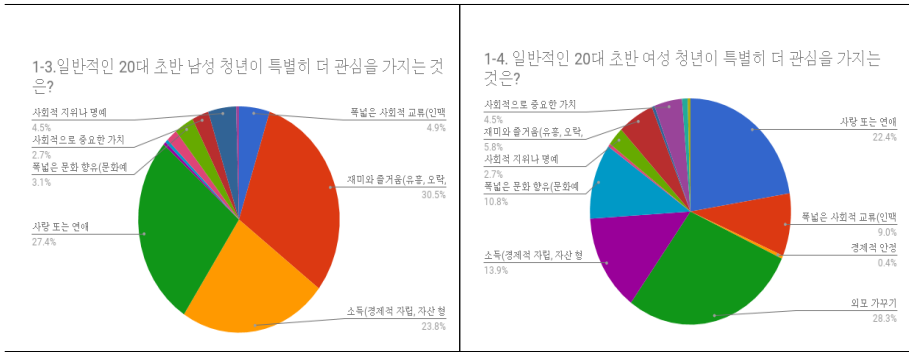
(1)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 20대 초반(만 19~24세)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관심사 1순위로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등을 포함한 ‘소득’을 가장 많이 선택함(45.3%)
-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2순위로는 ‘사랑 또는 연애’가 23.4%로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폭넓은 사회적 교류’가 다음으로 많이 선택됨



[그림 5-1]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 성별에 따른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남성의 경우 ‘재미와 즐거움’이(30.5%), 여성의 경우 ‘외모 가꾸기’가(28.3%) 가장 큰 관심사라 인식되고 있어, 성별 차이를 드러냄
- 남성과 여성 모두 ‘사랑과 연애’(남성 27.4%, 여성 22.4%)와 ‘소득’(남성 23.8%, 여성 13.9%)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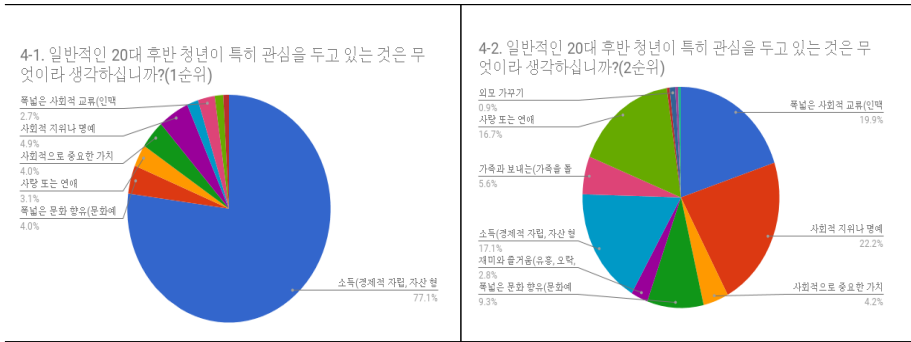


[그림 5-2] 성별에 따른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 성별에 따른 관심사 차이(재미 vs. 외모)는 성(gender)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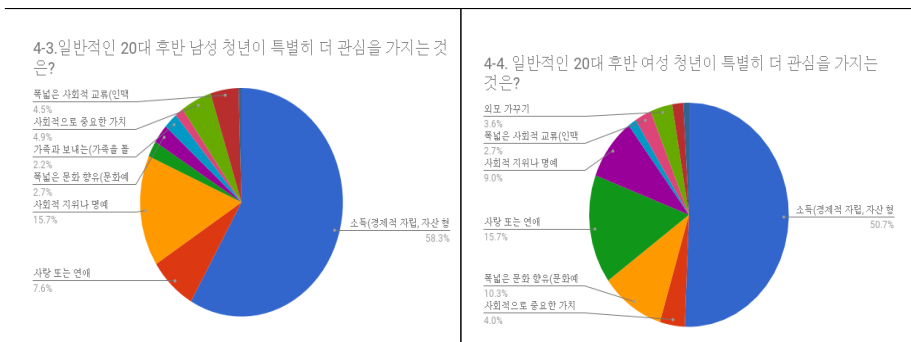
(2)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 20대 후반(만 25~29세)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관심사 1순위로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등을 포함한 '소득'을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함(77.1%)
-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2순위로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22.2%로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폭넓은 사회적 교류'(19.9%)가 다음으로 많이 선택됨



[그림 5-3]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 성별에 따른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을(남성 58.3%, 여성 50.7%)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답함
- 남성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명예(15.7%)'가, 여성의 경우엔 '사랑 또는 연애(15.7%)'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어, 성별 차이를 드러냄



[그림 5-4] 성별에 따른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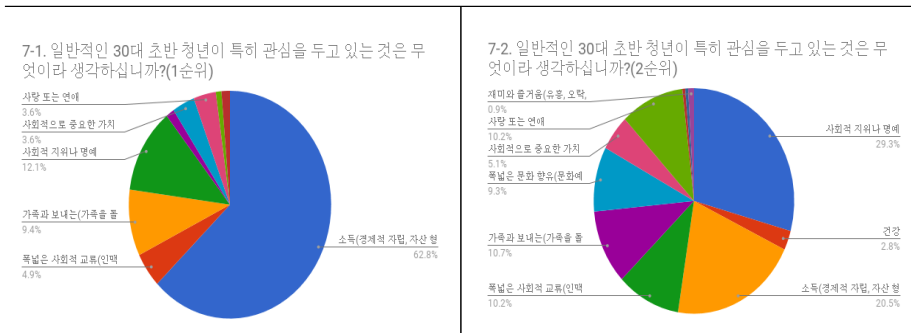
- 20대 초반에는 재미와 즐거움 혹은 외모가꾸기 등에 관심을 두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라 할 수 있는 20대 후반에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20대 후반에 소득이 주요 관심사인 이유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시기로 여겨지는 생애주기 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모바일 조사에 나타난 30대 청년의 관심사

(1)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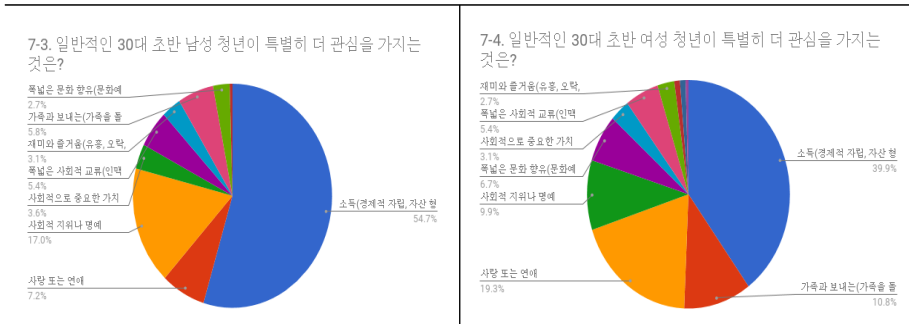
- 30대 초반(만 30~34세)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관심사 1순위로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등을 포함한 ‘소득’을 가장 많이 선택함(62.8%)
- 가족을 돌보는 것을 포함 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순위 중 세 번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9.4%), 20대와는 다른 삶의 양상을 드러냄
-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2순위로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29.3%로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여전히 ‘소득(20.5%)’이 많이 선택된 경향을 보여, 30대 초반의 삶에 경제적 자립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5-5]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 성별에 따른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을(남성 54.7%, 여성 39.9%)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답했는데, 여성의 경우 소득의 중요성이 20대 후반에 비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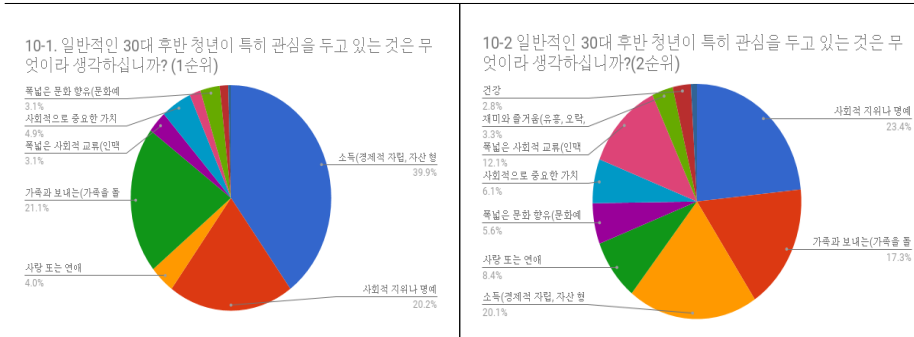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명예(17.0%)'가, 여성의 경우엔 '사랑 또는 연애(20.2%)'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사랑 또는 연애'에 이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10.8%)'이 세 번째로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된 특성을 보임



[그림 5-6] 성별에 따른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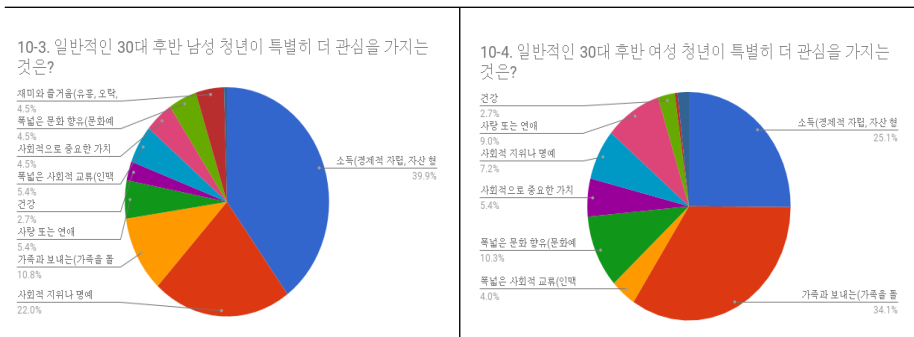
(2)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 30대 후반(만 35~39세)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관심사 1순위로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등을 포함한 '소득'을 가장 많이 선택함(39.9%)
- 가족을 돌보는 것을 포함 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순위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21.1%), 혼인 이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가 드러남
-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2순위로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23.4%로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여전히 '소득(20.1%)'이 많이 선택된 경향을 보여, 30대 후반의 삶에 있어서도 경제적 자립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5-7]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1,2순위

- 성별에 따른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남성의 경우엔 '소득(39.9%)' '사회적 지위나 명예(22.0%)' '가족과 보내는 시간(10.8%)'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가족(34.1%)'이 소득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타남
- 또한 여성의 경우엔 '특별은 문화 향유(10.3%)'가 세 번째로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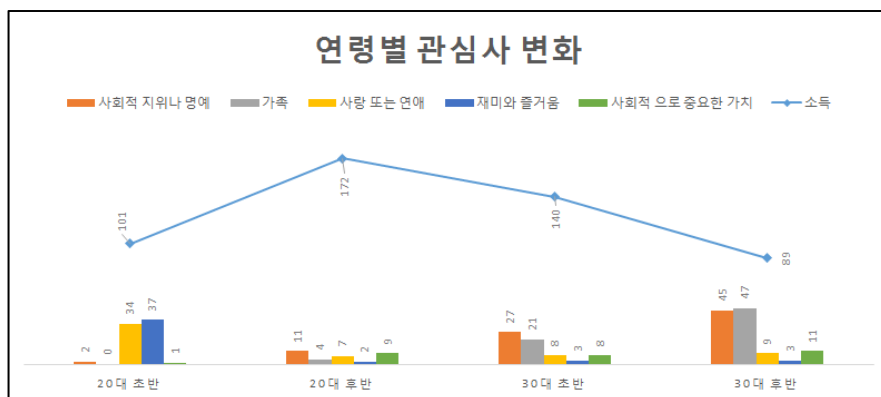


[그림 5-8] 성별에 따른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

3) 소결

- 경제적 자립을 포함한 **일과 소득**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20대 후반**의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으로 추정됨

- **폭넓은 사회적 교류**는 즐거움과 재미뿐 아니라 취업과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데도 중요한 요소로, **20대 청년**의 관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이 20대와는 다르게 30대 초반에서 강조되다가 30대 후반에게는 소득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제치고)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어, 혼인 이후의 삶, 특히 **30대에겐 Work & Life Balance** 이슈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은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남성은 재미와 즐거움에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로, 여성은 사랑 또는 연애에서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추정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음
- 연령대별 관심사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5-9]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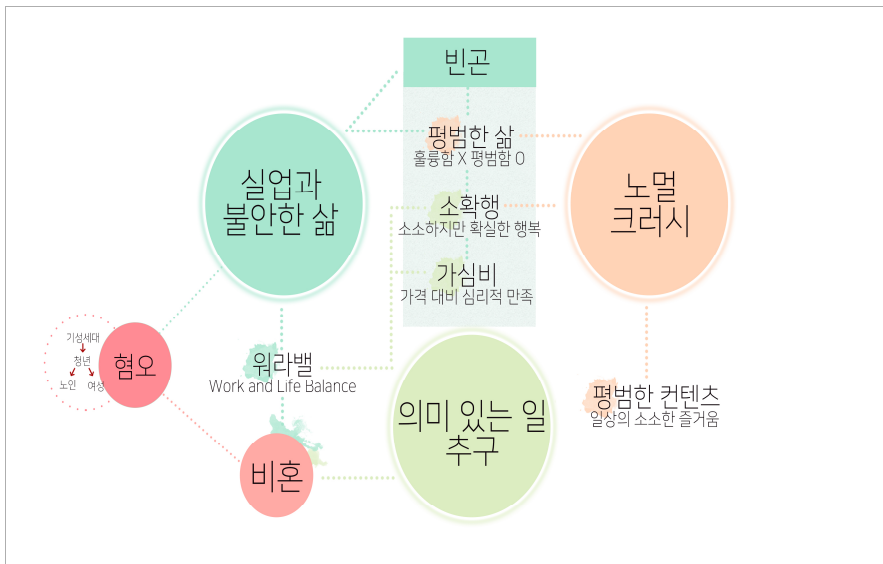


[그림 5-9] 연령대별 관심사 변화

- 최근 언론을 통해 청년의 삶 혹은 관심사와 관련한 담론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¹²⁾, 이를 분석해 보면 크게 소득이 낮는데 따른 불안정한 삶과 이로 인한 피로감에서 파생된 ‘소확행’ 등 평범한 것에 대한 몰입, 역설적으로 불안정한 삶이 유인한 혐오와 비혼주의 등을 엿볼 수 있음

12) 참고문헌 참조

-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불안정한 삶 및 소소한 행복을 채우는 일과는 동떨어진 특징도 드러남
- 청년 비혼주의의 등장은 실업 등 소득이 낮은 데 따른 불안정한 삶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불안이 야기한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도 있음
- 언론에 등장한 청년의 삶 관련한 담론을 직관적으로 해석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5-10]과 같음



[그림 5-10] 언론에 등장한 ‘청년의 삶 담론’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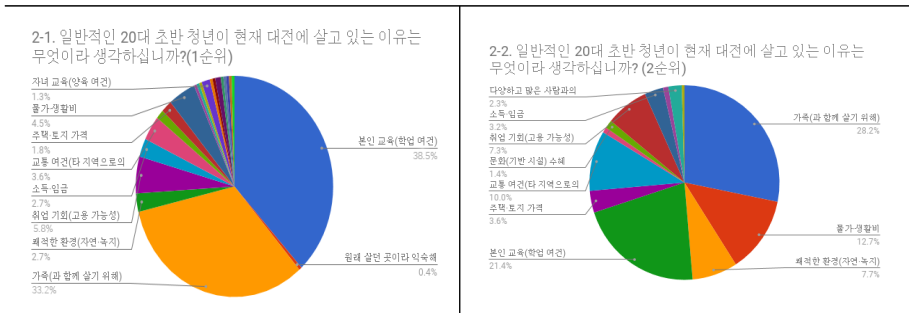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경제적 자립 스트레스가 가장 큰 청년 세대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가족과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행복추구 등 (거창한 대의명분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대응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3. 정주지속의사 영향 요인과 전망

1) 대전 거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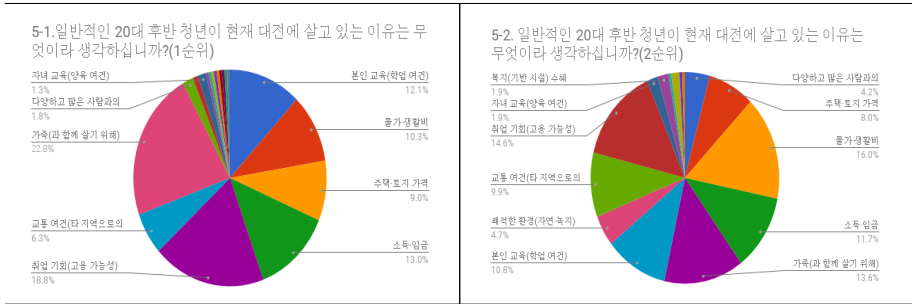
(1) 20대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 모바일/온라인조사를 통해 20대 초반 청년이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1순위 이유로 ‘본인 교육(38.5%)’을 가장 많이 선택함
- 20대 초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순위로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33.2%)’가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됐으며, ‘취업기회(5.8%)’와 ‘저렴한 물가·생활비(4.5%)’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선택됨
- 2순위로 선택된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기위해(28.2%)’가 ‘본인 교육(21.4%)’보다 다소 많이 선택됐으며, ‘물가·생활비(12.7%)’와 ‘교통여건(10.0%)’이 1순위에서보다 많이 선택됐음



[그림 5-11] 20대 초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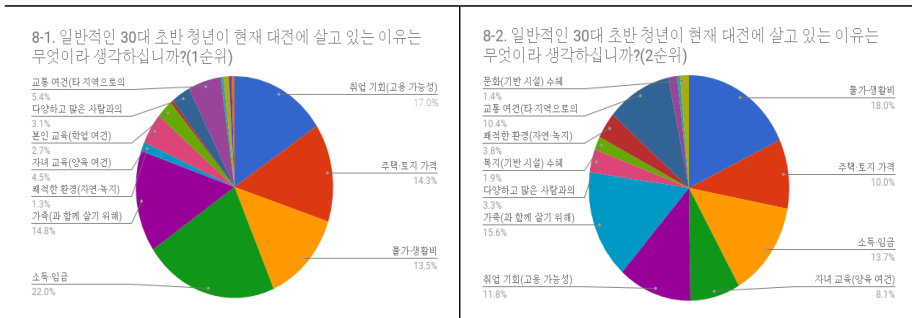
-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순위로는 ‘가족과 함께 살기위해(22.8%)’가 ‘취업기회·고용가능성(1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초반보다 ‘소득과 임금(13.0%)’이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함
-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2순위로는 ‘물가와 생활비(16.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취업기회(14.6%)’ ‘가족(13.6%)’ 등 다른 이유들도 비슷한 비율을 보임



[그림 5-12]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2) 30대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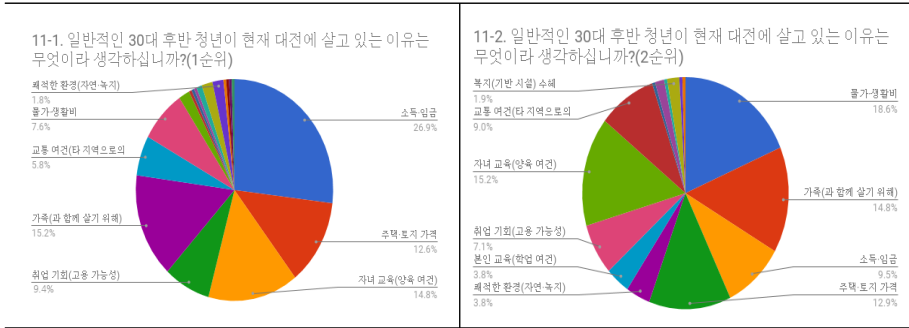
- 모바일/온라인조사를 통해 30대 초반 청년이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소득(22.0%)’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취업 기회(17.0%)’가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됨
- 30대 초반 청년이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 2순위로 ‘물가·생활비(18.0%)’가 ‘가족(15.6%)’보다 다소 많이 선택됨



[그림 5-13] 30대 초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 30대 후반 청년은 ‘소득(26.9%)’이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됐으나, ‘가족(15.2%)’과 ‘자녀교육(14.8%)’ 그리고 ‘주택 및 토지 가격(12.6%)’이 거주 이유로 많이 선택됨

- 2순위 거주 이유로는 ‘물가·생활비(18.6%)’ ‘자녀교육(15.2%)’ 그리고 ‘가족(14.8%)’이 많이 선택됨



[그림 5-14] 30대 후반 청년의 대전 거주 이유 1,2순위

- 대전 거주 이유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 광역시인 대전의 물가와 주택가격이 거주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됨

(3) 소결: 청년세대 대전 거주 이유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등 응답자들은 20,30대 청년이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를 정주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도시기반시설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조건**들에서 찾고 있었음
- 20대 초반에는 본인 학업이, 20대 후반에는 고용기회가 중요한 정주 이유가 되고 있으며, 30대 부터는 취업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주택·토지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30대 후반에는 자녀양육의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저렴한 물가와 생활비**는 청년세대에게 복지시설이나 쾌적한 환경, 문화시설보다도 중요한 정주 이유가 될 수 있음
- 타지역으로의 교통 이동을 포함한 **교통 여건**도 다른 도시 내 기반시설보다 더 중요한 대전 거주 이유로 생각되고 있음

2) 대전 정주 지속 전망

(1) 청년인구의 거주 전망

- 다음 [표 5-3]은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가 계속 대전에 살 것으로 전망되는지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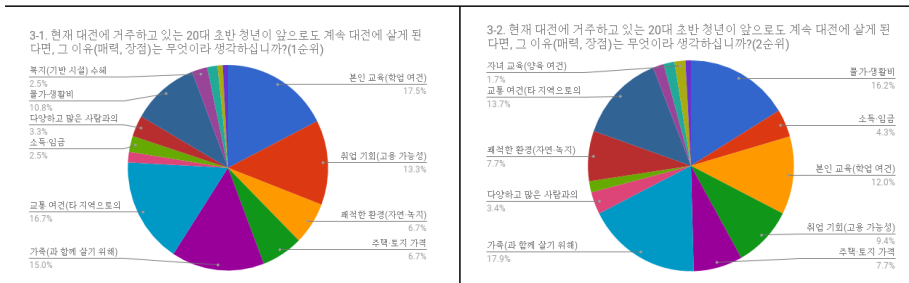
[표 5-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의 거주 지속 전망
(단위 : 명,%)

구분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계속 대전에 살 것	120(53.8)	133(59.6)	162(72.6)	171(76.7)
대전을 떠날 것	103(46.2)	90(40.4)	61(27.4)	52(23.3)
합계	223(100.0)	223(100.0)	223(100.0)	223(100.0)

- 모바일/온라인조사를 통해 세대 집단별 지속적인 거주 전망을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정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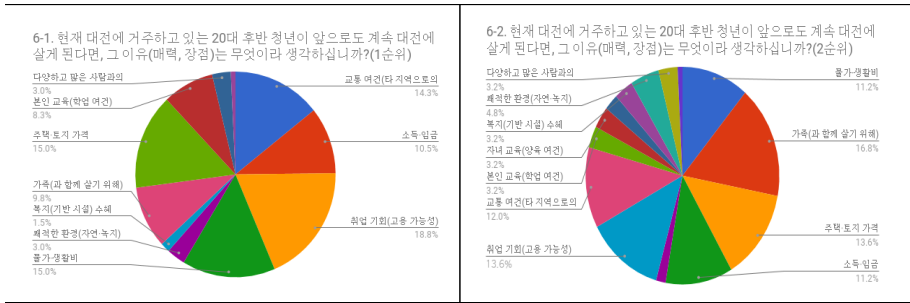
(2) 청년인구의 정주 지속 이유

- 20대 초반의 청년이 계속 대전에 살게 될 이유 혹은 대전의 장점이나 매력 1순위로 응답자들은 ‘본인 교육(17.5%)’외 ‘교통여건(16.7%)’을 가장 많이 선택함
- 2순위로 많이 선택된 대전의 정주 이유 혹은 장점은 ‘가족(17.9%)’외 ‘물가와 생활비(16.2%)’ 그리고 ‘교통여건(13.7%)’이 많이 선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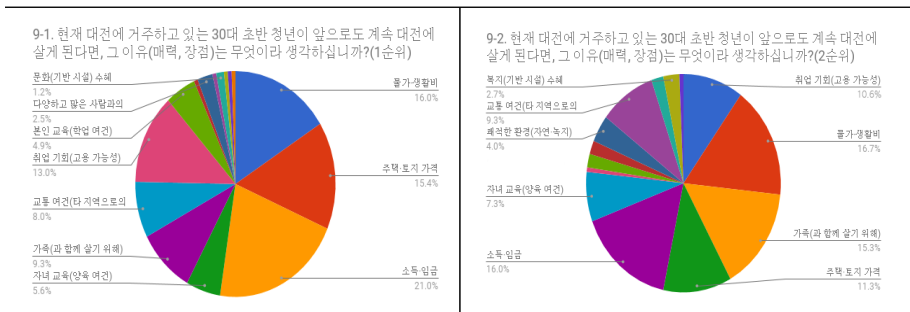
[그림 5-15] 20대 초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 대학생이 다수인 20대 초반 인구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20대 후반 청년이 대전에 계속 살게 된다면, 그 이유 혹은 대전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1순위로 ‘취업 기회(18.8%)’를 꼽았으며, ‘물가와 생활비(15.0%)’ 그리고 ‘주택과 토지 가격(15.0%)’이 그 뒤를 이음
- 20대 후반 청년의 정주 지속 이유 2순위로는 ‘가족(16.8%)’외 ‘취업기회(13.6%)’와 ‘주택 및 토지가격(13.6%)’이 많이 선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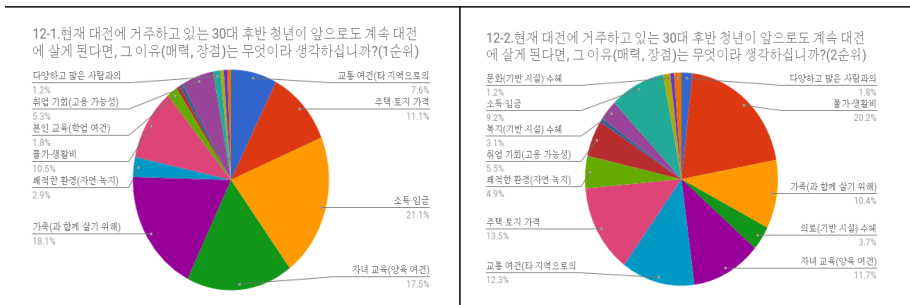
[그림 5-16]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 30대 초반의 청년이 대전에 계속 살게 된다면 그 이유는 ‘소득과 임금(21.0%)’ ‘물가와 생활비(16.0%)’ ‘주택과 토지 가격(15.4%)’ 순이었음
- 정주 지속 사유 2순위로도 ‘물가와 생활비(16.7%)’ ‘소득과 임금(16.0%)’ 이 많이 선택됨



[그림 5-17] 30대 초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 30대 후반이 계속 대전에 살게 될 이유 혹은 대전의 장점으로 응답자들은 ‘소득(21.1%)’외 ‘가족(18.1%)’과 ‘자녀교육(17.5%)’를 많이 선택함
- 2순위로는 ‘물가와 생활비(20.2%)’가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 ‘주택 및 토지가격(13.5%)’이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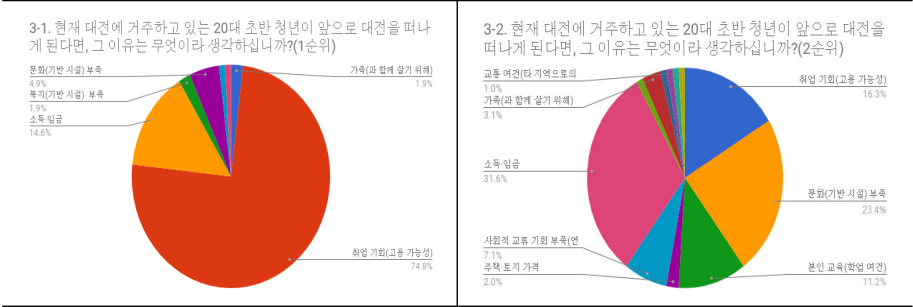


[그림 5-18] 30대 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2순위

- 생애주기에 따라 본인의 학업이 혹은 취업의 가능성과 소득이 중요한 정주 지속 이유가 됐지만, 대전이란 지방 광역시의 저렴한 물가와 주택가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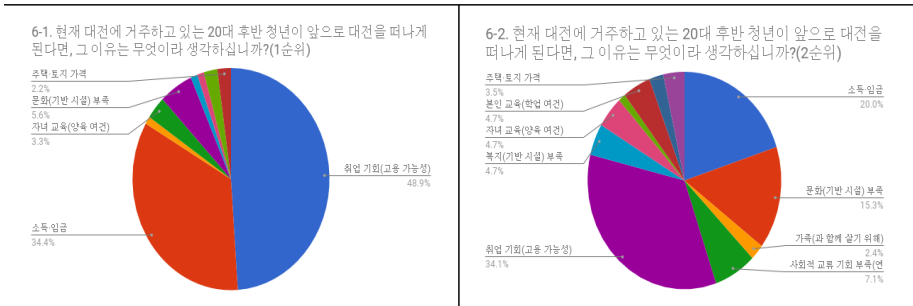
(3) 청년인구의 정주 중단 이유

- 이번 모바일조사에서 응답자들은 30대 청년집단은 앞으로 계속 대전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20대는 떠날 가능성이 50%에 가깝다고 전망함
- 청년세대가 대전을 떠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20대 초반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는 ‘취업 및 고용 가능성(74.8%)’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또한, 20대 초반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 2순위로는 ‘소득(31.6%)’외 ‘문화시설부족(23.4%)’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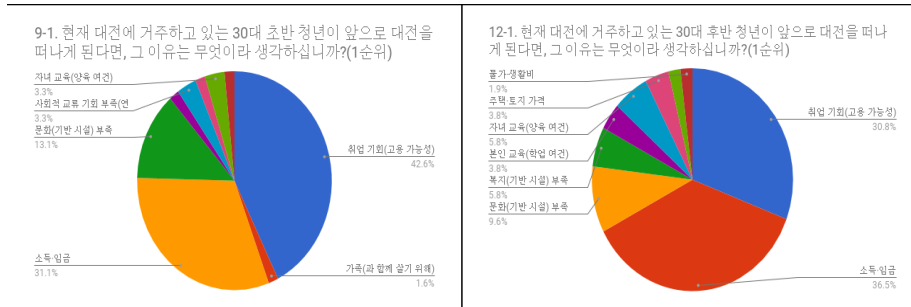
[그림 5-19] 20대 초반 청년의 대전 정주 중단 이유 1,2순위

○ 20대 후반의 청년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 1순위로도 ‘취업기회(48.9%)’가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2순위에 ‘문화기반시설부족(15.3%)’이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된 특징을 보임



[그림 5-20] 20대 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중단 이유 1,2순위

○ 30대는 20대보다 대전을 떠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됐는데, 30대 초반 청년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취업기회(42.6%)’를, 30대 후반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 ‘소득(36.5%)’을 꼽았음



[그림 5-21] 30대 초·후반 청년의 대전 정주 중단 이유 1순위

(4) 소결: 청년세대 정주 지속 전망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등 응답자들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대전에 **정주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어, 연령과 정주 가능성이 정(+)의 관계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연령대별 정주 전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1순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5-4]와 같음

[표 5-4] 청년인구의 대전 정주 지속 전망 이유

대전 정주 지속 이유 (1순위 기준)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1위	본인 교육 (17.5%)	취업 기회 (18.8%)	소득, 임금 (21.0%)	소득, 임금 (21.1%)
2위	교통 여건 (16.7%)	물가, 생활비 (15.0%)	물가, 생활비 (16.0%)	가족 (18.1%)
3위	가족 (15.0%)	주택, 토지가격 (15.0%)	주택, 토지가격 (15.4%)	자녀 교육 (17.5%)

- **물가**, 생활비, 주택가격 등이 대전에서의 정주가 가지는 장점 혹은 매력으로 선택된 경향이 있으며, 혼인 후 독립할 가능성이 높은 30대 후반에게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및 양육이 중요한 정주 지속 요인으로 전망됨

-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 **교통여건**은 20대 청년에게 **매력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도시기반시설들과 비교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전을 떠나는 요인으로 응답자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및 이를 창출할 수 있는 취업 기회가 대전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표 5-5] 청년인구의 대전 정주 중단 전망 이유

대전 정주 중단 이유 (1순위 기준)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1위	취업 기회 (74.8%)	취업 기회 (48.9%)	취업 기회 (42.6%)	소득, 임금 (36.5%)
2위	소득,임금(14.6%)	소득,임금(34.4%)	소득,임금(31.1%)	취업 기회 (30.8%)
3위	문화 기반 시설 부족(4.9%)	문화 기반 시설 부족(5.6%)	문화 기반 시설 부족(13.1%)	문화 기반 시설 부족(9.6%)

-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 **문화시설부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기에 적합한 곳이 대전이나,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3) 거주 환경과 정주 의사

(1)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 2017년 대전시는 「사회조사」를 통해 “향후 3년 후에도 대전시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 조사한 바 있음
-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향후 정주 의사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다음의 [표 5-6]와 같음

[표 5-6] 2017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정주 지속 의사

구분	연령대	N	Mean	SD	F
향후 정주 의사	만19~24세	1111	3.58 a	.860	26.000***
	만25~29세	949	3.70 b	.799	
	만30~34세	824	3.76 b	.760	
	만35~39세	903	3.90 c	.780	

* : p<.05, ** : p<.01, *** : p<.001
Post-hoc (Scheffe) a < b < c

-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 모바일/온라인 조사와 유사하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정주 지속 의사가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네 연령대 간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남
-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정주 지속 의사 응답 경향은 유사하여 같은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반면,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서로 상이해, 크게 세 분류로 나눠 정책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같은 연령대 안에서 정주 지속 의사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남

[표 5-7] 2017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거주환경 만족도

(단위 : 명,점)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주거환경 만족도	만19세-24세	1111	3.41a	.777	10.220*** (.000)
	만25세-29세	949	3.46a	.771	
	만30세-34세	824	3.46a	.759	
	만35세-39세	903	3.60b	.767	

* : p<.05, ** : p<.01, *** : p<.001
Post-hoc (Scheffe) a < b < c

- 5점 척도로 측정한 거주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만족도 평균도 상승하는데, 30대 후반은 다른 연령대의 청년집단과 유의미하게 다른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앞서 모바일/온라인조사에서 교통여건은 청년인구의 거주 이유이자 정주 지속 전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으며, 특히 20대 초반에게서 중요한 요인이었음
- 2017년 대전시 사회조사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세분화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연령대별로 재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5-8]와 같음

[표 5-8] 2017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대중교통 만족도

(단위 : 명,점)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중교통 만족도 - 시내버스	만19세-24세	1103	3.48a	1.001	3.328* (.019)
	만25세-29세	890	3.44a	.913	
	만30세-34세	734	3.44ab	.928	
	만35세-39세	782	3.57b	.917	
대중교통 만족도 - 지하철	만19세-24세	1051	3.15	1.104	1.151 (.327)
	만25세-29세	822	3.14	1.006	
	만30세-34세	665	3.11	1.006	
	만35세-39세	726	3.21	1.038	
대중교통 만족도-택시	만19세-24세	1096	3.19	.887	1.558 (.198)
	만25세-29세	917	3.18	.847	
	만30세-34세	790	3.20	.866	
	만35세-39세	847	3.26	.865	

* : p<.05, ** : p<.01, *** : p<.001

Post-hoc (Scheffe) a < b < c

- 택시와 지하철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으나, 시내버스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30대 후반은 만족도 응답의 패턴이 다른 연령대와 다르며, 20대 두 집단은 확실히 30대와는 다른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2016 사회조사는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는데, 연령대별로 향후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공시설의 차이가 나타났음([표 5-9]참조)

[표 5-9] 2016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필요한 공공시설-1순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국공 립 어린이집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공영 주차 시설	문화 예술 회관	도서 관	체육 시설 및 경기장	χ^2 (p)
전체	3428 (100.0)	646 (18.8)	882 (25.7)	592 (17.3)	563 (16.4)	269 (7.8)	203 (5.9)	159 (4.6)	114 (3.3)	
만19 세-2 4세	1092 (100.0)	154 (14.1)	298 (27.3)	198 (18.1)	183 (16.8)	73 (6.7)	65 (6.0)	75 (6.9)	46 (4.2)	
만25 세-2 9세	864 (100.0)	150 (17.4)	229 (26.5)	160 (18.5)	148 (17.1)	58 (6.7)	53 (6.1)	33 (3.8)	33 (3.8)	78.434 ***
만30 세-3 4세	745 (100.0)	182 (24.4)	172 (23.1)	102 (13.7)	127 (17.0)	78 (10.5)	45 (6.0)	23 (3.1)	16 (2.1)	(.000)
만35 세-3 9세	727 (100.0)	160 (22.0)	183 (25.2)	132 (18.2)	105 (14.4)	60 (8.3)	40 (5.5)	28 (3.9)	19 (2.6)	

* : p<.05, ** : p<.01, *** : p<.001

-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연령대별로 필요한 공공시설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음

- 20대 초반은 병원과 보건소 등 보건의료시설과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
- 20대 후반은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냈으며, 30대 초반은 특히 공영주차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공공시설 수요 2순위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23.8%)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공영주차시설에 대한 수요가 16.1%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2016년 대전시 사회조사는 거주지의 교통사고 및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문항을 통해 거주지 환경 안전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측정함
- 교통사고 안전과 거주지의 범죄안전 관련한 문항의 연령대별 응답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의 [표 5-10]와 같음

[표 5-10] 2016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거주환경 안전 인식

(단위 : 명,점)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통사고 관련 불안 정도	만19세-만24세	1092	2.78a	.857	5.899** (.001)
	만25세-만29세	864	2.79a	.872	
	만30세-만34세	745	2.87ab	.913	
	만35세-만39세	727	2.94b	.931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만19세-만24세	1092	2.53b	.998	3.052* (.027)
	만25세-만29세	864	2.40a	1.037	
	만30세-만34세	745	2.45	.969	
	만35세-만39세	727	2.47	.966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만19세-만24세	1092	2.96	1.177	.736 (.530)
	만25세-만29세	864	2.88	1.245	
	만30세-만34세	745	2.94	1.188	
	만35세-만39세	727	2.91	1.113	

* : p<.05, ** : p<.01, *** : p<.001

Post-hoc (Scheffe) a < b < c

-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안의 정도도 커졌음
- 범죄 피해 관련해서는 20대 초반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20대 초반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연령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아래 [표 5-11]는 2016년 대전시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된 청년집단의 사회적 관계 형성 정도임
- 동네사람들과 얼마나 잘 알고 지내는지, 교류는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 보고 그 결과를 연령대별로 정리했음

[표 5-11] 2016 대전시 사회조사-청년인구의 사회적 관계 정도

(단위 : 명,점)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만19세-만24세	1092	2.63a	.845	12.415** * (.000)
	만25세-만29세	864	2.68ab	.833	
	만30세-만34세	745	2.76bc	.846	
	만35세-만39세	727	2.87c	.905	
동네 사람들끼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만19세-만24세	1092	2.53a	.922	12.756** * (.000)
	만25세-만29세	864	2.64ab	.905	
	만30세-만34세	745	2.71bc	.927	
	만35세-만39세	727	2.79c	.925	

* : p<.05, ** : p<.01, *** : p<.001

Post-hoc (Scheffe) a < b < c

-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또한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응답에 있어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네 개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

(2) 정주 지속 의사 영향 요인

- 2017년 대전시 사회조사에 나타난 향후 대전시에서의 정주 지속의사와 여러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의 [표 5-12]로 제시함

[표 5-12] 2017 대전시 사회조사-정주지속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령대	정주지속의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나타난 만족도 요인
전체 20-30세대	주거환경(.262***), 시내버스(.112***), 지하철(.068***), 택시 (.168***), 교육환경(.088***), 고용안정성(.052*), 근로환경(.049*), 근로시간(.043*), 소득수준(.072***), 소비생활(.082***)
20대 초반	주거환경(.265***), 시내버스(.121***), 지하철(.079*), 택시(.161***), 교육환경(.123***), 소비생활(.090**)
20대 후반	주거환경(.274***), 시내버스(.169***), 지하철(.083*), 택시(.226***), 교육환경(.110**)
30대 초반	주거환경(.201***), 시내버스(.103**), 지하철(.088*), 택시(.124***)
30대 후반	주거환경(.264***), 택시(.142***), 교육환경(.076*), 소득수준(.093**), 소비생활(.078*)

* : p<.05, ** : p<.01, *** : p<.001

- 20,30대 청년인구의 대전 정주지속의사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은 ‘주거환경’ ‘교통편의’ ‘소득과 경제활동’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음
- 상관계수의 크기를 볼 때, 청년인구의 정주지속의사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주거환경’이며,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와 시내버스의 상관계수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회조사 설문지에 “주거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기재돼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대략 ‘주거를 둘러싼 자연 및 사회적 조건(시설, 사

회적 상황, 주변 환경이나 인구밀도 등)으로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광범위한 의미에서 주거환경에 포함될 대중교통 편의 항목을 제외하면, 20대는 '교육환경'이, 30대 후반은 '소비생활'과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교육환경'이 정주지속의사와 상관관계가 있음

- 연령대별로 정주지속의사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행한 결과, 2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설명력이 가장 높았음($R^2 = .151$, $p < .001$)

- 설명력이 높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3] 향후 정주지속의사 예측 요인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20대 후반				30대 후반			
	B	S.E	β	t	B	S.E	β	t
(상수)	2.153	.221		9.741 ***	2.874	.240		11.977 ***
주거환경 만족도	.267	.041	.275	6.522 **	.261	.048	.257	5.476 ***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 스	-.007	.041	-.008	-.163	-.133	.045	-.164	-2.980 **
대중교통 만족도- 지하철	-.038	.036	-.050	-1.038	-.028	.035	-.040	-.788
대중교통 만족도- 택시	.172	.043	.198	4.034 **	.203	.044	.241	4.581 ***
교육환경 만족도	.063	.039	.063	1.630	-.029	.040	-.031	-.721
일자리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065	.053	-.070	-1.238	-.091	.058	-.091	-1.577
일자리만족도 고용의 안정성	.121	.046	.135	2.649 *	-.037	.050	-.040	-.743
일자리만족도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53	.046	-.057	-1.157	.070	.053	.075	1.316
일자리만족도 근로환경	.002	.048	.002	.037	.018	.055	.020	.330
일자리만족도 근로시간	.004	.045	.004	.082	-.026	.047	-.031	-.558
소득수준 만족도	.015	.055	.015	.278	.051	.058	.051	.867
소비생활 만족도	-.020	.056	-.016	-.349	.032	.058	.028	.549
	R2=.151, 수정된R2=.134 F=8.968, p=.000				R2=.114, 수정된R2=.093 F=5.529, p=.000			

*p<.05, ** p<.01, *** p<.001

- 20대 후반의 정주지속의사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주거환경만족도’와 ‘대중교통-택시 만족도’ 그리고 ‘고용안정성’이 선택됨

- 30대 후반은 정주지속의사 예측 요인으로는 ‘고용안정성’이 빠지고 ‘대중교통-시내버스 만족도’가 선택됨
- 이러한 결과는 20대 후반이 지속적으로 정주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과 대중교통만족도(이 변인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주환경이라 볼 수 있고)가 필요하지만,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도 중요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예측 요인임을 보여줌
- 택시이용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모두 정주지속을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시내버스는 부정적인 영향(‘음’의 방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환경과 소득·소비 등 개인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더 강한 예측요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은 대개 주거환경과 관련한 요인들임
- 일자리 외에도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가 청년인구의 정주지속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고, 앞으로 청년인구의 정주지속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청년인구정책 방향 설정과 영역별 과제

1. 청년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2. 청년인구의 정주 지속을 위한 정책 제안

6장

6장. 청년인구정책 방향 설정과 영역별 과제

1. 청년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1) 청년정책 지원 조례 현황

- 최근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6-1] 청년조례 내용별 분류

구분	광역시(41)	기초(162)
기본조례	16	67
일자리	15	69
창업	6	8
주거	1	0
농·어업인 육성	3	2
청년단체	0	8
기타(문화, 공간, 배당 등)	0	8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표 6-1]를 보면, 41개 광역자치단체와 162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본조례를 비롯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조례를 가장 많이 제정했음을 알 수 있음
- 시도별 청년정책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광주, 전남과 경북이 4개의 청년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 기초단위에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다수의 청년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표 6-2]참조)

[표 6-2] 전국 청년 조례 현황

구분	광역시(41)	기초(162)
대전광역시	2	5
세종특별자치시	2	0
서울특별시	4	28
부산광역시	1	10
대구광역시	2	5
인천광역시	1	4
광주광역시	4	8
울산광역시	2	0
경기도	4	34
강원도	2	8
충청북도	1	7
충청남도	2	12
전라북도	2	5
전라남도	4	27
경상북도	4	4
경상남도	2	5
제주특별자치시	2	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전광역시는 기본조례 외에도 일자리 관련해 ‘취업희망카드’와 ‘일자리 창출’조례를 제정했으며, 서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유일하게 제정한 특징이 있음

[표 6-3] 대전시 청년조례 현황

구분	조례
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2017.7.7.)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2017.10.18.)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2018.02.09.)
기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2016.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2017.12.2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2016.8.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2017.12.18.)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7.12.18.)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 대전시 청년정책 지원 사업 현황

○ 대전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내용과 예산(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6-4]와 같음

[표 6-4] 대전시 청년 지원정책

구분	세부사업	내용	예산 (단위:천원)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매월 30만원씩 6개월(최대 180만원)지원	9,000,000
		명사초청 청년취업 콘서트	40,000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	270,000
	청년희망통장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을 위해 본인과 대전시가 각각 1:1 매칭으로 저축하는 목돈 마련 통장	900,000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 학자금 원금 및 이자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신용회복 지원	20,000
청년공간지원	청년지역 운영(3개소)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 각종 커뮤니티의 만남 등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650,000
	청춘터전운영		170,000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대청넷(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 청년활동 지원	411,220
청년자립 기반조성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임차보증금 융차지원	50,000
일자리 창출	두드림 일자리 사업	제3섹터(사회적 경제기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문제해결	950,000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전문직업상담사 배치하여 일자리정보, 취업컨설팅과 알선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700,000
청년혁신스카우트 내손을 잡아	대전지역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혁신적 채용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면접비 등을 지원	100,000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연계 운영으로 청년인재 지역이탈 방지 및 결혼, 주거 안정 도모	380,000
대전 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일자리 정보 및 취·창업 컨설팅 지원	270,000
대학생 직무체험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대학 재학생들에게 연구소, 벤처, 중소기업과 연계 직무체험으로 진로탐색 기회제공, 조기 취업 및 채용 지원	1,000,000
맞춤형 청년(대학) 창업 생태계 구축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 지식)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00,000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78,000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청년정책,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018년 달라지는 대전시정' 참고

-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실의 '행복나눔 청년취업희망카드'사업으로 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일자리정책과의 '맞춤형 청년(대학)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음
- 청년의 경제활동(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학자금 지원 등 본인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위 정책들은 학업 또는 취업준비 중인 20대 청년에게 주로 유효하므로, 30대 청년을 위한 정책적 고민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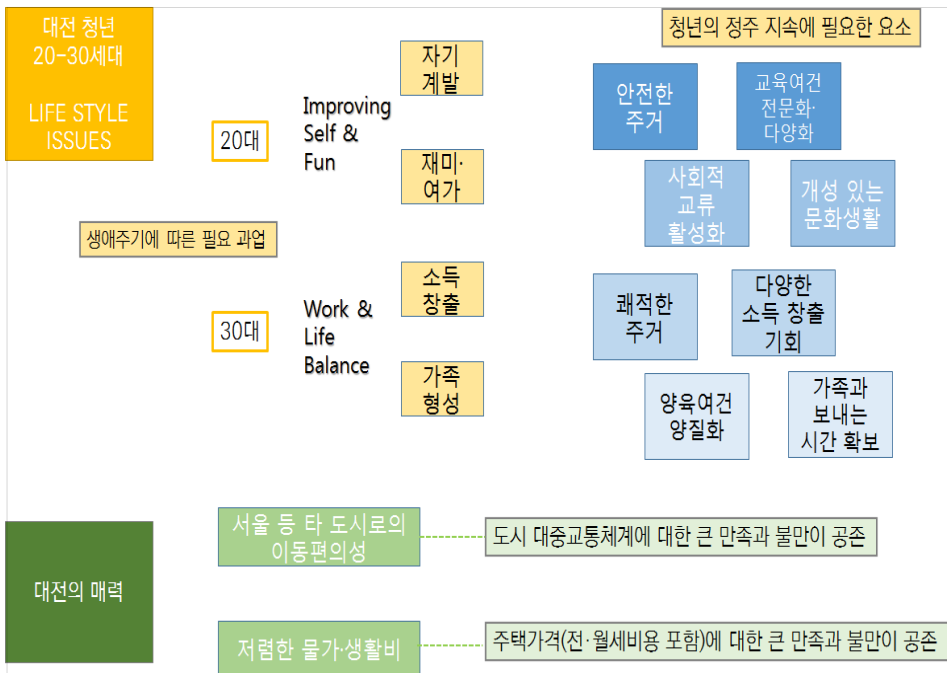
2. 청년인구의 정주 지속을 위한 정책 제안

1) 청년인구 정주 관련 정책 이슈

- 대전시 인구는 자연증가의 감소와 고령화 경향과 함께 사회적 증가도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인구 비율이 2020년에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특징을 보임
- 유소년 비율의 지속적 감소 경향이 뚜렷하나, 20대 인구는 최근 5년간 줄지 않고 다소 늘어난 특징을 보임
- 반면 30대 인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타 시도로 전출하는 인구가 대전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20대의 (대전시로의) 전입사유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학이 많은 대전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30대는 전출과 전입 사유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있어, 결혼에 따른 이동이 활발하다는 추정이 가능함
- 최근 5년간 20대는 서울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데 비해, 30대는 경기도로의 전출 인구가 가장 많고, 충남과 세종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2016, 2017년에는 세종으로의 전출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전지역 20,30대 인구의 정주지속의사는 4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속의사는 강했음
- 연령대에 따라 정주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은 소득이나 임금에 대한 만족도, 일의 내용이나 근로 시간보다 고용안정성과 거주환경이나 교통 등이 더 예측요인으로서 유의미하거나 상관관계가 있었음
- 20대 초반과 후반, 30대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와 수요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정주 전망을 예측해보는 것은 의미 있

있으며, 이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과업과 관심사에 따라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출생 지원 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함

- 청년 인구 현황 파악과 설문조사와 사회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 결과는 다음 [그림 6-1]으로 요약됨



[그림 6-1] 대전 청년인구 특성에 따른 정책 이슈

- 더 많은 출생을 유도하는 인구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청년정책은 가장 필요한 정책적 이슈에 몰두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실제 청년인구가 한 도시에 머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은 외면할 위험이 있음
- 높은 청년인구비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청년 정주율을 보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관심사에 따른 정책 전략 모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임준홍 외, 2017b)

- ‘도시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의 병행이 요구됨

2) 청년인구 정주지속 지원정책 추진 방향

- 본 연구는 대전의 20,30대 인구 현황과 이동 특성, 모바일조사 분석과 사회조사 결과 재분석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청년인구 정주지속 지원 정책의 방향을 다음 [표 6-5]와 같이 제안하고자 함

[표 6-5] 대전 청년인구 정주지속 지원정책의 방향

정책 방향	청년인구의 정주 유인책 발굴과 여건 강화	
정책 이슈	<p>사회적 교류의 활성화 개성있는 문화생활 가족과 보내는 시간 확보</p>	<p>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교육여건의 전문화·다양화 쾌적한 주거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 제공 양육 여건의 양질화</p>
정책 목표	청년인구의 도시 활용도 제고	청년인구의 삶의 질 향상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도시 교통망 정비 • 지역청년 ROOFTOP PARTY “쓸모있는 만남” • 대전시 정보 활용과 홍보 앱 • 대전시 외곽 지역을 활용하는 문화시설 설치 • 시청사 잔디밭 야외 결혼식장 운영 • 주거지 내 녹지와 공원 면적의 확보 • 청년협동조합-“스스로 프로젝트”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발굴과 포상 • 가족 단위 이용 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수요 대응 • 대학가 주변 원룸 안전성 강화 • 직업도서관 설치 • 전문 기술·정보 중심 학원가 조성 • 지역인재 Career Fair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 뉴딜 • 건강한 미래부모 검진 프로그램 운영 •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증가 추세 대응 • 육아휴직 지원금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아기 이름 지어주기 • 간편 유아차(유모차) 대여

- 20,30대 인구인 청년인구가 대전에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유인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청년인구의 삶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슈들을 발굴하여 이를 정책 목표와 과제발굴에 활용함
- 대전에 살고 있지만 대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도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즐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함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를 출산율 제고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함

3) 청년인구 정주지속 지원정책 제안

- 인구현황통계와 설문조사, 사회지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된 정책이슈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네 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청년의 정주 지속에 필요한 정책 이슈 분야별 세부 정책 과제는 다음 [표 6-6]과 같음

[표 6-6] 청년인구 정주지속 정책이슈와 정책과제

정책 이슈	주요 정책 대상	주요 내용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20대 초반 *온천1, 2동, 송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수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 대학가 주변 원룸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개조 발굴 및 예방 조치 - 범죄예방설계 지원 • 광역 및 도시 교통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권’ 출퇴근 편의성 확보 - 다양한 버스서비스·환승체계 정립 • 건강한 미래부모 검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건강검진 제외 대상인 청년의 건강권 보장
교육여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도서관 설치

정책 이슈	주요 정책 대상	주요 내용
전문화·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직업, 유망 직업, 취업 변화 정보 제공 - 직업 정보 교류의 장 제공 • 전문 기술·정보 중심 학원가 조성 - 언어, 기술, 정보활용 등
사회적 교류의 활성화	20대 *둔산2동, 용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Career Fair - 지역 대학과 거주 전문가pool 활용 - 전문 영역별 경력개발 Round Table Conference • 지역청년 ROOFTOP PARTY “쓸모 있는 만남” - 취업 목적이 아닌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임 - 시청사 옥상 활용 (대전시의회 옥상 텃밭 활용 사례) • 대전시 정보 활용과 홍보 앱 - 대전활용 100% - 서울시 사례 “서울을 가지세요” have.seoul.go.kr
개성 있는 문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외곽 지역을 활용한 문화시설 설치 - e-sports center 건립 - 야구장 건립 (구야구장 유소년 스포츠 센터로 활용) • 시청사 잔디밭 야외 결혼식장 운영 - 공공시설을 활용한 야외 결혼식장 대여 - 서울연구원 뒤뜰 작은 결혼식
쾌적한 주거	30대 초반 *효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증가 추세 대응 - 주거안정 후 자녀출산으로 연계 양상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내 녹지와 공원 면적의 확보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 뉴딜 - 미래 일자리 기금(The Future Jobs Fund) 조성 과 고용보조금 지원 - 공공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정책 이슈	주요 정책 대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협동조합-스스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컨설팅과 관리 - 첨단기술부터 근교 농업까지 아이템의 다양화
양육 여건의 양질화	30대 *원신흥동, 가수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노동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보육 보장 프로그램 실시 - 영아, 0세 보육 확대 • 아기 이름 지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세대를 위한 한자풀이 - 뜻과 유래를 알고 짓는 예쁜 영어이름 • 간편 유아차(유모차)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있는 가정에 접이식 유모차 장기 대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발굴과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시 근로시간 지표 강화 • 가족 단위 이용 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장, 체험학습장, 어린이도서관 등

- 대전을 활용하는 도시정보 어플리케이션부터 아기이름을 짓기 위한 컨설팅 제공 등 규모와 내용이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함
-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대상 주택정책 등 국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뿐 아니라 지역 여성친화기업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 등 자체추진 사업을 제안함
- 일자리 중심 청년세대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는 기회 제공 사업을 제안함

- 20,30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의 지리적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6-2]¹³⁾과 같음



[그림 6-2] 청년인구 정주지속 주요 과제의 지리적 위치

- 30대 인구가 집중한 원신흥동과 가수원동을 중심으로 유아차대여, 아기이름지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시청사 등 도심을 활용해 20대 청년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버스환승체계 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방안도 20,30대 밀집 거주 지역을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함

13) 청년협동조합 그림 출처 :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64641&sc_code=1395808058&page=&total=

- 동구 효동은 신항역을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용 주거지원과 기존의 공원녹지를 가족친화형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4) 청년인구 정주 지속을 위한 주요 사업¹⁴⁾ 내용

(1) 건강한 미래부모 검진 프로그램 운영

○ 현황과 필요성

- 현 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일반 청년인구는 의무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임
- 부모와 떨어져 학교 인근에서 자취 등을 하는 청년인구의 섭생 및 건강상태는 매우 열악함
- 일반 진료과목 외 부인과나 비뇨기과 진료 등은 청년세대에 낮설어 기피하는 경우 많음
- ‘미래부모’인 청년인구의 건강권 보장과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지원 필요함

○ 사업 내용

- 대학의 보건소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 운영
- 보건소는 행정실무를, MOU 체결한 관내 병원에서는 검진과 건강한 섭생 지도
- 청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 외에도 다양한 진료 (부인과 등) 과목의 혜택이 있도록 유도

14) 청년정책 또는 가족정책계획을 통해 제안된 사업 외 인구유입 관련한 정책 위주로 선정

(2) 직업도서관

○ 현황과 필요성

- 대학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직업이나 유망한 직업, 취업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도심 공간은 필요함
- 대학에만 한정되어 있는 진로상담지원 프로그램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게도 지원할 필요 있음
-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일자리 트렌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사업 내용

- 일자리를 알선하는 지원과 병행하는 직접 정보 제공
- 일자리 카페 ‘꿈터’ 운영 콘텐츠 확장
- 독특한 직업,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서 컬렉션, 정보 수집 결과물 (files & directories), 인터넷 자료 등 직업 선택 결정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제공
- “Film과 TV 영역 100가지 직업” “수학 영역의 101가지 직업” “음식과 영양 직업의 세계 입문” 등 직업 관련 도서 구비
- 대학을 떠난 청년들이 직업도서관에서 취업 정보를 탐독할 수 있는 일종의 독서 공간 제공



UC Berkeley의
Career Counselling Library



다양한 직업의 영역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버클리 대학의 직업도서관

[그림 6-3] 직업도서관 사례

(3) 지역인재 Career Fair

○ 현황과 필요성

- 과학기술인, 대학생, 외국인, 은퇴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이주해 있는 대전의 특성을 일자리 탐색 전략에 반영
- 20대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지역 거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기회
- 기업이 참여하는 직업박람회와는 다른 진로탐색 컨설팅 기회 마련

○ 사업 내용

- 지역 청년과 전문가를 매칭하는 Round Table Conference 형태
- 대규모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 개최와 병행하여 소규모 진로 탐색 영역별 컨퍼런스 토크를 마련하고, 영역에 따라 전문가 배치
- 영역별 소규모 컨퍼런스에서는 전공에 따른 전문가와의 집단상담 형태 진로 탐색 및 전략 토의

(4) ROOFTOP PARTY “쓸모 있는 만남”

○ 현황과 필요성

- 울산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미혼 청년들의 사교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 운영 모임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등 최근 청년의 만남 트렌드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맞선 형태)
-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청년인구의 요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으며,
- 청년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혼인과 지역사회 정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필요 있음

○ 사업 내용

-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Rooftop 파티 기획
- 시의회 옥상을 도심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시청 옥상을 활용해 청년을 위한 공연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



[그림 6-4] 청년교류정책과 ROOFTOP 카페 예시

(5) 대전도시활용 100% - “대전을 가져유”

○ 현황과 필요성

- 대전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포털 기능을 시청 홈페이지가 담당할 필요 있으나,
- 현 홈페이지는 통합 검색 알고리즘이 열악하여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쉽게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연령과 성별, 주거지 등 개인 특성에 맞는 정보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서울을 가지세요”)
- 대전도 개성 있는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개인 블로그 검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 내용

- 시 홈페이지 개편 혹은 대전시 활용을 위한 별도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정책과 서비스, 대전에 대한 정보 찾기 활성화 유도
- 클라우드 정보 공유 방식 활용 시민이 제공한 정보 공유
- “내가 가본 대전의 숨은 즐길 거리, 놀 거리” 정보 공유와 업로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의 “서울을 가지세요”
모바일 서비스

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 have Seoul.com

[그림 6-5] 종합정보포털 사례

(6) 공공기관 청사 및 잔디밭 활용 작은결혼식

○ 현황과 필요성

- 현 결혼식 문화를 개선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작은 결혼식’을 꾸준히 홍보하고 권장해 왔음
- 서울시의 시민청은 이미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작은 결혼식 으뜸 명소’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뒤뜰 야외 결혼식장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야외 결혼식장임
- 서울 시민청의 결혼식은 하루에 한번 예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해 예약률이 높음

○ 사업 내용

- 공공청사를 활용한 실내·외 작은 결혼식 추진
- 저렴한 대여비용 외에도 1일 1식 개최 원칙, 이벤트를 통한 폐백음식, 조명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제공



서울연구원 뒤뜰 작은 결혼식



성남시청사 잔디밭 야외결혼식

[그림 6-6] 공공기관 청사 활용 야외결혼식 사례

(7) 아기이름 지어주기 - 한자풀이에서 영어이름 짓기까지

○ 현황과 필요성

- 젊은 부부들이 출산 전후 부딪히는 고민 중 하나가 아기 이름 짓기임
- 한자에 익숙하지 않지만 한자 이름을 고민해야 하고, 때론 좋은 뜻을 지닌 순한글 이름을 원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한글 이름과 병행하거나 별칭으로 사용할 영어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작명소, 인터넷작명소 등 다양한 경로로 아기이름을 짓기 위해 애쓰는 젊은 부모들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사업 내용

-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풀이, 써야하는 한자 쓰지 말아야하는 한자, 한자조합 정보 제공
- 순한글 이름의 뜻과 유래 정보 제공
- 영어 이름의 뜻과 유래, 많이 쓰는 (발음을 고려한) 영어 이름, 한글 이름과 병행 가능한 영어 이름 정보 제공
- 작명 신청에 따른 컨설팅 제공

(8) 육아휴직 지원금

○ 현황과 필요성

- 중소기업 종사자 및 남성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급여가 보장되는 휴가 기간이 짧고 (남성의 경우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는 3일),
- 육아휴직의 경우 1년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대 100~1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정책으로 유급휴가 10일과 중소기업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힘
- 성평등한 육아,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이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사업 내용

-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빠출산·육아휴직 지원금” 조항 신설
- “대전시가 출산휴가 3일 더 드립니다” : 중소기업 남성 종사자 대상 출산휴가 급여 지원
- “대전시가 아빠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급여 지원

참고문헌

- 권태환·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석(2006), “시나리오 기법: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은 최적 정책 패키지 선정의 밑거름”. <국토> 통권 300호. 137~145.
- 김기현·하형석·신인철·배우진·손원빈(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균·박충훈·김수정·유보배(2017),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경기연구원.
- 김동영·조경욱·이중섭·황영모·송용호·김윤주(2016),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 전략>, 전북연구원.
- 김리영·양광식(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제3호. 1~20.
- 김상일·변미리·민보경·성수연(2016), <서울시 인구변화와 정책의제>, 서울연구원.
- 김세나(2014), <대구시 인구문제 진단과 정책과제>, 대구경북연구원.
- 민보경·변미리(2017),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전출입이동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 <서울도시연구> 제18권 제4호. 85~102.
- 박경숙(2017), <인구학 방법: 인구동태의 측정과 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선권(2017a),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박선권(2017b),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 97호, 국회입법조사처.
- 서옥순·김난주·장정재(2014), <부산시 일자리와 인구 간의 관계분석 및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이명진·최슬기(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병호·김가연·박민근·한승수·조강주·조영태·최진호(201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경기연구원.
- 이상호(2010),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45~70.
- 이영준·이수진(2016), “UJI턴 형태의 지방회귀 및 정주 결정 요인-아오모리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연구> 제24권 제2호. 163~180.
-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707~729.

이찬영·이흥후(2016), “청년층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제34권 제4호. 143~169.

임준홍·오용준·송두범·오혜정·김양중·김원철·김지훈(2017a),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 충남연구원.

임준홍·송두범·박철희·이관률·백운성·사공정희·김용현·김원철·박근오(2017b), <아산시 비전설정과 실천전략 연구>, 충남연구원.

정현욱·권창기·황진호·이주영·김승길·김재익(2015), <울산광역시 도시성장의 방향과 전략-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울산발전연구원.

조상필(2016),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방안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최석현·이병호·박정훈(2016),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경기연구원.

최용환(2017), <지역소멸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과제>, 충북연구원.

최종렬(2017), “‘복학왕’의 사회학-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분석”. <한국사 회학> 제51집 제1호. 243~293.

홍성효·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1~19.

황규선(2011), <강원도 인구이동 실태 및 특성 분석>,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종합복지신문 김희은(2017), 비혼 2030세대 강원도 정주의식, 여성이 남성보다 낮아.

URL : <http://www.gwelfar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

국민일보 박상은(2018), [And 트렌드] “그래, 이게 행복이지” 소확행에 위로받는 2030.

URL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5245&code=11131100&sid1=soc>
비즈니스워치 김보라(2017), 빅데이터로 알아본 경제이슈 '비혼 왜 늘까'.

URL :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7/10/20/0006>

오마이뉴스 정민규(2013), '청년유니온' 부산에서도 설립 가능할까?.

UR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2796

조선일보 안상현 외(2018), 노인 보는 청년 시선이 어둡다.

UR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7/2018031700236.html

중앙선데이 한은화(2017), 명칭·쓸쓸·시발비용을 아시나요.

URL : <http://news.join.com/article/21429967>

프레스리안 홍민지(2017), "일자리 때문에" 울산 청년인구 3년간 1186명 떠나.

URL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9040>

한겨레(2017), [한겨레 사설] 청년빈곤의 핵심 '주거문제' 대응 서둘러야.

URL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3761.html#csidx647991a3756ealb462468105df12>

한겨레 황보연 외(2016), 20대 남성들 “나는 군대가고 취업도 힘든데...” 비뚤어진 표적.

URL : <http://www.hani.co.kr/arti/745321.html#csidx8d067181af094e6acd6118f17e78a40>

한겨레21 변지민(2018), “우리는 민주화했는데 청년들은 겨우 집 달라고?”.

URL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309.html

한국일보 박재현(2018), [노멀크러시] 2030 “월급 300만원과 연 1회 해외여행이면 성공한 삶”.

URL : <http://hankookilbo.com/v/19533dc4e7e449f59d003c196adeb391>

한국일보 오희수(2018), [노멀크러시] 액체괴물 주무르며 쉬는 2030, 화려한 건 촌스러워.

URL : <http://hankookilbo.com/v/4afbc9daa3bc4b28857f6840e4146e97>

히프포스트코리아 뉴스1(2018), 새해 소비 트렌드는 '운동'에서 '덕질'로 옮겨가고 있다.

URL : https://www.huffingtonpost.kr/2018/01/02/story_n_18925042.html

MEDIA SK(2018), 소비 트렌드가 변한다, 가성비 보다 ‘가심비’.

URL : <http://mediask.co.kr/35742>

The Fact 김소희(2018), [혼돈의 2030세대③] "결혼요? 선택이죠..." '비혼'에 내몰리는 청년들.

URL : <http://news.tf.co.kr/read/life/1712681.html>

부록 1 대전 청년인구 현황과 이동표

[부표 1-1] 공간범위별 대전 2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5)

수도권 이동		충청권 이동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서울(4,251명)	서울(5,998명)	세종(807명)		세종(3,543명)	
경기(4,119명)	경기(4,513명)	충북	청주시(1,114명)	충북	청주시(1,182명)
인천(798명)	인천(816명)		옥천군(329명)		옥천군(280명)
			영동군(239명)		영동군(196명)
			기타(728명)		기타(625명)
		충남	천안시(883명)	충남	천안시(1,023명)
			논산시(660명)		논산시(515명)
			공주시(514명)		공주시(501명)
			기타(2,785명)		기타(2,394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5)

주 : 20대는 만 19세-2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부표 1-2] 공간범위별 대전 3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5)

수도권 이동		충청권 이동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경기(3,713명)	경기(3,853명)	세종(867명)		세종(6,237명)	
서울(3,457명)	서울(2,726명)	충북	청주시(892명)	충북	청주시(1,000명)
인천(669명)	인천(601명)		옥천군(273명)		옥천군(257명)
			영동군(155명)		영동군(127명)
			기타(324명)		기타(397명)
		충남	천안시(574명)	충남	천안시(595명)
			금산군(430명)		계룡시(424명)
			논산시(418명)		논산시(378명)
			기타(1,750명)		기타(1,893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5)

주 :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부표 1-3] 공간범위별 대전 2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6)

시내이동 (구간이동)	수도권 이동		충청권 이동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온천2동→온천2동 (635명)	서울 (4,320명)	서울 (6,579명)	세종(960명)		세종(2,930명)	
온천1동→온천1동 (537명)	경기 (4,234명)	경기 (4,636명)	충북	청주시 (1,230명)	충북	청주시 (1,136명)
관저2동→관저2동 (444명)	인천 (804명)	인천 (830명)		옥천군 (349명)		옥천군 (246명)
갈마2동→갈마2동 (439명)				충주시 (282명)		영동군 (220명)
탄방동→탄방동 (388명)				기타 (862명)		기타 (608명)
구즉동→구즉동 (360명)			충남	천안시 (891명)	충남	천안시 (1,023명)
신성동→신성동 (347명)				논산시 (677명)		논산시 (548명)
괴정동→괴정동 (339명)				공주시 (540명)		공주시 (528명)
원신흥동→원신흥동 (312명)				기타 (2,855명)		기타 (2,319명)
진잠동→진잠동 (291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6)

주 : 20대는 만 19세-2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부표 1-4] 공간범위별 대전 30대 인구 이동 상위 네트워크(2016)

시내이동 (구간이동)	수도권 이동		충청권 이동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원신흥동→원신흥동 (688명)	경기 (3,462명)	경기 (3,605명)	세종(1,135명)		세종(4,161명)	
관저2동→관저2동 (625명)	서울 (3,192명)	서울 (2,580명)	충북	청주시 (818명)	충북	청주시 (837명)
구즉동→구즉동 (553명)	인천 (609명)	인천 (555명)		옥천군 (248명)		옥천군 (204명)
가수원동→가수원동 (480명)				영동군 (180명)		영동군 (167명)
신성동→신성동 (454명)				기타 (395명)		기타 (345명)
온천2동→온천2동 (441명)			충남	천안시 (495명)	충남	천안시 (624명)
온천1동→온천1동 (438명)				논산시 (470명)		논산시 (384명)
노은3동→노은3동 (417명)				금산군 (406명)		계룡시 (364명)
탄방동→탄방동 (405명)				기타 (1,632명)		기타 (1,777명)
진잠동→진잠동 (385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6)

주 :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부표 1-5] 최근 3년간 대전 20-30대 인구의 수도권 이동

수도권 이동											
20대						30대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전입	대전전출	대전전입	대전전출
서울 (4,251명)	서울 (5,998명)	서울 (4,320명)	서울 (6,579명)	경기 (4,255명)	서울 (6,665명)	경기 (3,713명)	경기 (3,853명)	경기 (3,462명)	경기 (3,605명)	경기 (3,214명)	경기 (3,509명)
경기 (4,119명)	경기 (4,513명)	경기 (4,234명)	경기 (4,636명)	서울 (4,151명)	경기 (4,755명)	서울 (3,457명)	서울 (2,726명)	서울 (3,192명)	서울 (2,580명)	서울 (2,850명)	서울 (2,748명)
인천 (798명)	인천 (816명)	인천 (804명)	인천 (830명)	인천 (863명)	인천 (925명)	인천 (669명)	인천 (601명)	인천 (609명)	인천 (555명)	인천 (559명)	인천 (523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주 : 20대는 만 19세-29세,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부표 1-6] 최근 3년간 대전 20대 인구의 충청권 이동

20대 충청권 이동											
2015년				2016년				2017년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세종(807명)		세종(3,543명)		세종(960명)		세종(2,930명)		세종(1,267명)		세종(3,968명)	
충북	청주시 (1,114명)	충북	청주시 (1,182명)	충북	청주시 (1,230명)	충북	청주시 (1,136명)	충북	청주시 (1,211명)	충북	청주시 (1,225명)
	옥천군 (329명)		옥천군 (280명)		옥천군 (349명)		옥천군 (246명)		옥천군 (348명)		옥천군 (260명)
	영동군 (239명)		영동군 (196명)		충주시 (282명)		영동군 (220명)		영동군 (294명)		영동군 (180명)
	기타 (728명)		기타 (625명)		기타 (862명)		기타 (608명)		기타 (826명)		기타 (602명)
충남	천안시 (883명)	충남	천안시 (1,023명)	충남	천안시 (891명)	충남	천안시 (1,023명)	충남	천안시 (937명)	충남	천안시 (1,019명)
	논산시 (660명)		논산시 (515명)		논산시 (677명)		논산시 (548명)		논산시 (697명)		공주시 (463명)
	공주시 (514명)		공주시 (501명)		공주시 (540명)		공주시 (528명)		공주시 (588명)		논산시 (438명)
	기타 (2,785명)		기타 (2,394명)		기타 (2,855명)		기타 (2,319명)		기타 (2,922명)		기타 (2,251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주 : 20대는 만 19세-2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부표 1-기 최근 3년간 대전 30대 인구의 충청권 이동

30대 충청권 이동											
2015년				2016년				2017년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대전으로의 전입		대전에서 전출	
세종(867명)		세종(6,237명)		세종(1,135명)		세종(4,161명)		세종(1,473명)		세종(5,473명)	
충북	청주시 (892명)	충북	청주시 (1,000명)	충북	청주시 (818명)	충북	청주시 (837명)	충북	청주시 (810명)	충북	청주시 (780명)
	옥천군 (273명)		옥천군 (257명)		옥천군 (248명)		옥천군 (204명)		옥천군 (280명)		옥천군 (168명)
	영동군 (155명)		영동군 (127명)		영동군 (180명)		영동군 (167명)		영동군 (165명)		영동군 (162명)
	기타 (324명)		기타 (397명)		기타 (395명)		기타 (345명)		기타 (372명)		기타 (415명)
충남	천안시 (574명)	충남	천안시 (595명)	충남	천안시 (495명)	충남	천안시 (624명)	충남	천안시 (480명)	충남	천안시 (622명)
	금산군 (430명)		계룡시 (424명)		논산시 (470명)		논산시 (384명)		금산군 (415명)		계룡시 (428명)
	논산시 (418명)		논산시 (378명)		금산군 (406명)		계룡시 (364명)		논산시 (354명)		아산시 (362명)
	기타 (1,750명)		기타 (1,893명)		기타 (1,632명)		기타 (1,777명)		기타 (1,628명)		기타 (1,628명)

자료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주 :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은 이동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부록 2 대전 거주 청년인구의 정주 여건과 전망 조사지

대전 거주 청년 인구의 정주 여건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만 19세~39세)가 생각하는 정주 여건과 전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전시 청년 정책 관련 활동가 참여자 및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귀하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문항에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한 분들 중 선착순 100분께는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쿠폰을 증정해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18년 05월 17일 ~ 2018년 05월 27일

연구책임 :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042-530-3522)

문 의 : 이혜지·대전세종연구원 조사원 (042-530-3551)

* 필수항목

※ 본 설문조사는 연령대에 따라 크게 4개 부분(20대 초·후반, 30대 초·후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 성별과 관계 없이 모든 집단의 정주 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1번부터 12번까지 빠짐없이 응답해주시시오.)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해당 집단에 속하는 주변인들을 떠올리며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초반 청년(만19세~24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아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독널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독널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1-2.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독널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독널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20대 초반 청년들이 성별에 따라 달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자신의 성별과 상관 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3. 일반적인 20대 초반 남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독널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독널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1-4. 일반적인 20대 초반 여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독널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독널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2. 2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를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2-1.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2-2.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2-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또 대전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3. 20대 초반(만 19세~ 만 24세) 청년이 앞으로 대전에 머무를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가 2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로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3-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3-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3. 20대 초반(만 19세~ 만 24세) 청년이 대전을 떠날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가 2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로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3-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3-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20대 후반 청년(만25세~29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아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4-1.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가족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4-2.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가족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20대 후반 청년들이 성별에 따라 달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자신의 성별과 상관 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4-3. 일반적인 20대 후반 남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폭넓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4-4. 일반적인 20대 후반 여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폭넓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5. 2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5-1.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 일급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5-2.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 일급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5-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 아니요

**6. 20대 후반(만 25세~만 29세) 청년이 앞으로 대전에 머무른 것
이라고 선택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6-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6-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2순위)**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6. 20대 후반(만 25세~만 29세) 청년이 대전을 떠날 것 이라고 선택
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6-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6-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녹지)
- 기타: _____

30대 초반 청년(만30세~34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아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7-1.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정통,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특별한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특별한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7-2.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정통,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특별한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특별한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30대 초반 청년들이 성별에 따라 달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성별과 상관 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7-3. 일반적인 30대 초반 남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정통,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특별한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특별한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7-4. 일반적인 30대 초반 여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정통,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특별한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특별한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8. 3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8-1.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 일급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도시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8-2.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 일급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도시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8-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9. 30대 초반(만 30세~ 만 34세) 청년이 앞으로 대전에 머무를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9-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9-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9. 30대 초반(만 30세~ 만 34세) 청년이 대전을 떠날 것 이라고 선택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9-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9-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30대 후반 청년(만35세~39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아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순위가 있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10-1.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폭넓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10-2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폭넓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30대 후반 청년이 성별에 따라 달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자신의 성별과 상관 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10-3. 일반적인 30대 후반 남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폭넓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10-4. 일반적인 30대 후반 여성 청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

- 소득(경제적 자립, 자산 형성)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평등,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 사랑 또는 연애
- 가족과 보내는(가족을 돌보는) 시간
- 폭넓은 사회적 교류(인맥형성 등)
- 폭넓은 문화 향유(문화예술 소비 등)
- 재미와 즐거움(유희, 오락, 레저 등)
- 외모 가꾸기
- 건강
- 기타: _____

11. 3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순위가 있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세요

11-1.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세요

- 소득·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복지)
- 기타: _____

11-2.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토지 가격
- 물가·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복지)
- 기타: _____

11-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12. 30대 후반(만 35세~ 만 39세) 청년이 대전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
고 선택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의 2순위까지 선택해주시고,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시고요.

**12-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시고요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12-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 살게 된다면, 그 이유(매력, 장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2순위)**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의 교류(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수혜
- 문화(기반 시설) 수혜
- 의료(기반 시설) 수혜
- 쾌적한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12. 30대 후반(만 35세~ 만 39세) 청년이 대전을 떠날 것 이라고 선
택한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해주시고, 2순위가 없다면 1순위만 응답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의견을 기입해주시고요.

**12-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순위) ***

1순위는 필수로 응답해주시고요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12-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순위)**

- 소득 임금
- 취업 기회(고용 가능성)
- 본인 교육(학업 여건)
- 자녀 교육(양육 여건)
- 교통 여건(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등)
- 주택 토지 가격
- 물가 생활비
-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연애 등)
- 복지(기반 시설) 부족
- 문화(기반 시설) 부족
- 의료(기반 시설) 부족
- 쾌적하지 않은 환경(자연 녹지)
- 기타: _____

청년 인구(만 19세~39세)의 대전지역 정주 지속 및 유입을 위한 추가 의견

먼저 긴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항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귀하의 의견은 대전광역시 인구 및 청년 정책 연구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항까지 성실히 응답해주셔야 경품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인구가 대전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 *

내 답변 _____

응답자 정보

성별 *

선택 ▼

연령 (만 나이) *

내 답변 _____

대전지역 거주 기간 *

대략적인 거주 기간을 '년' 단위로 숫자만 입력해주시요. (EX.3.5년)

내 답변 _____

경품 수령을 위한 휴대폰 번호

경품 수령을 원하는 응답자만 입력해주시요.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경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내 답변 _____

부록 3 대전 거주 청년인구의 정주 여건과 전망 결과표

[부표 3-1]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101	45.3
2	재미와 즐거움	37	16.6
3	사랑 또는 연애	34	15.2
4	폭 넓은 사회적 교류	22	9.9
5	폭 넓은 문화 향유	15	6.7
6	외모 가꾸기	6	2.7
7	사회적 지위나 명예	2	0.9
8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	0.4
	기타	5	2.3
	합계	223	100
기타	취업(2), 학업(2), 분류불가_교육진학취업(1)		

[부표 3-2]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사랑 또는 연애	52	23.4
2	폭 넓은 사회적 교류	38	17.1
3	재미와 즐거움	36	16.2
4	소득	34	15.3
5	폭 넓은 문화 향유	23	10.4
6	외모 가꾸기	16	7.2
7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3	5.9
8	사회적 지위나 명예	5	2.3
9	가족과 보내는 시간	3	1.4
10	건강	1	0.5
	기타	1	0.5
	합계	222	
기타	자기개발(1)		

[부표 3-3] 일반적인 20대 초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재미와 즐거움	68	30.5
2	사랑 또는 연애	61	27.4
3	소득	53	23.8
4	폭 넓은 사회적 교류	11	4.9
5	사회적 지위나 명예	10	4.5
6	폭 넓은 문화 향유	7	3.1
7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6	2.7
8	외모가꾸기	4	1.8
9	가족과 보내는 시간	1	0.4
	기타	2	2.3
	합계	223	
기타	군입대(2)		

[부표 3-4] 일반적인 20대 초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외모 가꾸기	63	28.3
2	사랑 또는 연애	50	22.4
3	소득	31	13.9
4	폭넓은 문화 향유	24	10.8
5	폭넓은 사회적 교류	20	9.0
6	재미와 즐거움	13	5.8
7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0	4.5
8	사회적 지위나 명예	6	2.7
9	가족과 보내는 시간	2	0.9
10	건강	1	0.4
	기타	3	2.3
	합계	223	
기타	취업(2), 학업(1)		

[부표 3-5]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본인 교육	86	38.5
2	가족	73	33.2
3	취업 기회	13	5.8
4	물가, 생활비	10	4.5
5	교통 여건	8	3.6
6	쾌적한 환경	6	2.7
6	소득, 임금	6	2.7
7	주택 토지 가격	4	1.8
8	문화 기반 시설	3	1.3
8	자녀 교육	3	1.3
9	의료 기반 시설	2	0.9
10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1	0.4
11	복지	1	0.4
	기타	7	3.1
	합계	223	
기타	개인사정(1),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귀찮아서(1), 고향(2), 원래 살던 지역 익숙해서(3)		

[부표 3-6] 일반적인 2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가족	62	28.2
2	본인 교육	48	21.4
3	물가 생활비	28	12.7
4	교통 여건	22	10
5	쾌적한 환경	17	7.7
6	취업 기회	16	7.3
7	주택 토지 가격	8	3.6
8	소득, 임금	7	3.2
9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5	2.3
10	문화 기반 시설	3	1.4
11	의료 기반 시설	2	0.9
12	자녀 교육 여건	2	0.9
	기타	0	0.0
	합계	220	100
기타			

[부표 3-7]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구분	응답자(명)	비율(%)
예	120	53.8
아니오	103	46.2
합계	223	100.0

[부표 3-8]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살게 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본인 교육	21	17.5
2	교통 여건	20	16.7
3	가족	18	15
4	취업 기회	16	13.3
5	물가, 생활비	13	10.8
6	쾌적한 환경	8	6.7
7	주택, 토지 가격	8	6.7
8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4	3.3
9	복지 기반 시설	3	2.5
9	소득, 임금	3	2.5
10	문화 기반 시설	2	1.7
10	자녀 교육 여건	2	1.7
	기타	2	
	합계	120	100
기타	이유 없음 (1), 타지역에서 취업을 못해서 (1)		

[부표 3-9]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살게 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가족	22	17.9
2	물가, 생활비	19	16.2
3	교통 여건	16	13.7
4	본인 교육	14	12.0
5	취업 기회	11	9.4
6	주택, 토지 가격	9	7.7
6	쾌적한 환경	9	7.7
7	소득, 임금	5	4.3
8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4	3.4
9	자녀 교육 여건	2	1.7
9	문화 기반 시설	2	1.7
9	의료 기반 시설	2	1.7
	복지	2	1.7
	기타	0	
	합계	117	100
기타			

[부표 3-1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취업 기회	77	74.8
2	소득, 임금	15	14.6
3	문화 기반 시설 부족	5	4.9
4	복지 기반 시설 부족	2	1.9
4	가족	2	1.9
5	쾌적하지 않은 자연 환경	1	1.0
5	교통 여건	1	1.0
	기타	0	
	합계	103	100
기타			

[부표 3-1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이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임금	31	31.6
2	문화 시설 부족	23	23.4
3	취업 기회	16	16.3
4	본인 교육	11	11.2
5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	7	7.1
6	가족	3	3.1
7	주택, 토지 가격	2	2.0
8	교통 여건	1	1.0
8	물가, 생활비	1	1.0
8	자녀 교육 여건	1	1.0
8	복지 기반 시설 부족	1	1.0
8	쾌적하지 않은 환경	1	1.0
	기타	0	
	합계	98	100
기타			

[부표 3-12]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172	77.1
2	사회적 지위나 명예	11	4.9
3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9	4.0
3	폭넓은 문화 향유	9	4.0
4	사랑 또는 연애	7	3.1
5	폭넓은 사회적 교류	6	2.7
6	가족	4	1.9
7	외모 가꾸기	3	1.3
8	재미와 즐거움	2	0.9
	기타	0	
	합계	223	100
기타			

[부표 3-13]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사회적 지위나 명예	48	22.2
2	폭넓은 사회적 교류	43	19.9
3	소득	37	17.1
3	사랑 또는 연애	36	16.7
4	폭넓은 문화 향유	20	9.3
5	가족	12	5.6
6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9	4.2
7	재미와 즐거움	6	2.8
8	외모 꾸기	2	0.9
	건강	1	0.5
	기타	2	
	합계	216	
기타	자기개발(1), 취업(1)		

[부표 3-14] 일반적인 20대 후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130	58.3
2	사회적 지위나 명예	35	15.7
3	사랑 또는 연애	17	7.6
3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1	4.9
4	폭넓은 사회적 교류	10	4.5
5	폭넓은 문화 향유	6	2.7
6	가족	5	2.2
7	재미와 즐거움	5	2.2
8	외모 가꾸기	3	1.3
9	건강	1	0.4
	기타	0	
	합계	223	
기타			

[부표 3-15] 일반적인 20대 후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113	50.7
2	사랑 또는 연애	35	15.7
3	폭넓은 문화 향유	23	10.3
4	사회적 지위나 명예	20	9.0
5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9	4.0
6	외모 가꾸기	8	3.6
7	폭넓은 사회적 교류	6	2.7
8	재미와 즐거움	4	1.8
9	가족	3	1.3
10	건강	2	0.9
	기타	0	
	합계	223	
기타			

[부표 3-16]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가족	51	22.8
2	취업 기회	43	18.8
3	소득, 임금	29	13.0
4	본인 학업	27	12.1
5	물가, 생활비	23	10.3
6	주택, 토지 가격	20	9.0
7	교통 여건	14	6.3
8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4	1.8
9	자녀 교육 여건	3	1.3
10	문화 기반 시설	2	0.9
11	복지 기반 시설	1	0.4
11	쾌적한 환경	1	0.4
11	의료 기반 시설	1	0.4
	기타	4	1.8
	합계	223	100.0
기타	어쩔 수 없이(1), 익숙해서(2) 기회가 없어서(1)		

[부표 3-17] 일반적인 2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물가, 생활비	34	16.0
2	취업 기회	32	14.6
3	가족	30	13.6
4	소득, 임금	25	11.7
5	본인 교육	23	10.8
6	교통 여건	21	9.9
7	주택, 토지 가격	17	8.0
8	쾌적한 환경	10	4.7
9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9	4.2
10	복지 기반 시설	4	1.9
10	자녀 교육	4	1.9
11	문화 기반 시설	3	1.4
12	의료 기반 시설	1	0.5
	합계	213	
기타			

[부표 3-18]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구분	응답자(명)	비율(%)
예	133	59.6
아니오	90	40.4
합계	223	100.0

[부표 3-19]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거주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취업 기회	25	18.8
2	물가, 생활비	20	15.0
2	주택, 토지 가격	20	15.0
3	교통 여건	19	14.3
4	소득, 임금	14	10.5
5	가족	13	9.8
6	본인 교육	11	8.3
7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4	3.0
7	쾌적한 환경	4	3.0
8	복지 기반 시설	2	1.5
9	문화 기반 시설	1	0.8
	합계	133	
기타			

[부표 3-2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계속 대전에 거주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가족	21	16.8
2	취업 기회	17	13.6
3	주택, 토지 가격	17	13.6
2	교통 여건	15	12.0
4	소득, 임금	14	11.2
5	물가, 생활비	14	11.2
6	쾌적한 환경	6	4.8
7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4	3.2
7	복지 기반 시설	4	3.2
7	본인 교육	4	3.2
7	자녀 교육	4	3.2
8	문화 기반 시설	3	2.4
9	의료 기반 시설	1	0.8
	합계	124	100
기타			

[부표 3-2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취업 기회	44	48.9
2	소득, 임금	31	34.4
3	문화 기반 시설	5	5.6
4	자녀 교육	3	3.3
5	주택, 토지 가격	2	2.2
5	교통 여건	2	2.2
6	물가, 생활비	1	1.1
6	본인 교육	1	1.1
6	기타	1	1.1
	합계	89	100
기타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짐(1)		

[부표 3-2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취업 기회	30	34.1
2	소득, 임금	17	20.0
3	문화 기반 시설 부족	13	15.3
4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	6	7.1
5	복지 기반 시설 부족	4	4.7
5	자녀 교육	4	4.7
5	본인 교육	4	4.7
6	주택, 토지 가격	3	3.5
7	물가, 생활비	2	2.4
7	가족	2	2.4
	합계	85	100
기타			

[부표 3-23]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140	62.8
2	사회적 지위나 명예	27	12.1
3	가족	21	9.4
4	폭넓은 사회적 교류	11	4.9
5	사랑 또는 연애	8	3.6
5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8	3.6
6	외모 가꾸기	3	1.3
6	재미와 즐거움	3	1.3
7	폭넓은 문화 향유	2	0.9
	합계	223	100
기타			

[부표 3-24]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사회적 지위나 명예	63	29.3
2	소득	44	20.5
3	사랑 또는 연애	23	10.7
3	가족	23	10.7
4	폭넓은 사회적 교류	22	10.2
5	폭넓은 문화 향유	20	9.3
6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1	5.1
7	건강	6	2.8
8	재미와 즐거움	2	0.9
9	외모 가꾸기	1	0.5
	합계	215	100
기타			

[부표 3-25] 일반적인 30대 초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122	54.7
2	사회적 지위나 명예	38	17.0
3	사랑 또는 연애	16	7.2
4	가족	13	5.8
5	폭넓은 사회적 교류	12	5.4
6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8	3.6
7	재미와 즐거움	7	3.1
8	폭넓은 문화 향유	6	2.7
9	외모 가꾸기	1	0.4
	합계	223	100
기타			

[부표 3-26] 일반적인 30대 초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89	39.9
2	사랑 또는 연애	45	20.2
3	가족	24	10.8
4	사회적 지위나 명예	22	9.9
5	폭넓은 문화 향유	15	6.7
6	폭넓은 사회적 교류	12	5.4
7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7	3.1
8	재미와 즐거움	6	2.7
9	외모 가꾸기	2	0.9
10	건강	1	0.4
	합계	223	100
기타			

[부표 3-27]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49	22.0
2	취업 기회	38	17.0
3	가족	33	14.8
4	주택, 토지 가격	32	14.3
5	물가, 생활비	30	13.5
6	교통 여건	12	5.4
7	자녀 교육	10	4.5
8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7	3.1
9	본인 교육	6	2.7
10	쾌적한 환경	3	1.3
11	문화 기반 시설	2	0.9
	기타	1	0.4
	합계	223	100
기타	살던 곳 이라서(1)		

[부표 3-28] 일반적인 30대 초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물가, 생활비	38	18.0
2	가족	33	15.6
3	소득, 임금	29	13.7
4	취업 기회	26	12.3
3	교통 여건	22	10.4
6	주택, 토지 가격	21	10.0
7	자녀 교육	17	8.1
8	쾌적한 환경	8	3.8
9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7	3.3
10	복지 기반 시설	4	1.9
11	문화 기반 시설	3	1.4
12	본인 교육	3	1.4
	기타	0	0.0
	합계	211	100
기타			

[부표 3-29]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구분	응답자(명)	비율(%)
예	162	72.6
아니오	61	27.4
합계	223	100

[부표 3-3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대전에 거주 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임금	34	21.0
2	물가, 생활비	26	16.0
3	주택, 토지 가격	25	15.4
4	취업 기회	21	13.0
5	가족	15	9.3
6	교통 여건	13	8.0
7	자녀 교육	9	5.6
8	본인 교육	8	4.9
9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4	2.5
10	문화 기반 시설	2	1.2
11	쾌적한 환경	1	0.6
	기타	4	2.4
	합계	162	100
기타	대부분 공무원, 연구원 등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직종이 많음(1), 살던 곳 이어서(1), 고향(1),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1).		

[부표 3-3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도 대전에
거주 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물가, 생활비	25	16.7
2	소득, 임금	24	16.0
3	가족	23	15.3
4	주택, 토지 가격	17	11.3
5	취업 기회	16	10.6
6	교통 여건	14	9.3
7	자녀 교육	11	7.3
8	쾌적한 환경	6	4.0
9	복지 기반 시설	4	2.7
10	의료 기반 시설	3	2.0
10	본인 교육	3	2.0
10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3	2.0
11	문화 기반 시설	1	0.7
	기타	0	0.0
	합계	150	100
기타			

[부표 3-3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취업 기회	26	42.6
2	소득, 임금	19	31.1
3	문화 기반 시설 부족	8	13.1
4	자녀 교육	2	3.3
5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	2	3.3
6	교통 여건	1	1.6
7	본인 교육	1	1.6
8	물가, 생활비	1	1.6
9	가족	1	1.6
	기타	0	0
	합계	61	100
기타			

[부표 3-3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취업 기회	19	32.8
2	소득, 임금	14	24.1
3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	8	13.8
4	문화 기반 시설 부족	5	8.6
5	복지 기반 시설 부족	2	3.4
5	자녀 교육	2	3.4
5	주택, 토지 가격	2	3.4
6	물가, 생활비	1	1.7
6	본인 교육	1	1.7
6	교통 여건	1	1.7
6	쾌적하지 않은 환경	1	1.7
6	가족	1	1.7
	기타	1	0
	합계	58	100
기타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1)		

[부표 3-34]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89	39.9
2	가족	47	21.1
3	사회적 지위나 명예	45	20.2
3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1	4.9
4	사랑 또는 연애	9	4.0
5	폭넓은 문화 향유	7	3.1
5	폭넓은 사회적 교류	7	3.1
5	건강	4	1.8
6	재미와 즐거움	3	1.3
6	외모 가꾸기	1	0.4
	기타		0
	합계	223	100
기타			

[부표 3-35]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의 관심사(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사회적 지위나 명예	50	23.4
2	소득	43	20.1
3	가족	37	17.3
4	폭넓은 사회적 교류	26	12.1
5	사랑 또는 연애	18	8.4
6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3	6.1
7	폭넓은 문화 향유	12	5.6
8	재미와 즐거움	7	3.3
9	건강	6	2.8
10	외모 가꾸기	2	0.9
	기타	0	0
	합계	214	100
기타			

[부표 3-36] 일반적인 30대 후반 남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89	39.9
2	사회적 지위나 명예	49	22.0
3	가족	24	10.8
4	사랑 또는 연애	12	5.4
5	폭넓은 사회적 교류	12	5.4
6	폭넓은 문화 향유	10	4.5
7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0	4.5
8	재미와 즐거움	10	4.5
9	건강	6	2.7
10	외모 가꾸기	1	0.4
	기타	0	0
	합계	223	100
기타			

[부표 3-37] 일반적인 30대 후반 여성 청년의 관심사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가족	76	34.1
2	소득	56	25.1
3	폭넓은 문화 향유	23	10.3
4	사랑 또는 연애	20	9.0
5	사회적 지위나 명예	16	7.2
6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12	5.4
7	폭넓은 사회적 교류	9	4.0
8	건강	6	2.7
9	재미와 즐거움	4	1.8
10	외모 가꾸기	1	0.4
	기타	0	0
	합계	223	100
기타			

[부표 3-38]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60	26.9
2	가족	34	15.2
3	자녀 교육	33	14.8
4	주택, 토지 가격	28	12.6
5	취업 기회	21	9.4
6	물가, 생활비	17	7.6
7	교통 여건	13	5.8
8	쾌적한 환경	4	1.8
8	본인 교육	4	1.8
8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4	1.8
9	복지 기반 시설	2	0.9
	기타	3	1.3
	합계	223	100
기타	무엇이든 무난해서(1), 거주하는곳이 대전이라(1), 자리 잡은 곳이라서(1)		

[부표 3-39] 일반적인 30대 후반 청년이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물가, 생활비	39	18.6
2	자녀 교육	32	15.2
3	가족	31	14.8
4	주택, 토지 가격	27	12.9
5	소득, 임금	20	9.5
6	교통 여건	19	9.0
7	취업 기회	17	8.1
8	본인 교육	8	3.8
8	쾌적한 환경	8	3.8
9	복지 기반 시설	4	1.9
10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3	1.4
11	문화 기반 시설	1	0.5
	기타	1	0
	합계	210	100
기타	부모님에게 자녀 양육 관련 도움을 받아서(1)		

[부표 3-40]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의 미래 대전 거주 전망

구분	응답	비율
예	171	76.7
아니오	52	23.3
합계	223	100

[부표 3-41]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대전에 계속 거주하게 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임금	36	21.1
2	가족	31	18.1
3	자녀 교육	30	17.5
4	주택, 토지 가격	19	11.1
5	물가, 생활비	18	10.5
6	교통 여건	13	7.6
7	취업 기회	12	7.0
8	쾌적한 환경	5	2.9
9	본인 교육	3	1.8
10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2	1.2
	기타	2	1.2
	합계	171	100
기타	무난한 환경(1), 타 지역으로 이동보다 현 지역에 머무는 것이 쉬워서(1)		

[부표 3-42]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대전에 계속 거주하게 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물가, 생활비	33	20.2
2	주택, 토지 가격	22	13.5
3	교통 여건	20	12.3
4	자녀 교육	19	11.7
5	가족	17	10.4
6	소득, 임금	15	9.2
7	취업 기회	10	5.5
8	쾌적한 환경	8	4.9
9	의료 기반 시설	6	3.7
10	복지 기반 시설	5	3.1
11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3	1.8
12	문화 기반 시설	2	1.2
12	본인 교육	2	1.2
	기타	1	0.6
	합계	150	100
기타	관계망이 이미 대전이라(1)		

[부표 3-43]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1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소득, 임금	19	36.5
2	취업 기회	16	30.8
3	문화 기반 시설 부족	5	9.6
4	복지 기반 시설 부족	3	5.8
5	자녀 교육	3	5.8
6	본인 교육	2	3.8
7	주택, 토지 가격	2	3.8
8	물가, 생활비	1	1.9
9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	1	1.9
	기타	0	0.0
	합계	52	100
기타			

[표 3-44]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이 앞으로도 대전을 떠나게 될 이유(2순위)

순위	보기	응답자(명)	비율(%)
1	취업 기회	13	25.5
2	소득, 임금	7	13.7
3	문화 기반 시설 부족	6	11.8
4	자녀 교육	6	11.8
5	복지 기반 시설 부족	5	9.8
6	사회적 교류 기회 부족	4	7.8
7	본인 교육	3	5.9
8	교통 여건	2	3.9
8	주택, 토지 가격	2	3.9
9	의료 기반 시설 부족	1	2.0
9	물가, 생활비	1	2.0
	기타	1	2.0
	합계	50	100
기타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1)		

[부표 3-45] 청년인구의 대전지역 정주 지속 및 유입을 위한 의견 중 ‘주거’를 언급한 주관식 응답

구분	번호	‘주거’ 관련 내용을 언급한 주관식 응답
높은 주거비	1	물가가 비싸지 않고 살기에 쾌적한 안정된 도시 대전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 경기도처럼 중소기업 근무 시 1억 자산 형성 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며,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마련이 쉽지 않아 대전에 살고 싶어도, 직장이 대전이라도,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낮은 세종에 집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을 해결한다면 대전은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주거비 청년주거 정책	2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청년 주거 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며,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만 인정이 되면 지원 가능토록 해주시길 바라봅니다.
주거비지원	3	집값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혜택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주택자금지원, 일자리지원
	5	거주환경을 좀 더 청년들이 살기에 금전적으로 좋게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더욱 늘려준다면 대전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6	주택 임대 매입 지원 및 물가안정
	7	물가 안정과 주거 혜택 필요
주거비	8	집 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주거 지원 정책	9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뿐 아니라 최저임금 받는 계층의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거주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
주거안정화	10	주거와 교육 등의 복지 안정화와 문화적 즐길 거리의 확충

주거안정	11	주택안전정책, 취업고용마련
청년주거 정책	12	확실한 청년 주거 정책이 해결된다면 대전에 오래 거주 할 것 같아요
	13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 주택 공급을 해야함
	14	청년 주거 확보와 일자리 고용에 대한 안정감 확보
청년주거 정책 임대주택 사업	15	취업할 곳이 많지 않아 20대 청년들이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임금이 높지 않아 30대가 가정을 꾸리는데 계속 거주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 주거대책(임대주택이 많이 생겨야 할 것) -문화 복지 관련 사업이 많아지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문화혜택도 늘어나서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30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임대주택 사업	16	대전의 일자리와 소득균형, 임대주택의 활성화
	17	LH주택사업 등의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린다.
내 집 마련	18	일자리 창출과 내 집 마련
	19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서비스직을 제외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전세	20	전세 집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21	대전 20대 청년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나 오락 등을 많이 유치시켜야 한다. 30대는 좋은 주거환경과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22	청년들의 주거환경개선,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불법건축물(빌라 불법 확장 및 쪼개기)단속 및 철거. 이를 모르는 사회 초년생 및 청년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편법(위장전입, 등)에 대한 확인과 단속이 필요.

[부표 3-46] 청년인구의 대전지역 정주 지속 및 유입을 위한 의견 중 '문화'를 언급한 주관식 응답

구분	번호	'문화' 관련 내용을 언급한 주관식 응답
문화생활 여건개선	1	문화 여건 개선과 취업기회향상
	2	자유로운 문화생활 마련
	3	주거와 교육 등의 복지 안정화와 문화적 즐길 거리의 확충
	4	문화 복지 시설이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
	5	문화 및 여가생활을 확충시키고 복지시설을 늘리는것
	6	다양한 문화를 위한 개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용과 이를 위한 정책
	7	일만 하며 지내는 도시가 아닌 사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동적 측면으로도 문화적 측면으로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쉽게 접근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 운영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	복지시설, 문화시설
	9	대전지역에서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년들의 인식에는 이제 여가와 같은 문화활동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화의 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조금 더 살고 싶은 대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다양한 문화 시설 기반 필요
	11	다양한 문화생활과 일자리
	12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원래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는 이유가 큼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취업/인맥/또는 문화생활이 활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있습니다. 다양한 대전의 문화와 취업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많이 홍보 해주신다면 더욱 대전에 거주할 거 같습니다
	13	문화와 복지제도의 활성화
	14	다양한 문화생활과 일자리가 형성돼야 할 것이고 복지나 교통이 좋아져야한다
	15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문화생활이 많이 유입되었으면 합니다.
	17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	풍부한 일자리와 넉넉한 소득, 문화생활복지
문화생활 여건개선- 인프라	19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기관 확충 및 홍보
	20	다양한 문화시설 설립
	21	고용과 문화시설 확충
	22	일자리 창출 및 문화생활 기반 구축 및 향상
	23	대전 문화시설 확대 및 청년사회활동지원
	24	서울처럼 다양한 문화와 오락 등 즐길 거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시설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또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 발전 가능한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전광역시이지만 규제나 법규에 가로 막혀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대전 시청의 탁상행정도 안타깝습니다.
	25	문화시설을 확대시키고 고용의 기회를 늘리는 것

	26	일자리&문화시설
	27	제발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
	29	임금인상, 일자리 늘리기, 문화시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문화생활 여건개선- 인프라, 문화 예술 지원, 청년 문화 활성화	30	문화시설의 확충과 문화생활(예술, 음식, 여행 등)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광역시 임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와 비교 했을 때 청년층의 취미활동이나 흥미를 끌 만한 제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생활 여건개선- 인프라	31	대전 20대 청년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나 오락 등을 많이 유치시켜야 한다.30대는 좋은 주거환경과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32	고용기회의 확대와 문화적 인프라가 확대되어야함
	33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문화시설증대
문화생활 여건개선 청년 문화 활성화	34	문화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문화의 경험 체험의 기회가 많아야 하겠고 청년들이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문화생활	35	문화생활이 더 다양해지면 좋겠습니다.

여건개선- 다양성		
문화생활 여건개선- 다양성, 축제	36	일자리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위해 타지로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알리고, 이색적인 문화들을 축제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큰 도시인데 전에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 여건개선- 특색 있는 놀 거리	37	청년 인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취업의 기회와 문화생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비싼 월세 내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대전에 거주하려면 1. 양질의 일자리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 아닌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스타트업 양성 혜택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대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의 기업이 성장하면 30대도 정착할만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2. 문화생활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대전을 살기 좋지만 재미없는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전은 기본적인 문화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색 있는 놀 거리가 부족하고 온통 체인점뿐인 곳입니다.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도록 공모전이나 후원 정책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대전에 정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은 이미 다른 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고 물가도 적당해서 살기엔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8	특별한 문화생성과 시민 문화의식 함양
문화생활 여건개선- 기회	39	다양한 놀 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문화-평소에 즐길 수 없는 문화체험
	40	대전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와 장 그리고 계속 머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들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충분히 홍보가 되어 많은 청년이 알고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	청년 취업 일자리 증가, 문화생활 많이 하게끔 연극, 전시회 많아지길

	42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 거리부족	43	대전에 놀 거리 볼거리 문화가 부족합니다. 관광도시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44	많은 혜택과 놀이 문화거리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45	다양한 취업 기회, 다양한 놀 거리(20대초),
놀 거리부족 문화생활 여건개선	46	대전청년들끼리 하는 말이 '대전은 정말 할 것이 없다' 입니다. 취업이든 소득이든 그 부분도 문제지만 즐길 곳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며 지역 트레이드마크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엑스포는 옛날 얘기지요
문화콘텐츠	47	안정적인 취업(낮지 않은 연봉) 다양한 문화 콘텐츠
문화 예술 인프라	48	1.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하고, 취업하고 싶은 매력적인 기업이 적다. 대기업을 대전 외곽이라도 유치해 청년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2. 문화향유 시설이 부족하다.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도 시설 미비로 음향이 실제 오케스트라가 아닌 기계 음향인 경우가 더러 있어, 서울 공연과 같은 금액으로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대전에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문화예술 지원	49	다양한 복지와 예술 문화 공연에 대한 지원
	50	공연, 예술분야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으면
청년 문화 활성화	51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기회 확대, 청년문화 형성, 대전하면 떠오르는 핵심 가치 문화 만들기 등 청년들이 바라볼 때 함께 해볼 만한 특색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2	청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제도가 필요합니다.
	53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문화기획 ,더 많은 공간과 더 많은 투자 그리고 홍보가 있다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문화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흥미롭게 도시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	젊은 층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일자리창조
	55	다양한 청년문화 증진
	56	다양한 청년문화활동
	57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나 오락시설이 더욱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8	청년들의 문화, 경제적 교류와 건강한 일자리 창출
	59	일자리와 청년문화발전
	60	청년들의 문화가 다양하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청년들에게도 홍보가 되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청년 문화 활성화-대전 외곽지역 활용, 지역 균형발전	61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발전이 먼저는 해야하고 대전 중앙 밀집 지역 외에도 외곽에도 발전시켜서 청년들이 굳이 타 지역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대전에 놀 것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pc방 노래방 영화관 카페 말곤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외곽 지역도 발전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하철 시스템도 반석지족 등 조금 대전에서 먼 곳도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서구 중구 중심이라 대덕구,동구, 유성구 등 다른 지역에도 지하철을 설치해서 다른 지역 부럽지 않게 지하철도 체계적으로 설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자리도 대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대부분 타지를 가는게 일반적이죠그래서 대전에도 일자리 확보를 많이 해두는게 청년들을 대전에 살 수 있게 하고 질적으로 높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62	일자리/복지나문화/교통편 제주도로 떠나는 이유 : 자연환경과 문화 서울로 떠나는 이유 : 일자리,문화,교통
-	63	문화를 위해 투자해주세요 재미없어 대전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	64	청년을 위한 정책, 더 나은 복지시설, 재미있는 문화생활

부록 4 2016-2017 대전시 사회조사 결과표

[부표 4-1]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 필요한 공공시설(2순위)-연령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의료시설 (공공병원,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공영주차시설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	도서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	기타	χ^2 (p)
전체	3418 (100.0)	262 (7.7)	497 (14.5)	545 (15.9)	815 (23.8)	549 (16.1)	346 (10.1)	205 (6.0)	198 (5.8)	1 (0.0)	
만19세-만24세	1088 (100.0)	59 (5.4)	159 (14.6)	157 (14.4)	261 (24.0)	149 (13.7)	124 (11.4)	88 (8.1)	91 (8.4)	0 (0.0)	78.481*** (.000)
만25세-만29세	863 (100.0)	81 (9.4)	127 (14.7)	128 (14.8)	211 (24.4)	131 (15.2)	84 (9.7)	43 (5.0)	58 (6.7)	0 (0.0)	
만30세-만34세	744 (100.0)	66 (8.9)	114 (15.3)	124 (16.7)	180 (24.2)	137 (18.4)	64 (8.6)	30 (4.0)	28 (3.8)	1 (0.1)	
만35세-만39세	723 (100.0)	56 (7.7)	97 (13.4)	136 (18.8)	163 (22.5)	132 (18.3)	74 (10.2)	44 (6.1)	21 (2.9)	0 (0.0)	

* : p<.05, ** : p<.01, *** : p<.001

[부표 4-2]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2030세대 전체)

	연령대	향후 정주 의사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대중교통 만족도- 지하철	대중교통 만족도- 택시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소득수준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연령대	1													
향후 정주 의사	.141*** .000	1												
주거환경 만족도	.081*** .000	.262*** .000	1											
대중교통 만족도-시내버스	.032 .062	.112*** .000	.331*** .000	1										
대중교통 만족도-지하철	.014 .415	.068*** .000	.213*** .000	.481*** .000	1									
대중교통 만족도-택시	.030 .070	.168*** .000	.230*** .000	.519*** .000	.486*** .000	1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014 .400	.088*** .000	.224*** .000	.166*** .000	.115*** .000	.136*** .000	1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060** .004	.033 .105	.159*** .000	.066** .003	.056* .015	.067** .001	.107*** .000	1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074*** .000	.052* .012	.120*** .000	.104*** .000	.049* .032	.081*** .000	.064** .002	.566*** .000	1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058** .005	.039 .058	.106*** .000	.116*** .000	.035 .128	.077*** .000	.029 .157	.460*** .000	.531*** .000	1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050* .015	.049* .016	.116*** .000	.145*** .000	.092*** .000	.101*** .000	.056** .007	.419*** .000	.450*** .000	.593*** .000	1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067** .001	.043* .038	.075*** .000	.113*** .000	.058* .011	.086*** .000	.059** .004	.365*** .000	.405*** .000	.459*** .000	.613*** .000	1		
소득수준 만족도	.075*** .000	.072*** .000	.244*** .000	.116*** .000	.044* .036	.101*** .000	.125*** .000	.624*** .000	.421*** .000	.338*** .000	.340*** .000	.286*** .000	1	
소비생활 만족도	.072*** .000	.082*** .000	.255*** .000	.111*** .000	.060** .001	.067*** .000	.122*** .000	.375*** .000	.336*** .000	.284*** .000	.294*** .000	.266*** .000	.533*** .000	1

* : p<.05, ** : p<.01, *** : p<.001

[부표 4-3]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24세미만)

	향후 정주 의사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대중교통 만족도-지하철	대중교통 만족도-택시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소득수준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향후 정주 의사	1												
주거환경 만족도	.265***	1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121***	.342***	1										
대중교통 만족도-지하철	.079*	.261***	.505***	1									
대중교통 만족도-택시	.161***	.221***	.500***	.526***	1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123***	.234***	.222***	.158***	.148***	1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121	.187**	.144*	.044	.113	.234***	1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063	.148*	.143*	.007	.125	.088	.540***	1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050	.106	.082	.151*	.069	.025	.490***	.615***	1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061	.122	.099	.172*	.121	.017	.402***	.435***	.621***	1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038	-.025	-.029	.067	.042	.019	.340***	.316***	.423***	.621***	1		
소득수준 만족도	.059	.219***	.216***	.123*	.164**	.211***	.670***	.406***	.338***	.342***	.260***	1	
소비생활 만족도	.090**	.252***	.103**	.065*	.074*	.098**	.452***	.316***	.233***	.226**	.206**	.551***	1
	.003	.000	.001	.036	.015	.001	.000	.000	.000	.001	.002	.000	.000

* : p<.05, ** : p<.01, *** : p<.001

[부표 4-4]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25-29세)

	향후 정주 의사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대중교통 만족도- 지하철	대중교통 만족도- 택시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소득수준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향후 정주 의사	1												
주거환경 만족도	.274***	1											
	.000												
대중교통 만족도-시내버스	.169***	.336***	1										
	.000	.000											
대중교통 만족도-지하철	.083*	.205***	.480***	1									
	.017	.000	.000										
대중교통 만족도-택시	.226***	.265***	.537***	.481***	1								
	.000	.000	.000	.000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110**	.210***	.134***	.129***	.142***	1							
	.001	.000	.000	.000	.000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035	.145***	.043	.078*	.026	.030	1						
	.342	.000	.259	.050	.490	.414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062	.063	.079*	.066	.044	-.011	.565***	1					
	.094	.086	.039	.100	.240	.765	.000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002	.082*	.066	-.008	.011	.021	.451***	.530***	1				
	.964	.026	.085	.840	.772	.578	.000	.000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031	.092*	.124**	.059	.072	.077*	.446***	.465***	.585***	1			
	.405	.013	.001	.141	.055	.038	.000	.000	.000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037	.047	.141***	-.010	.080*	.077*	.385***	.462***	.440***	.608***	1		
	.317	.201	.000	.800	.032	.037	.000	.000	.000	.000			
소득수준 만족도	.069	.244***	.136***	.063	.096**	.077*	.636***	.383***	.322***	.324***	.274***	1	
	.054	.000	.000	.105	.009	.033	.000	.000	.000	.000	.000		
소비생활 만족도	.049	.276***	.165***	.074*	.085**	.131***	.368***	.316***	.262***	.294***	.260***	.532***	1
	.128	.000	.000	.035	.0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p<.05, ** : p<.01, *** : p<.001

[부표 4-5]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30-34세)

	향후 정주 의사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대중교통 만족도- 지하철	대중교통 만족도- 택시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일자리 만족도- 고용의 안정성	일자리 만족도-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일자리 만족도- 근로환경	일자리 만족도- 근로시간	소득수준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향후 정주 의사	1												
주거환경 만족도	.201*** .000	1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103** .005	.343*** .000	1										
대중교통 만족도- 지하철	.088* .023	.209*** .000	.434*** .000	1									
대중교통 만족도- 택시	.124*** .000	.219*** .000	.496*** .000	.472*** .000	1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015 .666	.189*** .000	.135*** .000	.033 .394	.094** .008	1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019 .626	.115** .003	.044 .286	.027 .537	.055 .163	.104** .007	1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053 .168	.099* .010	.097* .019	.030 .492	.073 .063	.052 .177	.563*** .000	1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032 .402	.074 .054	.128** .002	.027 .525	.067 .090	-.008 .826	.450*** .000	.501*** .000	1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062 .107	.085* .027	.153*** .000	.073 .090	.086* .028	.027 .476	.410*** .000	.451*** .000	.573*** .000	1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060 .121	.032 .410	.073 .077	.036 .399	.039 .317	.075 .052	.368*** .000	.407*** .000	.446*** .000	.567*** .000	1		
소득수준 만족도	.038 .312	.233*** .000	.061 .129	.049 .240	.104** .007	.101** .007	.616*** .000	.441*** .000	.320*** .000	.317*** .000	.298*** .000	1	
소비생활 만족도	.067 .053	.230*** .000	.088* .017	.030 .443	.073* .040	.116** .001	.379*** .000	.398*** .000	.304*** .000	.308*** .000	.282*** .000	.508*** .000	1

* : p<.05, ** : p<.01, *** : p<.001

[부표 4-6] 2017 대전시 사회조사 향후정주의사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35-39세)

	향후 정주 의사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대중교통 만족도- 지하철	대중교통 만족도- 택시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일자리 만족도- 고용의 안정성	일자리 만족도-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일자리 만족도- 근로환경	일자리 만족도- 근로시간	소득수준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향후 정주 의사	1												
주거환경 만족도	.264*** .000	1											
대중교통 만족도- 시내버스	.025 .491	.287*** .000	1										
대중교통 만족도- 지하철	.005 .903	.140*** .000	.480*** .000	1									
대중교통 만족도- 택시	.142*** .000	.205*** .000	.548*** .000	.437*** .000	1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076* .022	.252*** .000	.138*** .000	.099** .008	.149*** .000	1							
일자리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030 .429	.196*** .000	.083* .043	.066 .124	.109** .005	.150*** .000	1						
일자리만족도-고용의 안정성	.017 .654	.177*** .000	.123** .003	.069 .109	.110** .005	.138*** .000	.573*** .000	1					
일자리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063 .092	.148*** .000	.177*** .000	.037 .391	.159*** .000	.069 .069	.460*** .000	.520*** .000	1				
일자리만족도-근로환경	.043 .255	.161*** .000	.186*** .000	.112** .008	.143*** .000	.074 .050	.397*** .000	.432*** .000	.606*** .000	1			
일자리만족도-근로시간	.021 .585	.170*** .000	.191*** .000	.145** .001	.156*** .000	.046 .219	.342*** .000	.371*** .000	.497*** .000	.648*** .000	1		
소득수준 만족도	.093** .010	.258*** .000	.058 .136	-.027 .505	.075* .043	.148*** .000	.598*** .000	.439*** .000	.363*** .000	.365*** .000	.283*** .000	1	
소비생활 만족도	.078* .018	.247*** .000	.082* .022	.062 .094	.029 .392	.146*** .000	.343*** .000	.304*** .000	.305*** .000	.300*** .000	.269*** .000	.534*** .000	1

* : p<.05, ** : p<.01, *** : p<.001